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창간특집
별책 부록 포함
〈독자 감사 인사 카드〉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21일)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신심을 일으켜라. 막힘이 없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친필 휘호 '기신심이춘행만국(起信心而春行萬國)'을 내렸다. '신심을 일으키면 모든 것이 봄길을 다니는 듯 한다.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성파 대종사는 휘호를 내리며 "불교계 언론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특별히 바라거나 할 말은 없다"면서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잘 전해지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뉴욕에 'K-불교' 전하다

석학 대담 · 강연 K명상에 공감
세계평화에 선도적 역할 확신도
미국방문 계기로 교류증진 기대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을 매개로 하는 '선명상(Seon Meditation)'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불교의 진수를 선보였다.

조계종은 10월 5~1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에서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국불교, 특히 선명상을 통한 마음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0여 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8일간의 일정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면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명상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뉴욕 현지에서 석학들과의 대담과 강연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진우 스님은 10월 9일 맨해튼 코렐클럽에서 세계적 양자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를 만나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할의 대화'를 주제로 대담했다. 과학과 수행의 접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10월 11일 진행된 마음 챙김 명상(MBSR) 개발자인 존 카밧진과의 대담에서는 선명상 소개와 함께, 현대적인 명상과의 공통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명상과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이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져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앞서 10월 10일에는 미국 예일대 학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명상과 마음건강을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참석한 예일대 구성원들과 '5분 선명상'을 함께하며 잠시 마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담과 강연은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를 소개함과 더불어 철학, 과학과 맞닿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유하고 선명상을 통해 마음평안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미국 사회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 원각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 후 동행취재 기자들을 만난 진우 스님도 이번 방미 성과로 "한국 불교, 그리고 선명상의 세계화 가능성"를 꼽았다. 스님은 "K-문화를 공유하고 한국 전통 선인 간화선을 중심으로 선명상을 세계화시킴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인에게 불교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첨단을 걷고 있는 AI시대에 양자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현대물리학을 기반으로, 그것이 절대 부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 한국불교가 전 세계의 명상 흐름뿐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불교가 서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불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면 살피는 문학 정신 돋보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축전

소설가 한강(53)이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온 국민과 함께 환희의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며 축하했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진우 스님은 이날 강연차 참석한 예일대에서 동행취재 기자들을 만나 "한강 작가는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마주하는 인간의 삶을 현대적 언어로 다루어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강 작가의 수상을 맞아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작가의 문학 정신을 함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통찰하며 역사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고요하고 담담하게 주인공들의 삶을 연결해 나가는 작가의 작품들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과 시대의 상황을 성찰해야한다"면서 "한국불교가 추구하는 선명상과 마음의 평안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

새 디자인, 새 각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이번 창간특집호부터 제호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모든 '현대불교' 상징에 적용합니다. 새로운 서체 디자인은 다변·다양해지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깔끔한 고딕체워드로 모던함을 추구했습니다.

제2의 창간으로 재도약하는 현대불교가 새 모습으로 시대를 읽어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2024년 창간 30주년 특집호
A·B섹션 6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5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30년 발자취 A7
현대불교 30년 불교뉴스 30선 A9
창간30주년 축하메시지 A11·12·13·14

창간특집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A16·17·18
2054 미래불교 B1·2·3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B5·7·9·11·12
뉴미디어 시대와 불교 언론 B14·15
SNS '핫스팟'은 어디? 여기! B22·23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이 됐음을 알고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기 북부 왕실 사찰 다수…원당만 70여 곳”

탁효정 순천대 연구교수, 10월 15일 불교博·봉선사 특별전 학술대회서 ‘조선 경기 왕실원당 특징’ 주제
양주 27개 · 고양군 19개로 밀집해
“승역 확대로 능원묘 수호 증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탁효정 국립순천대 연구교수

“경기 북부 지역은 고려에 이어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관문이자 사회문화적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 왕실 능원묘(陵園墓)가 경기 북부 지역에 밀집되면서 왕실 제사와 종교의례 관련 시설이 이 지역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에는 왕실과 관련한 사찰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탁효정 국립순천대 연구교수는 10월 15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4년 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연계 학술대회에서 조선시대 경기 북부 사찰과 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고찰했다. 연계 학술대회는 경기 북부 지역의 왕실원당과 불교문화유산 등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박물관의 학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시대 경기 북부 왕실원당의 분포와 특징’을 주제로 발제한 탁 연구교수는 “개국초부터 조선말까지 불교를 깊이 신행한 조선 왕실은 전국 각지에 기도처를 마련했다”며 “그 중 왕과 왕비, 후궁, 왕자, 공주 등 왕친의 진영이나 위패, 전패, 어필 등을 봉안한 사찰을 왕실원당이라 칭했다”고 설명했다.

왕실원당은 △궁궐 안팎에 설치돼 왕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내원당 △왕실 능원묘의 수호를 담당한 사찰 △왕실 구성원의 안녕과 축원을 담당하는 위축원당, 즉 축원당 △태실의 보호와 태실 주인의 안녕을 발원하는 태실수호사찰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탁 연구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왕실원당은 250여 곳이며, 경기 지역 왕실원당은 약 100곳에 이른다. 그 중 경기 북부에서만 56개 사찰에서 70여 곳의 원당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가 27개로 가장 많고, 고양군(19개), 개성(7개), 장단(5개)이 뒤를 이었다. 원당 유형별로 살펴보면 왕실 능원묘 관련 원당은 34개(능침사 7회, 재사 4회, 조포사 21회, 조포속사 2회), 위축원당 34개, 진전속사 1개, 태실수호사찰 1개이다.

탁 연구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개성과 장단, 풍덕 등 고려의 옛 수도와 그 주변에 있던 사찰에 원당이 많이 설치됐고, 조선 후기에는 양주와 고양에 주로 설치됐다”며 “이는 왕실과 관련된 불사를 설행하는 주요 사찰들이 개성에서 한양 주변으로 이동한 점과 더불어 조선 후기 승역 확대에 따라 능원묘를 수호하는 원당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에 설치된 왕실원당 중에서도 중참 규모가 컸던 대표 사찰로는 봉선사, 개경사, 대자암, 정인사를 꼽았다. 탁 연구교수는 이 사찰들이 왕실구성원의 능묘 근처에 설치돼 명복을 빌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탁 연구교수는 “조선에서는 왕실뿐 아니라 사대부, 일반민까지 500년 내내 불교식 상장례 의식을 이어갔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불교 추천의례는 조선 사부대중을 위무하고 사찰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조선 불교를 내세중심적 성향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존속 기반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유근자 국립순천대 연구교수, 손영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엽 동국대 미술학부 대우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학술대회에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봉선사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사찰의 참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자리”라며 “소중한 경기 북부지역 성보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봉선사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료로 남아 봉선사 본말사 성보가 잘 보존되고, 많은 국민에게 경기 북부 문화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각산 백련사 불교문화유산 조명한다

태고종 총무원, 특별학술대회
오는 10월26일 국박 소강당서

통일신라시대 진표 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삼각산 정토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신광희)가 주관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에 자리한 백련사는 통일신라의 진표 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4대 비보사찰(裨補寺刹) 중 하나로 본래 정토사(淨土寺)로 불리다가 조선 세조대에 이르러 세조의 딸 의숙옹주가 죽자 백련산에 묘를 쓰고 원찰로 삼으면서 백련사(白蓮寺)로 이름을 바꿨다.

학술대회는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가 ‘백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김수현 고양특례시 학예연구사가 ‘서울 백련사 소장 동종 연구’를, 조태건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이 ‘삼각산 백련사 명부전 존상 연구’를, 최엽 동국대 대우교수가 ‘경티절 백련사 불화의 성격과 의의’를,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이 ‘서울 백련사의 신중신앙과 불화제작양상’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현재 백련사 주석 중인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백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려 향후 종단의 대표 사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학술대회를 통해 “백련사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할 계획”이라면서 “중요 성보문화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천년고찰 서방정토 백련사의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학술대회 이후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 신청을,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권속 일괄’(비지정)과 약사전, 대방 등에 봉안되어 있는 중요 성보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순국선열 공덕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 영산문화축제
10월 12일 서대문독립공원 일원
영산재, 추도식, 문화공연 등 진행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영산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과 애국열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 스님)는 10월 12일 서대문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 특설무대에서 ‘제4회 한민족 영산문화축제’를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영산문화축제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원스님들이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는 안행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영산재, 추도식, 추모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공덕을 기렸다. 운경 스님은 “저희 후손들은 선열들의 희생과 구국정신으로 전개한 독립운동의 은덕으로 기사회생해 단일독립국가로 최빈국에서 세계10위의 경제강국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이 더 안정되고 국민화합으로 평화통일이 성취되길 살펴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지난 고통과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극락세계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발원했으며, 법문 이후에는 참석대중과 ‘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호국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봉헌사를 통해 “호국의 선열들께서는 후손들이 잊지 않음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청하며 전국비구니회 수행자들 모두는 거룩한 희생에 보은 올린다”고 추모했다.

내외빈들의 추도사도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대중은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예진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신중일 기자

“연등회 대중에 알릴 창작곡 모집합니다”

연등회보존위, 음악 공모전
내년 1월 7~9일 접수 가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통일신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등회. 연등회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음악 공모전이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가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연등회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음악으로, 연등회 주제에 부합하는 창작곡이면 된다.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곡이되,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정신이 담긴 곡을 선호한다. 또 국악 선율 및 국악기 사용을 권장한다.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직접 방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연등회보존위원회)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LLF@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참가신청서와 음원, 악보와 노랫말을 제출하면 된다. 음원은 mp3파일 형식(영상 불가)으로 제작 돼야 하며 보컬 가이드는 필수로 담겨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 최대 3곡까지 응모할 수 있고, 순수 창작곡만 가능하다. 음악 길이(전주·간주 포함)는 3~4분 내외다.

당선작 발표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지되며, 당선작은 연등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입선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형형색색 조계사 도량 국화처럼,
현대불교신문사의 다가올 30년도
활짝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50돌 맞은 불광, '법회·교육'으로 재도약

10월 12일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광덕 대종사 포교 원력으로 시작
법등, 구법회 등 신도조직 신기원
동명 스님, 4대 발전 방향 제시해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광사는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4대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서울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되짚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불광사는 10월 12일 경내 보광당에서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서울 중심 포교도량으로서 재도약의 서원을 세웠다.

법회에는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을 비롯해 정암·학륜·지명·지철·대원 스님 등 광덕문도회 스님들, 서강석 송파구청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연 '불광'

불광사는 금하 광덕(金河光德, 1927~1999) 스님의 포교 원력으로 비롯됐다. 1974년 3월 대각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광덕 스님은 그 해 9월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하고, 11월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다. 1975년 10월 13일 월간 〈불광〉 창간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한국사상강연회에서 법회 창립이 구체화됐고, 10월 16일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했다.

1976년 불광법등이 창설되며 신도들이 늘어나자 광덕 스님은 새로운 법당 조성을 위한 불사를 일으켰고, 1982년 10월 24일 지금의 불광사로 법회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이곳에서 광덕 스님은 불광유치원을 개원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고, 불광교육원을 통해서는 전문적인 신도교육을 실행했다.

이처럼 불광법등과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포교 원력의 양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사의 법등운동은 바라밀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전법을 생명으로 하는 운동"이라며 "불광사 법등조직은 재가불자들이 포교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사례가 됐으며, 사찰 내 신도조직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월간 〈불광〉에 대해 서재영 박사는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불광운동의 사상적 발신지"라며 "〈불광〉을 매개로 불광운동이 전개됐고, 마침내 잠실 불광사가 창건되기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2월 27일 광덕 스님의 원적 이후에도 불광사는 전법·포교를 이어갔다. 2007년 법회 임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창불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중창불사를 추진했으며, 2013년 10월 13일 2년 8개월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2015년 1월에는 제2의 불광운동 선포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꿨다. 하지만 2017년 시작된 내홍으로 인해 불광법회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주지스님에 대한 사퇴 요구와 신도들 간의 갈등은 사찰 내 분열을 야기했고 불광사 공동체의 큰 시련이 되었다. 그러나 불광사는 갈등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불광운동의 근본정신인 화합과 원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신도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큰 결속을 이뤄내고 있다.

'기도 · 법회 · 교육 · 복지'라는 초심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불광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다. 주지 동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기도수행 △법회 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라는 네 가지 운영 방향을 전했다. 이는 불광법회가 시작했던 지점과도 맞닿는다.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은 삿된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순수불교'라고 명명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불교를 실천하겠다"면서 "불광사는 토요법회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대에 맞는 법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불법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광이 현대 한국불교의 역사를 새로이 썼듯이, 불광을 여법하게 지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라며 "저희 불광의 보현행자들은 광덕 큰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 속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음악인상에 조영근 작곡가

불교음악원, 10월 16일 발표

올해 불교음악인상에 조영근 작곡가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불교음악신인상은 임형주 지휘자가 수상했다.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10월 16일 제7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교음악인상 수상자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불교음악신인상 수상자에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올해 불교음악인상을 수상한 조영근 작곡가는 1세대 찬불가 작곡가이자 지휘자다. 1988년부터 약 36년간 찬불가 작곡, 연주, 편곡, 음반 제작에 헌신해 왔다. 대표곡으로는 '향심'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님께로 가오니' '서리꽃의 염원' 등이 있다.

수많은 사찰과 단체에서 합창단을 창립하고 지도한 조 작곡가는 어린이 찬불가, 생활찬불가, 합창곡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찬불가 보급과 포교에 기여했다.

불교음악신인상의 영예를 안은 임형주 씨는 동국대 정각원과 조계종 국방부 원광사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 연합 합창단 로투스 단장을 맡아 유럽·중국 등에서 공연을 열며 성악가로서 불교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제7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은 10월 24일에 열린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관 개관식 개최

10월 17일 충무로 영상센터 5층서
법인, 총동창회, 학교 상호협력해
사무실, 명예의 전당, 회의실 구비



동국대가 35만 동문을 위한 총동창회관을 이전·개관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10월 17일 서울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5층 회의실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진행했다.〈사진〉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오늘 총동창회관 개관은 학교, 법인, 총동창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이전·개관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역대 총동창회장, 불교대학원 혜담 스님, 송석구·윤성이 전 총장 등 동문 120여 명이 함께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충무로 영상센터 5층을 총동창회관으로 사용하며 내부 시설로는 회의실, 명예의 전당, 사무실이 마련됐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35만 동문의 염원이 담긴 총동창회관이 개관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충무로로 총동창회관을 이전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모두 여러분의 조언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학교와 총동창회가 하나 되어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꿈꾸던 숙원이 오늘 드디어 해결되는 듯하다"며 "법인과 학교 그리고 동창회가 셋이서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상징적인 날이다. 동창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표 24대 총동창회장도 "동국대는 10년동안 꿈을 키워오던 곳"이라며 "오늘 동창회가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갖게 되니 감동스럽다. 앞으로 동문들이 화합하고 학교와 법인, 동창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의 축배 제의로 개관식은 마무리됐다. 홍파 스님은 "동국대 120주년이 가까이 오는 시기에 총동창회관이 충무로 영상센터에 자리 잡았으니, 앞으로 동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 나왔다

문화사업단 10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지서…4편 구성
김보통 작가, 제작에 참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불교 설화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를 제작해 10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했다. 그간 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활성화를 위해 2년간 불교 설화를 소재로 한 12편의 웹툰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3는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흰양의 윤회 메시지(백양사)' '비맞는 사천왕(불갑사)' '세 여신의 유혹을 이겨낸 지장율사(삼화사)' '용의 머리가 잠든 곳에 지팡이를 꽂다(양평 용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불갑사와 용문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눈길을 끈다.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는 한국불교 우수성과 역사성을 다양한 계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웹툰이다. 특히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와 이광일 실장(비브로스 팀)이 올해도 제작에 참여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를 통해 젊은 세대가 불교문화에 친근하게 다가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한 각종 불교문화를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제21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 후보 공모

10월 25일~11월 10일 접수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스님)이 '제21회 불교활동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불교활동가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5년 이상 불교계에서 활동한 재가불자와 외국인스님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대상자의 이력서와 활동내역서를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메일(sulpub@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가령 기자



청련사·봉은사, 전생 과보 참회 의식 '생전예수재' 설행

신중일 · 김가령 기자

10월 10일, 중양절 맞아 청련사, 봉은사 경내서

사부대중 '업장소멸' 기원 "불교 유산 전승에 최선" 국가무형유산 등재 발원도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스님들이 천수바라의식을 하고 있다.


봉은사 대중스님들이 택전점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 '생전예수재'가 올해 1월 26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발표한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유산 등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태고종 양주 청련사와 조계종 서울 봉은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국태민안과 전생 업장 소멸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를 잇달아 봉행했다.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회장 상진 스님, 이하 보존회)는 10월 10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의 주석 사찰 양주 청련사 경내 대적광전과 명부전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삼세인과 소멸을 위한 청련사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도량을 옹호해주실 호법성중을 모시는 '시련'과 설판 재자(齋者)의 제영가와 일체 고혼 영가를 맞이하는 '재대령', 삼조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이 진행됐다.

이어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등장하는 천신과 성중 104위에게 수행자를 보살피고 도량을 수호해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신중작법',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경함에 경전을 이운하는 '경함이운', 불보살과 성현에서 공양을 올리는 '운수상단' 등이 진행됐다.

'예수시왕생칠재(預修十王七齋)' 본식은 소청사자 봉송사자·소청 중위·소청고사·마구단 불공·관음시식·전시식·경신봉송·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식 동참 대중은 스스로 참회하며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법사 태고종 종정 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의 고통에서 벗어나 복락을 누리기 위해 예수(預修)하고 돌아가실 분은 왕생정토를 발원하며, 이미 돌아가신 분은 해탈을 발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재 설행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운경 스님은 대중에게 생전예수재 기간 중 △매일 108참회 △하루 한번 선행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기 △타인을 흉보지 않고 미워않기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경어쓰기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 6가지 선업의 실천행을 제시했다.

보존회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의례인 생전예수재 보존 전승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상진 스님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생전예수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불제자의 소명이다. 앞으로도 청련사는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해 한국불교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감은 물론 민족의 유산이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생전예수재를 모신 공덕으로 전생의 빚을 갚고 밝은 지혜를 얻어 일체 업장은 소멸되고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올해 8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제52호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설행했다. 입재를 시작으로 49일 간 매주 금요일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주제로 법문과 시식을 진행하며 업장 소멸과 열반 성취를 발원했다.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2017년 설립하며 생전예수재 전통을 이어온 봉은사는 10월 10~11일 이틀간 경내 일원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하고 49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첫날 명종 10타로 시작한 회향식은 △신중작법 괘불 △불패 이운 △예수도량 건립 △주지스님 법문 △금강경 합송 △사자단과 상단의식 등으로 거행됐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중단의식(시왕단) △하단의식(고사단-함합소-마구단) △영단의식에 이어 자신의 죄를 직접 고하는 일종의 상소문 '함합소'를 태우는 봉송회향으로 마무리됐다.

사부대중은 봉송회향 때 회향식에서 사용한 금은전, 번 등 모든 의물을 봉송단에 태우며 본인의 열반 성취와 예수재 공덕 회향을 발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에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육바라밀 실천을 당부했다. 스님은 "감정기복을 다스리고 생각으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지계를 실천하여 베푸는 삶을 살자"며 "나와 불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는 자리이타행인 예수재를 한 공덕으로 모든 원하는 일이 성취되길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전했다.

사노위,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첫 추모예식

10월 14일 광화문광장서 진상규명, 대책마련 촉구 "생명존중 세상 마련되길"



대책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불교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인 추모예식에 동참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피해 대책 마련을 기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0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에 함께했다. 참사가 공론화된 2011년 이후 13년이 지나 열린 첫 공식 추모행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노위를 비롯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등이 동참해 기도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대책모임은 추모예식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발생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제대로 애도할 수도, 이 재난에서 회복될 수도 없다"며 "국민 102만 명이 다치고 죽은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희생자와 피해자 회복의 길이 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원 덕인 스님은 "아직까지도 수백만명이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지만 가해 기업과 문제 제품에 인증을 한 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세월호, 이태원, 오송, 아리셀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처럼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지만 그 길이 지난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스님은 "이들은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사노위는 희생자 분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안전보장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한사평, 예술로 종교화합의 장 열다

10월 13일 광화문광장서 중앙신도회, 선명상 체험 사찰음식 홍보 부스 운영



불교를 비롯한 7개 종교가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종교문화를 알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7대 종단 평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김회인, 이하 한사평)가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 문화 예술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7개 종교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레크레이션, 7대 종교 전시·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7개 종교 연합합창단과 싱잉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아름다운 세상'은 종교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사평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체험'과 '사찰음식' 홍보·전시 부스를 운영해 이웃종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교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회인 한사평 대표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진흥원, 학술콘텐츠 공모 당선작 발표

10월 15일 증서 수여식 학술 · 콘텐츠 부문 18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10월 15일 진흥원 임원실에서 '제10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당선작 확정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설립 취지인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조명하고 불교를 현실에 맞게 연구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공고를 시작해 8월 중순까지 총 66편(학술 38편, 콘텐츠 28편)의 학술 및 콘텐츠가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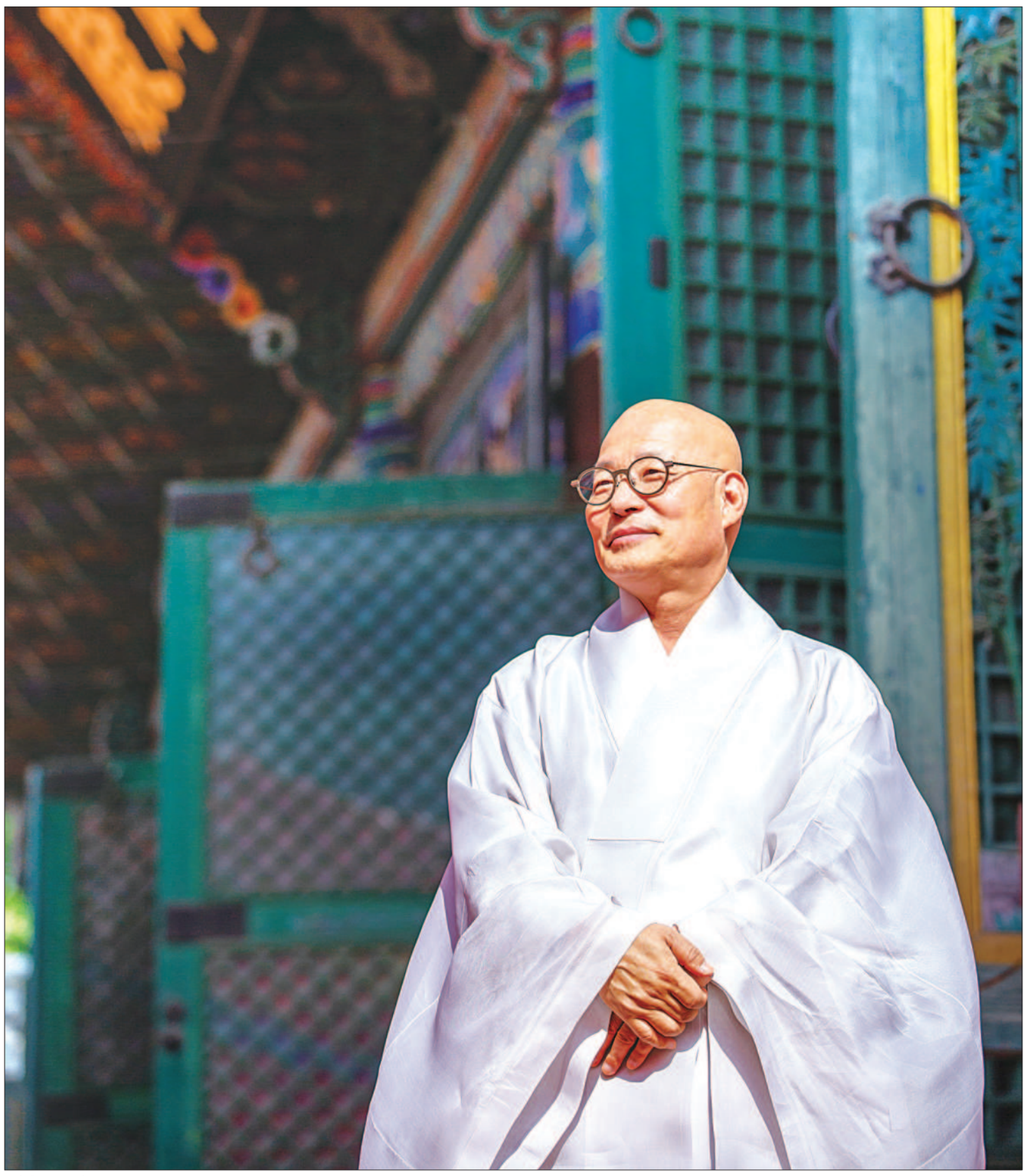
진흥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부문 9편과 콘텐츠 부문 9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총 1억3730만원을 지급했다. 김민재 기자



“변화 원하면 습관 바꿔야…선명상 정진이 해법”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우 스님은…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풍부한 포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시기에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크게 기여했고, 2019년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해 ‘승가교육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 교역자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결집하면서 현실 여건을 극복하는 효율적 승가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널리 펼치는 가운데 특히 ‘선명상 대중화’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온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광화문 광장서 열린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이 선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우 스님이 지난 2월 23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원들의 예방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종단 행정 수반으로 종무행정을 책임지면서도 전국 사찰을 다니며 법문과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불교도대법회·국제선명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날 불교도대법회에서는 3만 5000여 대중이 광화문 광장에서 ‘5분 선명상’을 하며 ‘고요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진우 스님이 취임 2주년이자 본지 창간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는 10월 1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이뤄졌다. 이날 진우 스님은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갔다”면서도 “취임 전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진우 스님은 사찰 문화유산관람료 무료 전환을 비롯해 사찰 종합부동산세 완화, 승려복지를 위한 아미타요양원 개원, 전통사찰 지목 종교용지 변경, 사찰 전기료 부분 보조 등 총무원장으로서 불교 현안들과 종무행정을 진두지휘하며 해결해 왔다.

진우 스님은 “종단이 안정돼 9.28 불교도대법회도 회향될 수 있었다. 모두 종도들이 도와준 덕분이다”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는 임기동안 잘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9.28불교도대법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민들에게 ‘불교가 멋있고 장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법회를 열었다. 이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시켜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 패턴이 있어야 한다. 좋은 습관과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자기 성취가 이뤄진다”면서 “좋은 습관을 반복하며 유지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습관의 유지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감정의 등락이 커서는 안 되며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며 “하루 ‘5분 선명상’을 습관으로 가져라. 분명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28불교도대법회 3만5천 대중 운집
‘불교는 멋있고 장엄하다’ 인식 각인
‘하루 5분 선명상’ 실천 사업 본격화

‘양자역학’ 법문은 시대 언어 전법행
양자 중첩·얽힘 현상, 불교와 상통
중독 문제, 나쁜 습관에 매몰돼 생겨
좋은 습관 매일 반복할 때 변화 이뤄
“현대불교신문, 포교·전법 첨병 되길”

다음은 진우 스님과 일문일답.

Q 9월 28일 불교도대법회에 대해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기획한 것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법회는 불자와 국민들에게 ‘불교는 멋있고 장엄하다’를 보여주려고 기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색다른 불교의 모습을 각인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5개 교구본사에서 협력해 3만5000여 대중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우리 종단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국민들이나 불자들의 불교와 종단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Q 대회에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보급 계획은?

A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에서 선명상을 발표하고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선명상 안내서’ 책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명상에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체험도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찰별 시범운영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운영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특화사찰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범어사, 백양사, 송광사, 백담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Q 불교가 MZ세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A 한국불교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경전의 한글화, 현대화도 한 몫을 했고, 20년이 훌쩍 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꾸준히 국민들과 행복의 접점을 넓혀갔던 부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개인화가 가져온 인간의 소외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찾게 되고 마침내 불교와 명상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불교 열풍’은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불가역적 흐름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찾아왔고, 그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생산해내고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중앙종무기관을 개편하는 것도 종단의 모든 역량을 청년포교와 전법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Q 스님께서는 비텐스 결성, 불교AI음악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문화전법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설령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같은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면 훨씬 더 내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세대와 소통할 언어를 고심했고, 그 언어가 지금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돌 팬덤 문화, 유튜브, AI 생성 콘텐츠에 익숙한 사람들 특히 , ‘비텐스’ ‘불교AI음악’ 등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비텐스’의 무대에 수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 환호하고, 예전에 법당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반야심경과 천수경이 이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다양한 랩으로 변형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수만의 보살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대기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부처님 법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Q 최근, 스님의 법문과 강연의 내용 중에는 ‘양자역학’ 관련 내용이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양자역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A 불교는 2600년 동안 해당 시대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시대적 언어와 정서로 설법해왔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설법을 하려면 인공지능과 이를 구현하는 과학기술 중심에 있는 ‘양자역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해보면, 불교와 상당히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양자 중첩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양자 얽힘은 의상 대사의 ‘화엄경 법성게’와 맞닿습니다. 결국 양자역학도 불교의 말하는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불교가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Q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 이뤄집니다. 이중 종책연구기관 ‘조계종연구소’가 새로 구성됩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A 종단의 연구기관으로는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있지만, 개별적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만 머물러 왔습니다. 분산됐던 종단의 정책연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종단의 미래 전략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대응 방안을 만드는 정책 연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종책별, 분야별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인 종책과 법 제도 개선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8배 정진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정진이라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A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일 108배를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잘 유지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자면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한국사회에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나쁜 습관을 들인 업보인가요?

A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는 이유가 쉽게 희열을 얻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쉽게 얻고, 욕심을 부려 얻는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도박, 약물, 고자극 도파민 등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 그만큼 인과의 과보가 찾아옵니다.

뭐든 쉽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진폭을 줄여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Q ‘하루 5분 선명상’의 취지도 감정을 고르게 유지함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A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깁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집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반드시 괴로움이 찾아오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쉽게 좋아지는 것은 오히려 자기자신에게 고통이라는 인과 과보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진폭이 생기지 않게 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선명상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루 5분간이라도 마음의 고락(苦樂)의 등폭을 줄이고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하루 5분만 선명상을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Q 본지가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교 언론인을 위한 덕담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제가 총무원장으로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법·포교입니다. 많은 국민을 불교로 이끌어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불교중흥’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계 언론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전법포교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언론의 가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불교계 언론 종사자들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현대불교신문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포교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업무에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이갈지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김도진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이개문
규정부장	구성해
기획실장	곽수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총무분과위원장	김월도
법제분과위원장	방경혜
재무분과위원장	이보광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봉 30 창간 30주년 1994~2024 현대불교신문 HYUNDAEBULGYO NEWSPAPER 축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60년에 즈음한 학술심포지엄

대한불교관음종 종도 일동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총 인 **덕 일**

통리원장	도 진
종의회의장	증 혜
현정원장	능 원
교육원장	효 명
총금강회장	정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더욱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스님**

사부대중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전화 041)832-1188 www.miamsa.com

‘신행포교지’ 新 언론정체성으로 전법·포교 30년

현대불교신문 30년 발자취

정리=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호.



①현대불교신문 현판 제막식 ②불교서점 여시아문 오픈 ③조계사 선원장 초청대법회 ④부다피아 오픈 ⑤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후 기념사진 ⑥반가사유상 보내기 운동 ⑦부다피아 홈페이지 ⑧부다피아 어린이 캠프-하와이

현대불교신문이 걸어온 30년

대행 선사 원력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
사시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모토
신행·포교·수행 단체 발굴, 신행수기 공모 등
‘신행·포교지’로 교계 新 언론 정체성 선보여
문서포교에 다양성·매체포교 저변 넓힌 계기
불교계 언론사 최초 자체 편집 시스템 구축
한국불교 중흥 위한 연중 캠페인 매년 진행
교계 최초 인터넷 웹사이트 ‘부다피아’ 오픈
인터넷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현불닷컴) 오픈
불교계 신문 최초 ‘2섹션’ 편집 시스템 정착
불교대중화 위한 특별법회 사찰과 공동 개최
한국불교 역사의 현장과 소식 빠짐없이 전해
도서출판·불교서점 ‘여시아문’으로 불서보급
‘중·고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냅시다’ 전개
교도소, 군법당 등에 법보시운동 활성화 선도
부다피아어린이캠프 개최로 어린이포교 앞장
한국의 근대 고승 기념 메달로 제작 보급해
한국의 근세 고승의 자수 진영 작품 전시회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 운영 뉴미디어 열어

“‘현대불교’는 언제나 거짓 없는 목탁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오로지 붓다의 기관지임을 고집할 것이며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바른 언론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 창간사 중에서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원력

한국불교가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주간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사시와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을 모토로 한 현대불교신문 창간은 한국불교 문서포교에 다양성을 더하고 매체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전법은 물론 사부대중의 수행과 신행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불교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1994년 10월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창간 기념 행사에는 불교계와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했다.

‘신행포교지’ 新 언론정체성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 당시 불교계 신문사로는 후발 주자였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언론 정체성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포교 패러다임을 열었다.

△불교계 전반의 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 수행과 신행, 그리고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신행포교지’라는 새로운 언론 정체성을 선보이며 전방위적인 매체전법의 길을 열었다.

드러나지 않은 전국의 신행·수행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면에 소개하고, 신행수기를 공모하는 등 신행과 수행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신행과 수행의 붐으로 이어져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이끌어냈다.

△현대불교신문은 승가와 재가의 거리를 좁혀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불사에도 진력했다.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조계사)’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범어사)’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등 특화된 법회를 대형사찰과 공동으로 개최해 대중과 시대의 선지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연중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롭게 해낸 일들이 많다.

△불교계 언론사 최초로 자체 편집 시스템을 구축해 취재와 편집의 이원화를 실현했으며, 교계 신문 최초로 법공양 면 도입과 ‘2섹션’ 편집을 시도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증면을 통해 유·무형으로 교계 신문의 저변을 확장시켰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 언론시장에서 후발 주자였지만 한국불교 발전에 대한 원력은 그 어느 매체보다 견고했다. 그 실천의 하나가 현대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연중캠페인’이다.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새싹불자를 키우자,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나눔의 손잡기, 군포교합시다,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사)다나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소녀에게 응원을’ 등 한국불교와 불자들을 위한 연중캠페인을 펼쳐 한국불교와 대중에게 늘 밝은 길을 제시했다.

원력 중의 원력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원력 중에는 ‘불교의 세계화’가 있다. 한국불교 전체의 원력이라고 생각된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원력이다.

△1996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세계화를 연다.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웹사이트 ‘부다피아’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현대불교 전략정보팀이 자체 개발한 ‘부다피아’는 199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불교 종단, 선(禪), 불교출판 등 국·내외 불교 관련 정보를 당시 150개국 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부다피아에서는 화상회의·이메일·링크서비스 등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포교영역을 세계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0년 인터넷 실시간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현 인터넷 현대불교·hyunbulnews.com)를 시작한 것 또한 한국불교 언론사에서 비교 불가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불교계 언론의 방향을 인터넷으로 확장시켰다.

△2020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을 오픈했다. ‘혜자 스님과 함께하는 대행 스님 주인공 관법’ ‘신중일 기자의 불모지(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정론직필 언론사 본분 진력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역사적 현장에 늘 함께했으며,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진력했다.

△송광사 16국사 진영 도난(1995),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낸 수경 스님 새만금 삼보일배(2003년), 고속철 천성산 관통 반대 지율 스님 단식 38일,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9년 낙산사 복원 불사 회향, 영통사 복원,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비롯된 범불교도대회(2008년), 무소유 법정 스님 원적(2010년), 한국 비구니 승단의 큰 스승 대행 선사 원적(2012년), 간화선 세계 무차대회 성료(2015년), 한국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월결사 43일 인도순례, 코로나 팬데믹 산문 폐쇄·연등회 취소 ‘B-방역’,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 원적 등 한국불교의 역사적 현장과 소식을 빠짐없이 전함으로써 정론직필의 언론사 본분을 다하는 데 진력했다.

다양한 포교…여시아문, 마하몰, 미륵반가상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사로서의 본분은 물론 언론사로서 해야 하는 모든 불사에 매진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을 통해 많은 불서를 발간하고,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을 통해 불서를 보급했으며,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전문 쇼핑몰 마하몰을 선보임으로써 전법과 불교산업 확장에도 이바지했다.

이 밖에도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운동, 교도소, 군법당 등에 신문보내기 운동인 ‘법보시’ 운동,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한국 근대 고승 기념메달 제작 보급, 근세 고승 자수진영 작품 전시, 인도 녹야원에 최초의 한국불상 봉안 등 한국불교 저변확대와 포교 확장에 앞장섰다. 특히 1996년 진행한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운동은 일반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창간의 처음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30년을 달려온 현대불교신문은 이제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준비하며 제2의 창간으로 도약한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
주지 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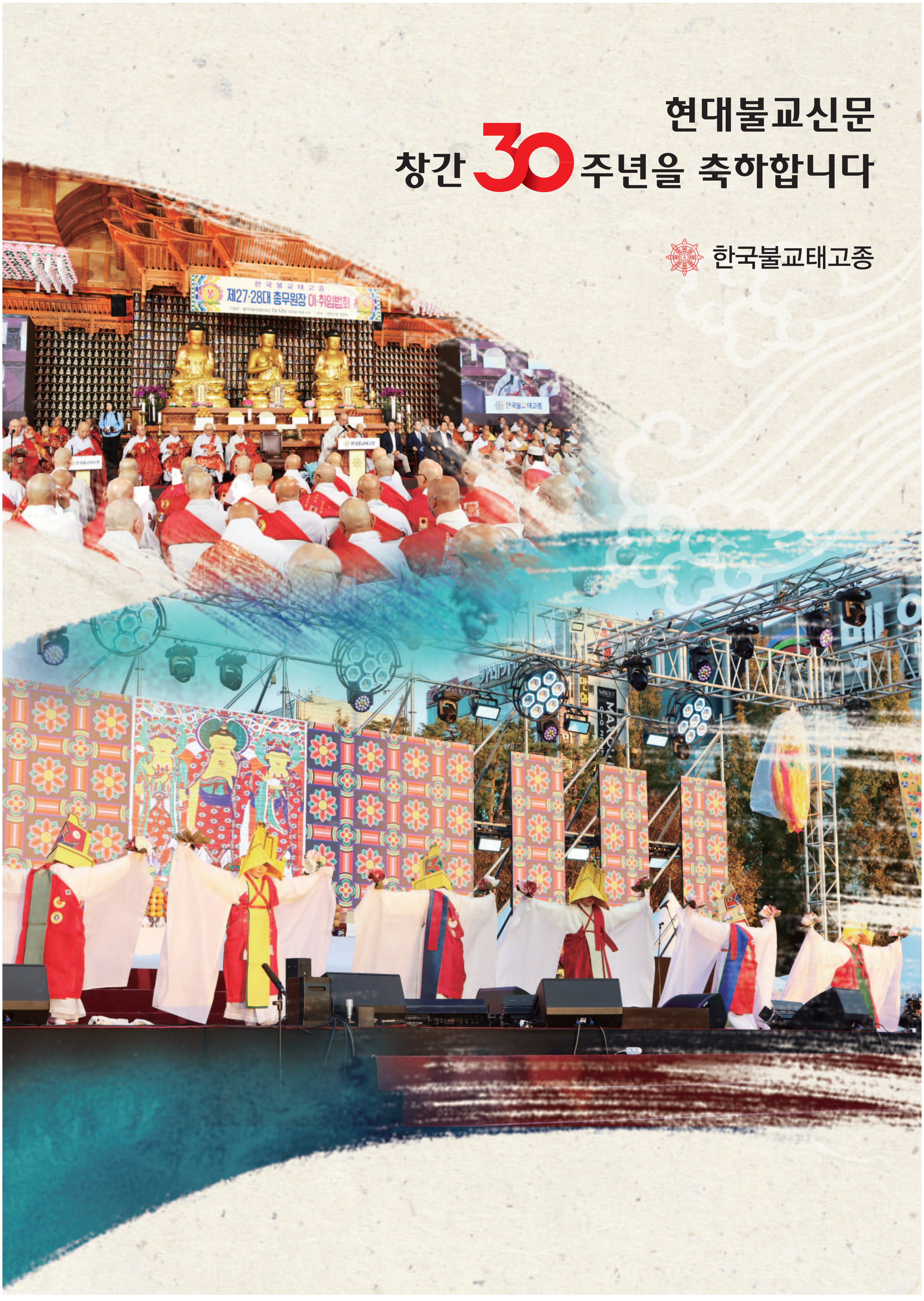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보살계 수계대법회 10월25일~10월26일
사천왕상 점안식 10월26일
– 많은 동참바랍니다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2003년 수경 스님이 함께 삼보일배한 문규현 신부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



2011년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열린 세계문화축전 개막식.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당시 자승 스님과 순례단이 도보순례하는 모습.



2024년 9월 28일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과 명상전문가가 선명상 실참하는 모습.

고난에도 불교중흥 걸음 멈추지 않았다

현대불교 30年 불교뉴스 30選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 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현대불교신문은 신행포교전문지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론을 통해 전하고 모든 이들이 부처님 말씀에 함께 하기를 서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현대불교가 전한 뉴스 중 30대 뉴스를 연도별로 선정했다.

1994년 조계종 종단사태, 종단개혁

1994년 조계종사에서는 큰 시련의 한 해였다.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출범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이 투입으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창간 전의 사태로 본지엔 보도되지 않았다.

1995년 송광사 16국사 진영 도난

1995년 교계는 송광사 국사전 16국사 진영 중 13국사 진영이 도난당하며 한 해를 시작했다.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1996년 사찰환경 훼손 심각

해인사골프장 건립, 봉은사 아셈행사장 건립, 선암사 앞 아파트 건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의 사찰 환경이 훼손됐다.

1997년 잇따른 사찰 방화, 성보 도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육군특수전학교가 법회에 참가하는 사병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상상도 못할 훼불사건을 일으켰으며, 북한산 일대의 사찰들이 연쇄적인 방화공포에 떨었다.

1998년 국난 극복·조계종 종단사태

IMF경제난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가 전국 8곳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월주 스님의 3선 문제로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 〈가산불교대사림〉 출간

가산불교문화원이 세계 최대 불교사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산불교대사림〉 1, 2권을 편찬했다. 지관 스님의 문자사리 〈가산불교대사림〉은 2024년 완간됐다.

2000년 디지털 고려대장경 완성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 전체를 CD 15장에 담아 '고려대장경 2000'을 발간했다.

2001년 한글대장경 318권 완간

동국역경원이 37년간 진행해온 대규모 역경불사의 결과물인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됐다.

2002년 천태종립 금강대 개교

불교계 네 번째 정규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가 개교했다.

2003년 불교환경운동사의 정점

2003년 한국불교는 '환경보살' 자체였다. 수경 스님이 새만금 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로 순례해 국민적 감동을 자아냈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을 막기 위해 지율 스님이 단식 정진을 이어갔다.

2004년 '서울시 봉헌' 물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한 개신교 종교대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2005년 낙산사 화재

4월 5일 산불로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 전각 37채 중 22채가 전소됐다. 처참했던 화재당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2006년 도난성보 회수

6월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았고, 10월에는 불화, 석탑 등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취득·은닉해 온 사설박물관 등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적발됐다.

2007년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발견

5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작업 중 5.6m에 달하는 엎어진 마애불을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08년 8.27 범불교도대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로 인해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됐다. 결국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7개 종단 스님과 신도 등 20만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2009년 낙산사 복원 불사 회향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일대를 휩쓴 산불로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가 4년여에 걸친 복원 불사 끝에 10월 12일 옛 가람의 모습을 되찾았다.

2010년 '무소유' 법정 스님 원적

'무소유'로 한 시대의 큰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2011년 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의 해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은 해였다. 경상남도와 해인사가 9월 23일~11월 6일 개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불교문화의 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뒀다.

2012년 스님들 도박, 몰카 사건

4월 터진 백양사 승려 도박·몰카 사건은 불교를 넘어 사회로까지 확산됐다.

2013년 주요 종단 수장 교체

2013년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였다. 10월 10일 열린 선거에서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주요 종단 수장이 교체 됐는데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진각종은 회정 정사가 종단 수장이 됐다.

2014년 조계종 법인법 갈등

조계종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추진하며 선학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을 탈종했다.

2015년 범계 의혹, 갈등의 한 해

조계종 주요 스님들의 범계 의혹이 불거져 불교계 안팎이 시끄러웠으며, 태고종은 내홍으로 종단협에서 자격이 정지되기까지 했다. 동국대 학내 갈등도 1년 내내 이뤄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스님도 퇴진운동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조계종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스님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2017년 '부처님오신날'공식 명칭화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을 2019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변경을 결정했다. 조계종 등 각 종단들과 불교 신행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2018년 산사, 세계유산 등재 '쾌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9년 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호산·무연·심우·진각·도림·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2020년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21년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삼보순례단은 10월 1일 송광사에서 입재하여, 해인사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거치며 총 19일간 423km를 걸으며 만행했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확산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이 던진 화두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가 종단적으로 확산됐다. 자승 스님의 원적 이후에도 이 화두는 이어지며 다양한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다.

2024년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불교도대법회가 성료했다. 이날 대회 일환으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3만5000명이 운집해 선명상을 체험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가지정 명승
호리병 속의 별천지 쌍계사, 청학동, 우리들의 이상향
723년 개산, 828년 차나무 최초 식재, 840년 창건

선(禪)·교(敎)·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磎寺

사부대중 일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전화 : 종무소 055-883-1901 www.ssanggyesa.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 도영	총 무	원묵	재 무	여찬
회 주	취산 도법	기 획	응묵	포 교	효진
주 지	지문 화평	교 무	해안	호 법	우림
부주지	대산 덕림	사 회	도헌	신도회장	한광수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불교 만인동참 후원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군장병 불자 포교 지원
  (위문품/포교용품/수계용품/불교서적)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사부대중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군종특별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 좋은날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어 주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은 한국불교의 기틀과 중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세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만들어 온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젊은 불교, 미래 불교의 기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장엄한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인간 소외 속에서 불교는 중생들의 고통에 화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과 사회적 실천에 현대불교신문이 신행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모두의 서원이자 염원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시대와 부합하는 새롭고 참신한 기획과 콘텐츠로 사부대중을 이끄는 문서포교의 큰 법당이 되어주시길 염원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법과 문서 포교에 진력해 오신 현대불교신문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30년, 한결같은 원력과 정성을 이어왔듯 새롭게 펼쳐나갈 한국불교의 미래에 늘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눈부신 내일과 굳건한 성취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다라 세계 열도록 정진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표방합니다.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면서 30년을 한 결 같이 정진해온 지난 역사는 불교계와 언론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 신행의 길잡이이자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는 불교정론지 현대불교신문은 한국 불교의 발전과 불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역할도 톡톡히 해왔습니다. 처소를 구분하지 않고 발로 뛰는 취재를 하며 뭇 생명의 차별 없이 누구나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교화하는 신행포교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창간 30주년을 넘어 더 나은 미래와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할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찬란한 문화와 유산을 지키고 전승하는데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교문화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확장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고 깨우쳐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 세계가 활짝 열리도록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제자 길잡이 되어 달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한 세대를 가름하는 기간을 대개 30년으로 삼아 구분하는데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변화기에 함께 한 한 세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정론직필의 의무와 사명감을 이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정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난립한 현대사회에서 사실의 진위와 내용의 함의를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이 가지는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가 가지는 창간목표는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가치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슬기롭게 구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길라잡이의 역할이 절실하고 모쪼록 한 세대를 지나 온 경험과 지혜로 현대불교신문이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립니다.

'눈 오는 날 나의 발자욱이 훗날 뒤따르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는 선시의 구절처럼 지금 한 세대를 지나 또 다른 미래의 세대를 여는 현대불교신문의 발자욱이 모든 불제자의 정도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경책과 목탁 같은 언론 되어 주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천태종 250만 불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 교리 △불자들의 신앙생활 △불교 종단 및 단체의 활동 등을 불교계 안팎에 널리 알리며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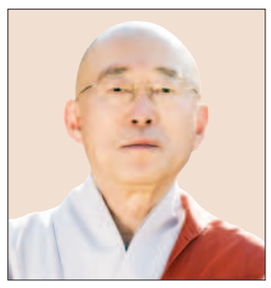
특히 창간 직후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개원하고, 정보화·디지털시대에 발맞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불교언론으로써 보여준 선도적이면서 과감했던 모습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언론을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불교계에 경책(警策)이 되고, 우리 사회에 목탁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가는 정론직필의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진실한 말 전하는 정론지 되어 달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대한불교관음종 종도들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불교 외호와 불법홍포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4년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스님의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각 종단 및 전국 사찰의 소식과 불자들의 신행·포교 현장 등을 독자대중에게 전해왔으며, 심도 있는 기획기사와 연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불교계 최초로 인터넷 뉴스를 시작했던 점도 현대불교신문이 보여준 성과입니다.

30년의 노하우와 저력이 있기에 현대불교신문의 향후 30년도 기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은 첫째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라고 설하셨습니다. 불법홍보와 불교 외호를 위해 기사를 다루는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경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서른 살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언론이 본연의 자세를 되새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이 현대불교신문도 오탁에 물들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정론지가 되길 바랍니다.

창간정신 되살려 자랑스런 언론되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속의 지혜로 가득 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창간정신으로 한결같이 신행과 수행을 돕는 언론으로 성장해온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신뢰와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요구를 지혜롭게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바르게 지향해왔습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교계 정보화의 마중물이 되어왔으며,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중중무진의 원력으로 불교 언론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왔습니다.

종단과 승속을 가리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포교 기능을 토대로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가치 있고 참된 삶의 벗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밀교의 교의와 사상도 널리 알림으로써 불교총지종이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불교가 보내주신 관심과 협력에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가 30년 전의 창간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언론으로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현대불교, 불법홍포 기수 되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대행 스님의 문서포교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신행지로써의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불자들이 가야할 길을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기사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결 같은 불심(佛心)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마경〉에는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도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 독자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는 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현대불교신문이 혼탁한 세상을 두루 밝히고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가는 불법홍포의 최전방 기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가장 불교적이고 편안한 매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몇 종류 언론들 중에서 가장 불교적이며 편안한 매체로 생각됩니다. 한국불교의 현장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으로 표방되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한 중생세간의 일이라 풍파와 사건, 사고들이 쉬지 않습니다. 언론사로 세상의 어지럽고 심란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대불교신문의 글들은 다른 매체들이 선호하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감각적 관심을 두드리는 기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합니다. 좋은 법문이 있고, 좋은 기사가 있으며, 좋은 필자들의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교계의 신문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꿋꿋한 생명력으로 잘 견뎌주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2002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며 깊은 인연을 맺은 이후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을 그렇게 또는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만들고 키워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함께한 신문사 구성원들과 독자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정법 지키는 호법신장 돼야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제자들에게 전하고 포교의 일선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정진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후 심도 있는 취재와 다양한 기획기사를 통해 불교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인 '붓다뉴스'를 만들어 불교 언론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작금의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성숙한 청년으로서 변화에 맞서야 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저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로 정법(正法)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장군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교계 언론은 불교를 외호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켜내는 호법신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정법을 수호하는 신장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서른 살 청년 현대불교신문을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정진하는 불교언론 되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불법홍포와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전국비구니회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께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는 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문화, 신행포교 분야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사를 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언론사의 으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불교계 안팎의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가짜뉴스와 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 안에 도끼가 있으니 몸을 해치는 것은 나쁜 말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기사 역시 언어적 도끼와 같아서 바르게 쓰면 양질의 기사가 되지만 왜곡된 기사는 사람에 마음의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금까지도 불자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귀중한 법을 바르게 전하는 정론지였고 앞으로도 선도하는 언론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리이타 실천하는 언론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정각회 회장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의 문서포교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를 홍포하는 선봉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불교신행문화 진작에 힘써 왔으며, 불교계 최초 포털인 '부다피아', 최초 인터넷 언론인 '붓다뉴스'를 개설하며 불교계 언론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는 대행 스님이 사시를 통해 강조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고 보살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에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 담겼습니다.

서른 살이 된 현대불교신문이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언론이 되길 바라며, 국회정각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승보살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비 정신 전하는 매체로 성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정론 보도를 이어오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불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롯이 불법 홍포와 한국 불교 발전에 헌신해 온 현대불교신문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중흥과 화합을 위한 중심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화합을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0만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문화 진흥에 노력해달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대행 스님의 원력으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치열한 수행 현장과 선지식들의 법문, 불자들의 자비행을 전하며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이바지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교소식을 전달해주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불교계의 정론지로서 불교의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쉼 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문화 진흥에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시대 요구 반영해 진정성 갖춰

윤재웅 동국대 총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중심 언론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단 소식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신행 생활, 불교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듯이,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사부대중에게 일상 속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불교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종립 대학인 동국대학교 역시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범한 2500명의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은 한국불교의 희망이자 동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종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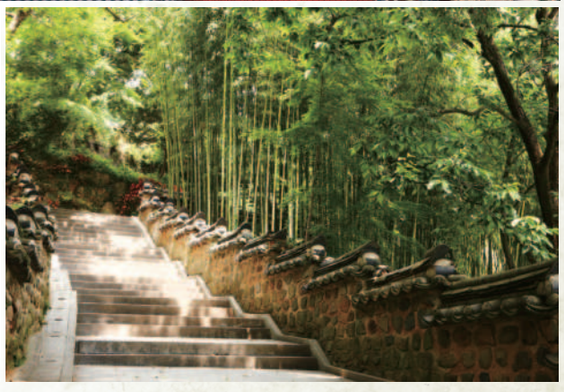
방 장 여산 정여

주 지 산해 정오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선문회관 051-508-0102 불교대학 051-866-7277
템플스테이 051-508-5726







현대불교신문, 둘도 없는 도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생사(生死)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출가해 수행자가 된 후, 몇 년이 지나 막 세상에 나온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불교와 삶, 불교와 수행을 고민하던 시기가 생각납니다.

저와 현대불교신문 모두 '신참'이었지만 저와 달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을 거침없이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격하게 공감하고 또 때로는 나름의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30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동안 이룬 성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고 대행 스님의 원력이 실현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즐거울 뿐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와 현대불교신문은 둘도 없는 도반(道伴)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사회의 목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법(傳法)을 위해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정언명령에 따라 그 몫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돌을 축하드립니다.

불교 발전 이끄는 언론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모든 대한민국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불교적 시각에 입각한 불교 정론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현대불교신문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불교 언론이란 일반 사회 언론과 달리 사실 전파는 물론 불자들을 계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 언론은 한국불교 전체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이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견을 가지고 바른 해석과 정론직필의 정직함으로 더 많은 불자들에게 다가가 많은 수행과 포교의 선두주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언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 포교와 불법 수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불교 발전을 이끌어가는 신문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묵향서 부처님 법향 느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의 가치를 오롯이 지켜가며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고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자들은 현대불교신문 기사의 묵향(墨香)을 통해 부처님의 법향(法香)을 느끼고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종단은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길잡이 삼아 청정 수행가풍 진작과 전법실현을 위해 진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30년의 역사는 바로 한국불교 중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사회에서 불교적 가치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식과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는 이제 한국불교와 불교 언론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늘 깨어있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사부대중의 훌륭한 도반이 되어 17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가는 정론지 현대불교신문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생명존중 정신 일깨워 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언론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인간의 삶이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必환경&그린부디즘] [기후위기, 불교가 답하다] 등 특집기사, 칼럼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교계 환경관련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불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교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데 소중한 언론의 길을 열어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환경연대도 현대불교신문과 손잡고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현대불교신문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전현직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고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희망 주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



창간 이후 30년 동안 대중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때론 목탁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온 현대불교의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1994년 10월 현대불교 창간호 1면에는 정선의 금강산전도(金剛山全圖)가 실렸습니다. 그림 아래로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오를 수 없는 산"이란 표현의 기사를 통해 불국토 금강산을 찾을 날을 기원했습니다. 창간호부터 금강산을 다뤄서인지 유독 현대불교는 남북 불교계 교류와 관련한 기사가 늘 넘쳐나곤 했습니다.

전쟁으로 소실됐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금강산은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된 지금, 30년 전 현대불교 창간호의 희망이 30주년을 맞는 이때 다시 한 번 이뤄지길 소원하며 불교계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 남북이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희망을 주는 역할에도 충실해 주시길 바라며,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로워지는 데 앞장서는 현대불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파사현정 정신으로 나아가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계 주요한 언론사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 애써주신 혜도 스님을 비롯해 30년 동안 정론직필로 부처님의 법을 알리고 수호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길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참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대변해 왔으며 서로 공존·공생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는 매체로 현대 한국불교의 아픔과 성장, 발전을 함께 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변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교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항상 올바른 길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가슴 따뜻하고 생각 늘 새롭길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열반하신 대행 스님의 포교대중화를 위한 열망을 담아낸 실천포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영상포교와 문서포교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30년이 지난 오늘도 불교계 언론의 저변을 확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불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른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평등하고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명으로 불법홍포와 실천에 앞장서며, 불교계 언론의 길에 모든 불자대중과 함께하는 도반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가슴은 따뜻하고 생각은 늘 새로움을 찾아가는 청년언론으로 거듭나 불교계를 넘어 우리사회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여성불자회도 항상 소중한 인연에 함께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후원독자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한국 불교계 튼튼한 버팀목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현대불교신문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30년 전 현대불교신문 창간은 새로운 편집과 구성으로 불교언론의 저변화를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진취적인 논지와 함께 포교분야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현대불교신문사의 여러 사업들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포교사단은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기치 아래 군부대, 교도소, 탈북자이주민, 어린이, 독거노인 등 그 어떤 대상이든 항상 최일선에서 현장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발로 뛰며 직접 현장을 누비는 것은 포교사와 기자의 공통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곧 포교사입니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언론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회 주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덕월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총무과장	보원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
전법특보	묘수	복지특보	최종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 실버인력뱅크/구리 인창경로식당

항상 변화하는 언론이 되길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잡아함경〉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들추려는 문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 지적의 시기가 적절한지 살피며, 지적된 사항이 상대방과 제3자에게 모두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조용하게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유지하며 화를 내지 않고 지적해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할 경구라 하겠습니다.

서른 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다시 한번 언론 본연의 자세인 '정론(正論)'과 불자로서의 '신심(信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법은 대행 스님이 제시한 창간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현대불교신문은 정론지이자 포교신행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항상 진보하고 변화하는 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불법홍포·불교외호 역할해야

BBS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 이후 30년 동안 한국불교 포교·신행 전문지로 그 역할을 다 해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0년대는 불교계 언론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불교계 언론들이 자신만의 색채를 갖고 목소리를 내던 시기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불교서점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와 불교계 최초 인터넷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를 구축해 교계 언론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작금의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범람은 정보의 빠른 접근은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이나 가짜뉴스들은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본래 자리인 '정론(正論)'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세상의 목탁'으로서 불법홍포와 불교외호의 역할을 온전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불교계 언론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항상 진일보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한국불교 등불 되길

불교신문 사장 수불 스님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발원하고 출발한 현대불교신문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불사(佛事)입니다. '전법(傳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전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불교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맞서 불교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불교적 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 새로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불교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비불자들에게는 불교의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매체로 역할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현불과 함께 아름답게 정진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돌을 축하드립니다.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한마음선원 이사장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년은 개혁종단의 30년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좋은 날 힘든 날, 많은 부침이 있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정성이 오늘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언론매체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전달기능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개인독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져 생생한 보도를 만드는 언론인들의 고충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끝없이 불법홍포의 방식을 고민하고,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모두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참다운 불교지도자그룹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불교리더스포럼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아름다운 인연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사회 문제에 해결책 제시

이재형 법보신문 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닌 가치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대중들에게 꾸준히 전해온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신자들에게는 교리와 수행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전달해 온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100년 후에도 현대불교신문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불교의 지혜를 널리 전파하며, 한국불교의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0년간 불교 가르침 몸소 실천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창간 후 창간 3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정론직필의 마음으로 한 호, 한 호 발간에 최선을 다해오신 임직원과 기자 선후배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간 불법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세계에 한국불교를 전하자는 목표 아래 불교문화와 언론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기획·연재를 통해 불교 전문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언론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변해가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불교를 외호하고 불교가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과 호흡하며 불교와 신행, 교양과 문화를 나누는 언론이 되길 서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걸어가는 길에 한국불교기자협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 전파에 누구보다 앞장

장정화 (사)KYBA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전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으며, 불자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지만 신문사는 불교계와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전파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단순히 불교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사상적 고찰과 사회적 성찰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하고,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역할을 넘어서, 불교 신행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선도적인 매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대중과 불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현대불교신문의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기대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지혜로 세상 밝혀주길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2년차 중앙회장



높고 푸르른 하늘 만큼 우리의 마음도 평안으로 가득차는 가을,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 지혜와 자비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었기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현대불교신문의 전법과 포교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며 쌓아올린 수많은 인연과 공덕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커다란 원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난 3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의 프로그램에서 세계적 양자물리학 박사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와 마음챙김명상 개발자 존 카밧진 박사와 대담했다. 두 대담을 정리한다.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과 양자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는 10월 9일 열린 대담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 집중 할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과 존 카밧진 박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교리와 명상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

"양자역학, 선불교와 큰 차이 없다"

진우 스님-미나스 카파토스 박사 대담

10월 9일,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학의 대화'
'5분 선명상' 함께하며 "지금 여기에 집중" 체험
"옳고 그름 시비 따지기 전 내려 놓으면 돌아가"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학과의 관계를 살피는 이색적인 대화의 장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펼쳐졌다. 부처님 가르침과 양자물리학 간의 연관성을 탐구해 상호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담의 대담자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 양자물리학 박사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석좌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과학과 수행의 융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은 10월 9일(현지시간) 저녁 맨해튼 코넬클럽에서 '선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의 만남과 디지털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의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선명상의 과학적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교와 과학, 두 분야가 만나 서로의 관점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대화를 촉진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진우 스님과 대담을 함께한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는 채프먼 대학 전산물리학과 석좌교수로, 세계적 석학이다. 우주학자, 기후변화 연구가이며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신문화에 대한 저서도 여럿 출간했다. 특히 고려대 환경생태공학연구단 초빙교수로도 재직하면서 한국불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진우 스님이 제한한 수행법인 '5분 명상'으로 시작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진우 스님이 제시한 '무(無)자 화두'에 집중하며 실참했다.

이어 두 대담자는 불교와 과학의 유사성에 집중했다. 진우 스님은 '입자'와 '색'을 언급하며 "물리적 감지 대상인 '입자'를 불교적으로 보면 '색즉시공'의 '색'이다"면서 "입자를 두고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따지지 말고 진공 상태인 파동으로 돌려줄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역학을 정신에 대한 과학이라고 말한 카파토스 박사 역시 "수십억 빛의 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파동으로 볼 것인지 입자로 볼것인지 고민하는 동안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면서 "멀리 있는 은하계도 지금 우리와 연결돼 있고,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정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라고 말했다.

카파토스 교수는 과학의 한계를 불교 같은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의 과학은 양자역학이 특히 선불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라며 "과학은 죽음 이후나 정신 문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인 이론을 갖춘 과학을 버릴 순 없다. 불교의 가르침과 철학을 받아들여 정신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세밀하게 관찰해 나간다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명상은 매우 쉽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우리가 보는 실체는 공(空)이며,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인식하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정에서 현재 이 순간을 집중한다면 모든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대담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진우 스님은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로 "놓으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알아서 연기하고 인과적으로 돌아간다"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안이비설신으로 자꾸 느끼며 좋고 싫음의 감정을 반복하면 그것은 곧 올가미로 온다"고 말한 스님은 "놓음과 함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한다면 모두가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파토스 박사도 "우리는 감정 족쇄로 고통받는다"면서 "정신에 초점을 맞추는 길을 배웠으니 이 글을 통해 목적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보자"

진우 스님-존 카밧진 박사 대담

10월 11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대담
인류 직면 문제 마음챙김으로 풀어야
"내면 가득찬 불성의 지혜 간과 말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마음챙김명상(MBSR)개발자 존 카밧진 박사와 대담을 갖고 한국의 선명상과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이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진우 스님은 10월 11일 뉴욕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선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만남과 디지털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존 카밧진 박사와 대담을 가졌다. 서로 다른 전통과 배경을 가진 두 명상대가의 이번 만남은 이전부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대담에서는 디지털 시대 명상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등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 교리와 명상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

먼저 입을 뗀 존 카밧진 박사는 "우리가 웹 혹은 인터넷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된다"면서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바꿨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이로운 방식이 아닌 변화인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AI와 인류의 미래, 그리고 선명상과 마음챙김명상에 대한 융합에 대해 챗지피티(OpenAI에서 개발한 GPT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그는 "챗지피티가 20페이지에 달하는 답을 가져왔고,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면서 "챗지피티는 점점 더 진화할텐데, 우리 인간은 왜 이런 대화를 계속해야하냐"고 역설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35억년 동안 진화해 온 인간의 아날로그 지혜, 그리고 그 안에 이미 가득찬 불성의 지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면서 "AI의 도전이나 지구 온난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대한 통 안에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모두가 육바라밀행을 하면 지구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이를 위해서는 선명상, 마음챙김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구 온난화 등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도자들이 거대한 그들의 탐욕, 욕심을 채운 결과"라면서 "각 개개인의 분별심이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이 결국은 거대한 공업으로 이뤄지기에 육바라밀을 모두 행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선명상과 마음챙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담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진우 스님은 이날 대담을 기점으로 선명상 세계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세계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인 뉴욕에서 선명상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면서 "조계종의 행정수반으로서, 이것을 좀더 행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먼저 시작했을 뿐이다. 이번 대담을 계기로 더 큰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존 카밧진 박사도 "대화를 통해 수행법이 세상에 널리 퍼저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던 믿지 않던 공명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이건 명상이건, 하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일뿐"이라면서 "결국 자유와 탐욕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방하고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명상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서 진우 스님은 "현대인들은 좀 더 합리적이면서 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신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면서 "좋은 선수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곧 선명상이기에 무한한 확장성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존 카밧진 박사도 "명상은 이제 전통적인 승가를 벗어나 세상속으로 들어갔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핵심에 와 닿고 있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볼 것"을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

예일대생 만난 진우 스님 "끊임없이 내려놓아라…그럼 자유롭다"

예일대 동아시아硏 초청 강연

학생 200여명과 '5분 방하착 선명상' 실참
"지금 이순간 분별 집착 내려놓으면 평화"
지구촌 5분 선명상 캠페인 동참 권선도

미국 예일대=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은 "자신만의 선명상 여정을 통해 내면의 평안과 평화, 지혜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와 미래와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좋고 싫은 두 감정을 모두 내려놓죠. 순간순간 방하착할뿐입니다. 감정의 전후 좌우를 모두 놓아버립니다. 찰나찰나 방하착하면 그대로 평안이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 동아시아연구소 루시드홀에서 예일대 학생을 대상으로 K선명상 특별강연을 펼쳤다. 준비된 200석뿐 아니라 복도까지 가득 채운 학생들은 진우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집중했다. 선명상 실참이 진행되자, 사람으로 가득찬 실내가 정적에 휩싸이며 마치 '명상센터'를 떠올리게 하는 장관이 연출됐다.

진우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예일대 학생들에게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소개하며 직간접적으로 선명상을 지도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로서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모두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이를 없앨 수 있는 몇가지 수행방법을 전달했다. 스님은 "저의 수행 방법은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만족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불행도, 괴로움도, 슬픔도, 불만족도 없다. 다만 평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금 바로 이순간, 바로 이 순간, 찰나찰나,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우 스님은 순간순간 방하착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좋고 싫은 마음 감정과 생각을 완전히 분리해 마음 감정을 그대로 내려놓고 방하착한다"면서 "과거와 미래와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좋고 싫은 두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순간순간 방하착할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방하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때를 떠올렸다. 손가락을 다쳤을 때 만난 의사에


선명상 실참 중인 예일대 학생들.

게 품었던 분노의 마음 후 느낀 평안, 선방에서 좌선 수행을 할 때 개발한 쪽잠 기술 등을 풀어내자 동참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진우 스님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분노와 고통을 내려놓게 되었고, 두 번째 경험에서는 졸음과의 싸움을 내려놓았다"면서 "굳이 싸울 필요없이 내려 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법, 그리고 인과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서 "연기법은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을 없앰으로 저것도 사라진다는 연기인과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굳이 시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좋고 싫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이 둘 모두를 내려놓으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진우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끊임없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만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선명상의 방법을 제시했다. '5초 우선멈춤 선명상' '5분 무시로 선명상' '지나가리라~ 쉘패스 선명상' '방하착, 놓음 선명상' '그림자 선명상'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 '바로 지금 이순간(Right now at this momet) 선명상'이 그것이다. 이어 현장에서 '방하착 선명상' 실참이 이어졌다. 동참자들은 3분 간, 생각과 감정을 모두 그치고, 놓고 또 내려놓으며 '무' 자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죽비가 세 번 쳐지고 3분 명상이 종료하자, 학생들이 주변사람을 쳐다보며 미소로 만족감을 표했다. 선명상은 종교적 수행만이 아니고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언제 어디에 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의 습관이 되길 기대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지구촌 시민들이 하루 5분 선명상 수행을 할 것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동참을 권유한 스님은 모두가 자신만의 선명상 여정을 통해 내면의 평안과 평화, 지혜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이날 강연이 열린 예일대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했다. 1701년 개신교 성직자들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칼라지어트 스쿨로 시작해 현재 학부 및 대학원생 1만 2000여 명이 재학중인 유서 깊은 학교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50명이 넘고 조시 부시 부자, 빌 클린터 등 대통령도 5명 배출했다.

개신교 목사들이 세운 학교이지만 가톨릭은 물론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 다른 종교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 〈수미, 일미를 만나다〉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수미 런던 김(Sumi Loundon Kim)이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불교명상실에는 1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요일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법회도 진행된다.

조계종·동국대, 美 예일대에 100만 달러 기부

진우 스님, 10월 11일 연구기금 기부 협약
불교학 연구·연구자 교류로 세계화 기대
맥기니스 총장 "한국불교 탐구 기회될 것"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돈관 스님)가 한국불교 세계화와 불교학 연구 활성화 염원을 담아 미국 예일대에 100만달러(약 13억5000만원) 기부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0일 미국 예일대 총장실에서 모리 맥기니스 예일대 총장을 만나 '한국불교 연구 지원을 위한 조계종 기금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기부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도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예일대는 기부금을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기금'으로 적립, 한국불교 연구와 학생 및 연구자 양성, 선명상 세계화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방미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이 함께했다.

모리 맥기니스 예일대 총장은 "한국에 대한 연구는 예일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학문 중 하나"라며 "세계적인 맥락에서 불교를 탐구하는 것은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불교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협약을 통해 예일대와 동국대 간 학문적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대학은 합동 세미나, 교환 교수 및 장학생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최고의 파트너십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환수 예일대 한국학 종신교수는 "예일대에서 한국불교학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부금은 투명하게 운영되며 매년 조계종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불교학 연구자들이 많아지도록 조계종에서도 적극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예일대 학생들과 함께 선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미국 예일대=임은호 기자

윤재웅 총장, 美 예일대서 한류 콘텐츠 영어 강연

'사랑과 위로의 한류 문화' 주제
서정주 시와 BTS 노래 비교
슬픔과 꿈에 담긴 한류의 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은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학교 스털링 기념 도서관 강의실에서 '서정주의 시와 BTS의 노래'를 주제로 영어 특강을 진행했다.〈사진〉 강연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한국 문학과 한류의 상징적인 노래를 통해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의미를 조명했다.

윤 총장은 한국의 대표 시인 서정주의 시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 제사'와 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비교하면서, 한류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 예술,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슬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꿈과 희망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며, 생명에 대한 지혜와 일상 속에서의 유용한 가치를 전하는 문화적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감각적 아름다움에 대한 향유를 한류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강연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윤 총장은 참석자들과의 약 40분간 한류와 한국 문학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정현선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재단이사회
이 사 장 경원
명예이사장 일명
부 이 사 장 경담
상 임 이 사 오원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예 하 대륜
총 무 원 장 혜일
종정비서실장 지명

원로회의
원 로 의 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 회 의 장 도정
종 회 의 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 계 원 장 동청
교 육 원 장 지언
포 교 원 장 지명
문 화 원 장 제법
총무부원장 도허
고 시 위 원 장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감 사 원 장 법광
포교부원장 덕산
문화부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혜광
교 무 부 장 덕운
총 무 국 장 보륜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

뉴욕 원각사 50주년…"원력·신심으로 이룬 성과"

10월 13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1974년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
진우 스님, 교포 불자들 치하
"모든 불사 다 잘 이뤄지길 기도"
지광 스님 "큰스님 원력 덕분"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상징' 뉴욕 원각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념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법석을 펼쳤다.

미국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 스님)는 10월 13일 오전(현지시각) 경내에서 '뉴욕 원각사 창립 5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원각사는 뉴욕주(州) 솔즈베리(260 Clove Road, Salisbury)에 위치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분원이다. 1974년 숭산 스님에 의해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 1986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30여 만 평, 약 105만7850㎡에 달하는 규모다.

뉴욕 원각사의 본격적인 불사는 2004년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현 뉴욕 원각사 회주)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광 스님이 2009년 주지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고 2015년 대웅보전 상량식에 이어 2017년 무량수전 상량식, 2018년 선방인 설산당·보림원이 준공됐다. 올해 들어 단청과 탱화까지 마무리되면서 미국 동부 최대 한국 전통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됐다. 건립비용만 120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한다. 한국 불교사상 해외 조성 사찰로는 최대 규모다.

뉴욕 원각사 회주 정우 스님은 환영인사에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짧지만 강렬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힘써준 불자들을 치하했다. 스님은 "원각사가 50주년을 맞이한 것은 곧 뉴욕에 위치한 사찰들이 상호협력하고 신도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미동부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히어가고 있는 눈 맑은 스님들과 함께 사중 대소사에 앞장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교포 불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에서 "기념법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해진 불자들의 염원으로 오래도록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르침을 전하는 큰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원각사가 창립 50주년 법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진우 스님은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다양한 업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광 스님은 "다른 것보다 돈으로 할수 없는 것이 원각사에 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이 도량 곳곳에 있는 여러 불자들의 마음"이라며 "도량이 이뤄지기까지 한국에서, 미국에서, 큰 스님의 원력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대원해 뉴욕 원각사 신도회장은 신도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원각사가 모든 불자들의 쉼터가 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법회에 앞서 스님들로 구성된 포교 그룹 비텐스가 '찬불음악'을 골굴사 선무도 지도사범들의 선무도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를 주제로 원각사 일대에서 미동부지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실시했다. 연등회 전통 한지등에 대한 설명, 전승전통등과 목어등을 배접하고 채색하는 시간을 통해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경내에 원각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사찰음식 조리 과정 및 시식 체험에서는 '콩가루 다식'과 '표고버섯 조청 조림' 등이 준비됐다. 사찰음식의 기본 철학과 재료 의미를 설명하고, 조리 과정 및 시식을 할수 있도록 했다.

美 사로잡은 사찰음식…뉴요커들 명상 체험도

문화사업단, 뉴욕문화원서 시연
정관 스님, 사찰음식의 의미 성찰
전통연등 전시로 한국불교 알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찰음식 알아차림 명상 및 시연'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10월 12일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찰음식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셰프'가 된 정관 스님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사찰음식 알아차림 명상'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관 스님.

이날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신 수양의 도구'로서 사찰음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스님이 선보인 사찰음식은 고추장으로 버무린 감말랭이 무침. 제철 식재료와 자연 발효한 양념으로 순수한 맛을 낸 감말랭이 무침을 통해 음식에 담긴 생명존중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삶과 수행이 하나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음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객석을 매운 200여 명의 뉴요커들은 명상을 경험하며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그램 후 연잎밥과 표고버섯 조청 조림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선물받았다.

앞서 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사찰음식 명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 7~13일 사진영상전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 전통불교문화체험 '천년의 시간을 담다'가 진행됐다.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빛의 사유'로 美 환하게 밝힌 연등회

10월 5~13일 뉴욕 전역서 전시 · 체험

대형 연등, 뉴욕커 눈길 사로잡아
예일대서 등문화 알리기 워크숍
진용 스님 "알아차림 시간됐길"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말 아름답네요. 지혜로 자비로 가득 채우려는 발원의 마음이 오래도록 밝게 빛나겠지요."

마음챙김 명상 창시자 존 카밧진 교수가 10월 11일 뉴욕한국문화원 1층에서 연등보존위원회가 마련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를 관람하며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백제금동대향로 등을 유심히 살펴본 존 카밧진 교수는 "신령스러운 형상의 표현이 감동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연등보존위원회는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의 일환으로 10월 5~13일 뉴욕 일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는 10월 7~13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연등회가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전통 한지등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정성의 소중한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금동반가사유상등' '백제금동대향로등' '법고등' 등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에는 특히 대형 연등 다수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금동반가사유상등'의 경우 120*124*201cm, '백제금동대향로등'은 71*71*187cm, '법고등'은 150*100*147cm에 달하는 크기다. 안전한 이운과 완성도 높은 전시를 위해 장진익 전통등 전문작가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유지 보수에 특히 신경 썼다.

10월 10일 예일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알리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도 열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지화연꽃과 종이팔모등 만들기 등이 진행돼 동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워크숍에는 장진익 전통등 전문작가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10월 13일 원각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미동부지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실시했다. 연등회 전통 한지등에 대한 설명, 전승전통등과 목어등을 배접하고 채색하는 시간을 통해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10월 5일 뉴욕 대표 종합문화축제에 동참, 전통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뉴욕 32번가 5번 애니뉴에서 개최된 '2024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운영된 연등회 부스는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한인사회 위상·자긍심을 알리는데 한 몫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은 "사바세계 탐진치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연등을 통해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빛의 사유'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동참자들이 연등과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여러가지 잡념과 번뇌를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에 선보인 '백제금동대향로등'과 '금동반가사유상등'.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제29회 명원 국제 茶 문화대전 개최 공고

전통다례를 통한 인성교육과 전통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고자
제29회 명원 국제차문화대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출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차문화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여 대 상 :** ① 유치부 ② 초등 저학년부(1-3학년) ③ 초등 고학년부(4-6학년)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일반부
- **참 여 방 법 :** ① 예선 : 참가 신청서 및 동영상 이메일 제출 (myungwon@myungwon.org) ② 본선 :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자 다례 시연 심사
- **접 수 기 간 :** 2024. 10. 28.(월) - 10.30.(수) 16:00
- **본선진출자발표 :** 2024. 11. 7.(목) (예정)
- **본 선 일 시 :** 2024. 11. 23.(토) 13:00 - 18:00
- **본 선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시 상 :** 대통령상 | 국회의장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서울시장상 보성군수상 | 하동군수상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상 명원문화재단이사장상 (명원상)



명원문화재단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전화 : 02)742-7190 홈페이지 : www.myungwon.org 이메일 : myungwon@myungwon.org

통도사, 자장 율사 '지계정신' 기리다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서
자장율사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
영축문화축제 전통불교문화의 장
영축장학금 3500만 원, 인재불사
"개산정신 및 성보가치계승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에서 '개산 1379주년 영고재 및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가 영고재에서 헌다하는 모습.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지계(持戒)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9월부터 진행된 영축문화축제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통도사는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에서 '개산 1379주년 영고재 및 법요식'을 봉행했다. 개산 의식인 영고재는 개산조당 앞에서 봉행됐으며,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종정 성파대종사, 전 방장 원명 대종사,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강주 인해 스님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는 매년 개산일을 맞아 영고재와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에 앞서 영축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는 통도사 주요 말사 소속 합창단들이 동참하는 제1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렸으며,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과 '통도툰'을 핵심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했다. 이 외에도 삼보이운, 괘불헌공,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괘불특별전, 국화장엄, 나도 작가다(사진전),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이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통도사는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대회 및 전시 참여자를 시상해 격려했으며 영축장학금을 수여해 인재불사로 축제를 회향했다. 서예전에는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반 덕민 스님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대교반 성제 스님, 사교반 영우 스님이 수상했다. 일상사진전 나도 작가다의 수상자는 통도사 포교과장 수진 스님 외 5명이 수상했다. 제3회 전국사생대회 대상은 곽서영 물금고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영축장학금은 통도사 재적승 가운데 수행 및 학업에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며 이번 해는 박사 5명, 석사 8명, 학사 3명을 포함해 율원, 학림, 승가대학원 스님 22명과 강원 4명 등 총 42명의 스님에게 3500만원이 전달됐다. 또 통도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선정해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는 이다감 양산시 문화관광과장, 최은호 양산경찰서 치안정보계 정보관, 김영학 양산소방서 소방장이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김갑용 불자가 받았다.

주지 현덕 스님은 "자장 율사의 정신을 받들어 통도사가 창건된 이래 수많은 역대 조사님들과 불자들이 인연을 맺어 수행하고, 기도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법등을 밝혀왔다. 과거의 역사와 가치들이 사라져 가는 현시대 속에서도 통도사는 올곧게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1379년 전 새로운 불국토를 세우고자 쉼 없는 발걸음으로 영축산 도량에 찾아든 자장 율사의 개산 정신과 성보의 가치를 지켜 불교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승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청정 불성 담은 광명 도량"

10월 13일, 3층 지관전서 기념법회

국태민안 및 인류평화 기원
광명문화예술제와 들차회도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10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국태민안기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회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10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국태민안기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회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광명사는 부산 경남 천태종의 시초가 된 중요 사찰로 부산에서 신도회가 창립된 후 처음으로 설립한 도량이다. 광명사를 토대로 삼광사, 정법사, 해영사 등 천태가람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차례로 건립됐다.

광명사는 신도회 창립 법회를 봉행하고 "청정한 불성이 드러나는 광명의 도량으로 아름다운 진리가 새벽별처럼 빛나는 곳"이라 찬탄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주지 춘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해영사 주지 설혜 스님을 비롯해 백종헌 국회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자비나눔 실천과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법회 후에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진행해 축제의 장을 나눴다. 문화예술제는 '비바체 색소폰콰이어'의 식전공연에 이어 '광명연꽃동이'의 퍼포먼스, '법화 어린이합창단' 및 '광명사 법화합창단'이 무대를 선사했다. 또, '에이플러스'의 대중가요 무대와 전문 성악곡의 향연도 펼쳐졌다.

축하무대와 함께 들차회도 마련돼 차향 가득한 도량에서 시민들을 맞았다. 들차회는 광명사 경내 솔밭에서 진행됐으며 부산 삼광사 차문화회, 울산 정광사 다도회, 창원 원흥사 다도회, 한국다도대학원 부산분원이 참여했다.

원로원장 정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교육과 문화, 예술과 봉사 등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전법교화의 길을 넓혀온 광명사의 공덕이 무한하다"고 격려했다.

춘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광명사가 지난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의 고뇌를 끊어주고 고난을 면하게 해 주었는지는 여러 불자님들이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며 수행과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명사가 걸어 온 55년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 100년에도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발원사, 제3차 수륙무차평등대재

10월 10일, 발원사 경내



발원사(주지 호법 스님)가 10월 10일 경내에서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제3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호법 스님은 "법계의 모든 고혼과 영령들이 '수륙무차평등대재'의 의식에 담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깨달아 영원한 평안을 얻길 기원한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큰스님들과 내빈들 덕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유주무주 영혼들께서 마음의 인연관계를 깨우치시길 바란다"며 영가법문을 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동화복지재단 이사장이자 용천사 주지인 지거 스님은 자작곡인 '극락왕생발원가' 음성공양을 올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김해 사티아라마 붓다팔라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 중구연합회 회장 하림 스님, 사상구연합회 회장 성림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비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취임식

10월 13일, 산신재 및 회장 취임식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은 10월 13일 경내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식과 산신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과 법관 스님 외 연합회 회원스님들과 서지영 국회의원,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1부 행사로 산신재 및 회장 취임식이 2부 행사로는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산신재에 이어 진행된 회장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부회장 인사 △회장 취임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자관 스님은 "대덕스님들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화합으로 동래구불교연합회가 부산불교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취임사를 밝혔다.

한편, 2부 행사는 신도들의 노래자랑과 지역 가수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

10월 11일, 동래구 금강공원 내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11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2주기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위령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탁영일 동래구 구의장 및 불자들이 함께 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은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연고를 알 수 없이 돌아가신 3500명을 모신 곳이다. 이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재를 지내는 것이 자손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대제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총무원장 해불 / 종회의장 지경 / 종회부의장 혜인 / 교육원장 법지 / 교육부원장 묘현
총무부장 근혜 / 포교원장 해인
교무부장 자원 / 교리연구원장 남륜 / 포교부원장 지연
사회부장 도일 / 수선원장 응진 / 문화원장 혜관
규정부장 조영 / 사정부원장 성우 /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 충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 충북 종무원장 정연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화 / 강원 종무원장 도광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도선 국사 풍수 사상 조명하다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

10월 12~13일 경내서 다례재, 야단법석 공연
도선 국사 풍수지리설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국사 풍수사상 재조명 학술세미나에서 참석대중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도선 국사 탄신 1197년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영암 도갑사(주지 수관 스님)는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에서 도선국사 탄신 1197주년을 맞아 '제19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경내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다례재를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다례재와 법요식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중앙종회의원 향문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베드로 천주교 영암성당 신부,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같은 날 경내 심검당에서는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원석 경상국립대 교수 '깨달음과 보살핌의 산수 미악-도겐의 산수성불설과 도선의 산천비보설' △김지민 목포대 명예교수 '도갑사 도선국사 기념 공간 조성 기본 계획안'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종구 청운대 교수, 서동천 목포대 교수, 최정미 건축문화연구소 한건 대표의 토론과 질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와 환상매직쇼를 선보이는 '숲속 콘서트' 학생밴드, 오케스트라의 '야단법석 공연',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을 찾고 이를 빛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도선 국사의 깊은 가르침과 영암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의 자부심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처음 '도선국사 예술제'를 시작해 그동안 도선 국사의 많은 업적과 가르침을 영암군민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수고해 주신 수관 스님과 지원을 해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 보림사, 지장전·산신각 점안식

10월 12일 경내 앞마당서 대숲길 쉼 음악회도 함께



보림사가 지장전, 산신각을 낙성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는 10월 12일 경내 앞마당에서 '보림사 아란야 축제'를 열었다.〈사진〉 행사는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법회와 지장전·산신각 낙성, 점안법회에 이어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지장전 불사는 구화산에서 모셔온 사리 4과를 보림사에 봉헌하고 싶다는 신도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번 불사는 오롯이 보림사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만 스님은 "종진 스님이 부임한 후 보림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불사 회향을 맞아 각자 자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 孝잔치'

큰법당 건립 10주년 기념 지역 어르신 150명 초청



진안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0월 15일 경내 마당에서 쌍봉사 큰법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비나눔에는 쌍봉사 신도회,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이 동참했다.

쌍봉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법당을 세운 것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며 "거창한 법회보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미선 쌍봉사 신도회장은 "오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어르신들을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을 위기 생명 구하는 게 방생"

쌍계사, 방생법회 봉행 꿩 300마리 날려 보내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10월 15일 경내 일원에서 꿩 300마리를 방생하는 '제39회 본말사 연합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방생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중국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 등 쌍계사 본말사스님, 대중스님들과 하승철 하동군수,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 쌍계사 선다회, 합창단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열반하신 고산 대종사의 뜻에 따라 봉행하는 연합 방생법회는 그간 해안에 위치한 사찰 특성상 어류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날짐승인 꿩으로 방생을 하게됐다"며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 오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방생한 조류를 통해 지역, 남북, 국가간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하승철 하동군수에게 '하동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해 법회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은 한중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주 구룡사, 꽃과 음악으로 물들다

산사음악회 10월 12일 개최 10월 1~27일 구절초 꽃축제



공주 구룡사(주지 진명 스님)가 10월 12일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산사음악회는 구룡사 구절초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우식)가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구절초 꽃 축제' 기간에 이뤄졌다.

구룡사는 전국 최대 구절초 군락지다. 주지 진명 스님은 가을 구절초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여기고 15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박은주 진행자의 사회로 펼쳐진 산사음악회는 구룡사 풍물단의 개회공연에 이어 법회를 봉행했다.

구룡사 주지 진명 스님은 "많은 사람이 가을 구절초 꽃 축제를 기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구절초 꽃축제가 공주 관광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상생과 발전을 위해 토종꿀, 밤, 구절초 조청, 꽃차 등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했다. 수익금 일부는 공주 신풍초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구룡사 주지 진명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 마곡사 선원장 혜경 스님, 지장사 주지 설몽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박수현 국회의원,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박인규 공주시 문화복지국장,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 등 지역 단체장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 영평사, 落火축제로 '불멍' 시간

10월 11~12일 경내 일원서 "일상서 어려운 일 불사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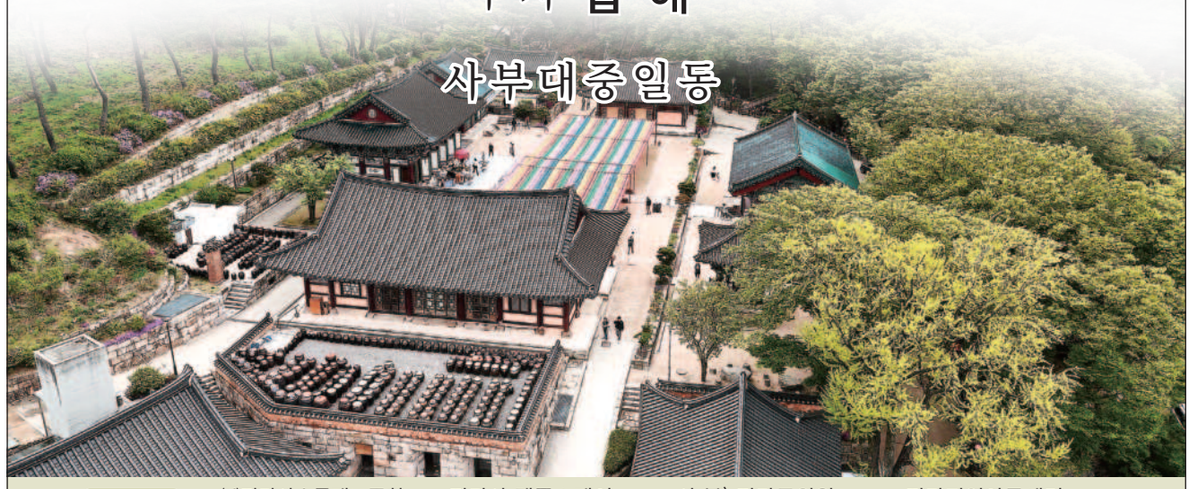


작열하는 불꽃으로 악업을 소멸하고 복을 가져오는 낙화축제가 마련됐다.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와 불교낙화법보존회(이사 원행 스님)는 10월 11~12일 양일간 영평사 경내 일원에서 전통방식으로 낙화법을 선보였다.〈사진〉 벌써 8번째를 맞은 낙화법 축제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 경내는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붐볐다.

원행 스님은 점화식에서 "낙화법은 본래 불교의식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이다"며 "오늘 떨어지는 낙화에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본다) 하시고 좋은 기운 가져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성 스님은 "일상에서 어렵고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낙화와 함께 모두 불살라 버리고, 환한 마음만 가지고 가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계호
주지 법해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사.복) 진관무위원 ▪ 진관지역아동센터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불광노인복지관 ▪ 구파발어린이집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한문화체험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주 명성
주지 은광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이건희 컬렉션’ 수월관음도를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故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11월 3일까지 추성 부도 등 공개
10월 22일~11월 24일, 7점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어느 수집가의 초대-故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의 서화 전시품을 두 차례에 걸쳐 교체해 선보인다. 전시에는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초조대장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를 포함해 총 9건 9점의 유물이 포함된다.

11월 3일까지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가 전시된다.

섬세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이 달과 물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금니 문양과 투명한 베일은 700여 년의 세월을 초월해 여전히 빛을 발한다. 금니로 경전 내용을 쓴 사경 ‘대방광불화엄경’ 권15 앞쪽에는 0.1~0.2㎜ 정도의 가는 금선으로 경전 내용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변상도가 있어 고려 불교미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을의 정서를 담고 있는 ‘추성부도’는 중국 북송의 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늦가을의 저물어가는 자연 현상과 인생의 무상함을 연결해 읊은 산문시 ‘추성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당대의 삶을 실감나게 포착한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는 김홍도의 탁월한 기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등 7건 7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현종(1011~1031) 때 거란족 침략에 맞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심을 결집하고자 편찬한 목판 인쇄본으로, 불교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심을 결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국립춘천박물관 수월관음도.

강원 영월의 ‘보덕사’를 그린 19세기 전반의 실경산수화는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보덕사는 단종(재위 1452~1455)의 무덤인 장릉을 지키는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 훼손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세기 전반의 보덕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경남 함양 안의면의 ‘화암(畫巖)’을 그린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도 함께 전시된다. 기이한 암석이 병풍처럼 늘어선 경관의 특징을 잘 살린 이 작품은 동시대 서화가 강세황(1713~1791)의 평이 곁들여 있어 조선시대 지식인의 실경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책과 함께 진귀한 물건들이 놓인 책장을 그린 8폭 병풍 ‘책가도’와 달빛 아래 갈대밭으로 날아드는 기러기들을 묘사한 ‘노안도’, 19세기 문인화가 윤제홍이 석굴과 폭포를 그린 ‘방화굴’도 주목할 만하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10월 16일 지정 공고
고려 석탑 특징 담겨…4.6m 규모

고려 석탑 특징이 잘 드러나는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보물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0월 16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의 석탑이다.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으로 구성된 탑신부가 있다. 상륜부(석탑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뤄졌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靑石)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묘엄불교문화재단 묘엄상 후보 공모

10월 31일까지 직접·우편 접수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 후보는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중에 선정한다.

후보 접수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cafe.daum.net/myoeom.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접수(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자는 개별 연락 후 재단 카페에 공지된다.

김내영 기자

해인사와 조선왕실의 남다른 ‘인연’

해인사 성보박물관 ‘인연 : 조선왕실과 해인사’ 특별전

내년 1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서
4개 주제로, 조선왕실 발원 소개
영산회괘불도·어필 병풍 등 공개

창건 당시부터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해인사와 조선왕실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법보종찰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10월 15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108일간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해인사 개산 1222주년 특별전 ‘인연(因緣):조선왕실과 해인사’를 개최한다.

해인사는 창건 당시부터 신라왕실과의 인연으로 시작됐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인사와 왕실사람들의 인연이 돋보이는 ‘해인사 동종(보물)’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고려 팔만대장경 인출본, 어필 병풍 등 그간 수장고에 잠들어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문화유산이 대거 공개된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

전시는 총 4개 주제로, 관람객이 조선왕실 사람들의 발원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제1부 ‘고려 팔만대장경, 거룩한 불사를 이루다’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인경불사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조선 임금들의 염원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제2부 ‘궁궐사람들의 염원, 간절한 마음을 담다’에서는 조선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돼 해인사에 전해진 문화유산을 전시, 왕실과 궁궐사람들의 간절한 신앙심을 살펴본다.

해인사에는 예로부터 왕실의 원찰로 4명의 조선 임금 세조·선조·숙종·헌종의 어필이 전해진다. 제3부 ‘조선 임금의 어필, 위대한 이상을 꿈꾸다’에서는 임금이 직전 쓴 어필을 공개하고, 임금의 사상과 당시 시대상황을 보여준다.

마지막 제4부 ‘조선왕실과 스님, 각별한 인연을 맺다’에서는 오늘날 해인총림이 있기까지 조선왕실과 인연을 맺어 해인사를 빛낸 학조·사명·범운 스님을 조명한다.

김내영 기자

자연·도심 조화 이룬 그림서 ‘힐링’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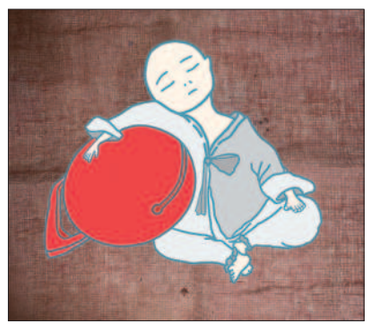
혜림 스님, 천연염색 선화전
10월 23~29일, 경인미술관서

자연과 도심의 조화가 담긴 그림으로 힐링을 선사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색을 이용한 치유명상 지도와 작품활동을 함께해온 세종특별자치시 미소선원 선원장 혜림 스님이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천연염색 선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늘 아래 마음 여정’을 주제로 한 9번째 개인전이다. 별자리의 신비로움과 부처님(내면의 평화)·동자승(순수함)의 깊은 지혜, 밤하늘의 고요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가 담겼다. 전시에서는 자연과 도심의 조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천연염색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컬러와 별자리 탐험’ 코너에서는 별자리와 관련된 색채와 그 의미를 소개하며,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혜림 스님 作, 마음여정 70*80cm.

관객이 직접 명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에서는 별자리, 부처님 이미지를 활용한 명상 세션을 제공한다. 관객 스스로 복잡한 삶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별자리, 명상, 부처님, 동자승이 교훈을 일러준다.

특히 전시에서는 자기 성찰과 치유로 이끄는 최봄보리 작가의 작품 ‘동자승’도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혜림 스님은 “하늘의 별들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마음의 여정을 표현한 이번 전시가 관객들의 마음속 우주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6~10/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고요함의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7	선의황금시대	오경웅/류시화	경서원
3	미소지으며죽는법(모곡사야도의12연기법문)	우쉐이띤/김춘란	행복한숲	8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고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일제강점기 도심에 '참선' 전한 선지식



백용성의 화두 참선법
허정선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 연구서
참선 중흥 · 민족 독립 위해 헌신
도심 속 화두 참선 8개 주제 소개
'본각진성' 누구나 찾을 수 있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인 참선의 중흥과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용성 선사의 삶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책 〈백용성의 화두 참선법〉은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선사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신앙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그의 참선사상과 참선을 통한 포교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현대불교의 화두 참선 수행 전통에는 용성 선사의 역할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러한 그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의 참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포교방법에 대한 연구와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용성 선사는 참선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삼장역회라는 조직을 통해 수많은 역경사업을 수행하고, 〈수심정로〉 〈각해일륜〉 등의 저술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도심포교의 전진기지로서 대각교를 창립하는 등 용성 선사의 도심포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현대불교의 포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용성 선사는 대승불교의 범주 안에서 간화선의 깨달음에 가장 부합하는 삶을 산 선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임제선의 맥을 잇는 참선 수행을 통해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깨달음 이후 도심지로 나와 대중들에게 화두 참선을 전했기 때문이다.



용선 선사 진영.

책은 전체 2부로 만들어졌다. 먼저 제1부 제1장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용선 선사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특히 3·1 독립운동을 전후한 용성 선사의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제2장에서는 문서를 통한 참선포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수심정로〉 〈수심론〉 〈오도의 진리〉 〈오도의 각(覺)〉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용성선사어록〉에 나타난 용선 선사의 간화선 수행론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용성 선사의 수행실천으로서의 참선포교를 만일참선결사회, 화과원, 용정대각교당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제4장 대중을 위한 참선포교에서는 용성 선사의 도회지 참선포교,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임제파강구소, 대각사 창건, 부인선회 개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도심 속 실전 화두 참선 수행을 위한 8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1부를 통해서 살펴본 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법과 필자가 그동안 화두 참선을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특히 석종사 금아 혜국 스님으로부터 화두 참선을 배우면서 나눈 내용들이 눈에 띈다. 여덟 가지 주제는 △화두란? △발심은 왜 중요한가? △생활 속의 화두 참선 수행이란? △화두 참선과 연기·중도·정견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관하는 것의 차이점 △삼매란 무엇인가? △의정·의단·타성일편·은산철벽·동정일여·몽중일여·오매일여 △복덕·공덕과 화두참구 등이다.

책은 용성 선사가 제시한 화두 참선법은 접근하기 쉬운 수행법으로, 그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는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사는 '본각진성'을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법을 거의 최초로 다룬 이 책을 통해서 용성 선사를 독립운동가·저술가·불교개혁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근대 한국사회에 '참선'이라는 우리의 전통 수행법을 도심에서 실천하면서 포교에도 힘쓴 위대한 수행자, 대선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은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 화두 참선의 뛰어남이 널리 알려져 참선 수행법을 통해 제2의 용성, 제3의 용성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허정선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서구적 접근을 탐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뉴욕 대학교에서 TESOL 고급 과정을 이수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포교방법론〉을 강의하고 '현대인의 생활참선' 과목의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인 일상에 화두 참선 수행을 접목시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도심 속의 화두 참선' 강의 및 여러 특강을 진행하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화두 참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제시하고 있다.

불교용어 읽다 보면 저절로 불교공부



108용어로 만나는 불교
심재동 편저
운주사 / 2만5천원

책 〈108용어로 만나는 불교〉는 개시오입(開示悟入), 객진번뇌(客塵煩惱),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저자가 소개하는 불교 용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 공부를 하는 책이다. 수십 년간 '불교 한문'을 강의하며 한문지도사를 양성해온 저자가 108가지 주제어를 통해 불교 공부의 방향을 잡아준다.

108가지 용어에는 불법의 정수가 담긴 불교 교리나 사상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화와 관련되거나 일상화된 용어들도 포함되어 다방면의 성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 이 책의 부제인 '찰나에 깨닫는 긴 사연 짧은 이야기'처럼, 생사윤회는 겁을 거듭하는 긴 세월이지만 한 찰나 몰록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일관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대장경을 배경에 두고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을 씨줄로 삼고 벽암록, 조주록, 대승기신론, 전등록, 선가귀감 등을 날줄로 삼아 독자를 다르마의 길로 안내한다. 한 주제어가 가진 본연의 뜻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한 근거와 출처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불교 공부를 하게 된다.

편저자인 심재동은 충남 대전 출생으로 조부 상제(相齊) 옹(翁)으로부터 〈사서삼경〉을 사사하고, 경원대학교 건축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대한불교법사회 상임감사, 법무부 종교지도위원, 동국대학교·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문 강사, 동산불교대학 한문학과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법륭사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이서원 원장, 불교한문연구회 회장, 다문정심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신 금강경언해〉 〈이 썩을 놈아〉 〈한문정석〉 〈한국불교와 천수경〉 〈불자법요집〉 등이 있고, 역서로 〈육조단경〉 〈초발심자경문〉 〈사십이장경〉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다시 볼수록 가슴에 새기는 선사의 활구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양범수 엮음
시간여행 / 1만5천원

책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은 선사들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모은 책이다. 책에 수록한 100편의 게송은 2008~2009년 불교신문에 '오소자의 게송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이다.

엮은이는 신라·고려·조선 선사 50인, 중국 선사 50인의 선시와 게송을 특별한 기준 없이 선정해 실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한 지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글을 다시 음미해 보고 출판을 결심했다.

"연재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다시 볼수록 선사들의 대기대용 활구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세월이 갈수록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둘 요량으로 편찬합니다."

팔순을 맞은 엮은이는 불교계의 원로 언론인으로, 한때는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어 오도송과 열반송을 심도 깊이 이해하며 감상평을 붙였다.

양범수(필명:오소자)는 1980년 5월부터 1994년 4월까지 불교신문에 근무했으며 취재 차장과 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역서로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신주팔양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팔순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선사들의 게송을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 오소자의 선시 감상〉으로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유학자 주희의 사상에 대한 고찰!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주희는 강하게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했지만, 그의 사상 상당 부분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역/신국판/552쪽/값 30,000원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되살리다!
백용성의 화두참선법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용성스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포교방법에 대해 조명하였다!
허정선 저/신국판/양장/268쪽/값 22,000원

가사체 금강경과 가사체 반야심경 해설!
정본 우리말 금강경
9종에 달하는 금강경 판본을 비교해 '정본 한문 금강경'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체로 만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조현춘.천희완 공저/신국판/44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부처님 성지의 법향으로 불교공부를…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상)
글 · 사진 선묵 혜자
시간여행 / 2만원

혜자스님이 부처님성지서 전하는 설법
부처님 4대 성지 소개하며 불교 공부
탄생서 열반까지 부처님 족적 따라가
'유적' '교리' 코너로 공부의 깊이 더해
설명·사진자료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해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아난다여, 내가 반열반에 든 뒤에 이 법을 따르는 모든 수행 대중들은 부처님이 나신 때의 공덕과 도를 증득했을 때의 신력이 어떠하며, 부처님이 법 바퀴를 굴린 때에 사람들을 교화하신 모습과 열반에 이르러서 남긴 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각각 그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탑사를 예경하면 그들은 부처를 보고 가르침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성지를 참배하고 기도하면 많은 공덕이 있음을 설했다.

(사)108산사순례 기도회와 수락산 도안사 회주인 선묵 혜자 대종사가 부처님 성지를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출간했다. 순례의 공덕이 담긴 책이다.

책 〈선묵혜자 스님과 함께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상권은 부처님의 8대 성지 중 4대 성지인 탄생지 룸비니와 정각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샤르나트,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소개한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법향과 함께 '공부'하는 책이다. 탄생에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간다. 성지와 관련한 문화와 역사, 설화, 경전뿐만 아니라 성지에서 설해지는 교리, 사상 관련 인물 등을 자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각 장마다 '유적'과 '교리' 코너를 두어 공부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교리' 코너는 입문서에서 볼 수 있는 공부로 채워져 있어 책의 의미를 한껏 키운다.

책은 1. 성인이 나신 땅 룸비니, 2.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3. 진리를 설한 땅 샤르나트, 4. 열반의 땅 쿠시나가르 4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성인이 나신 땅 룸비니'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과거 7불, 부처님 전생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룸비니는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휠러 박사가 츄리아 언덕에서 이곳이 룸비니라는 명문이 적힌 아소카왕 석주를 발견함으로써 고증됐다. 부처님께서 태어나 처음 목욕을 했던 구룡연못과 어머니 마야 왕비를 기념하는 순백색의 마야대비 사원, 마야 왕비가 부처님 출산 때 잡았던 보리수, 아소카왕 석주 등이 있다.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 룸비니 프로젝트에 따라 입구에서 1km에 달하는 호수가 조성되고 '평화의 불'도 모셨으며,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내부에는 아름다운 부조와 아기부처님의 첫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에서는 수자타 유미죽, 전정각산, 마왕의 항복 등을 담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한 성도의 현장 보드가야에는 기원전 250년경 아소카왕이 세운 마하보디 사원이 있고, 사원 안에서 독경, 기도, 오체투지, 좌선, 명상, 행선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고요한 곳이다. 사원의 왼쪽에는 높이 25m의 보리수가 있는데 보호용 철책을 둘러친 보리수 한쪽 옆에는 부처님의 커다란 발자국을 새긴 족적이 있고, 반대편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자리인 '금강좌'가 황금색 천으로 덮여있다.

△'진리를 설한 땅 샤르나트'에서는 다섯 비구를 교화한 이야기, 중도와 팔정도, 최초로 교단이 성립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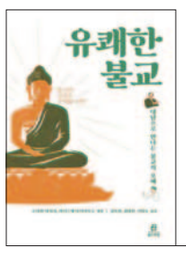
샤르나트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한 곳이다. 우리가 녹야원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에서 약 250km의 먼 길을 걸어와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처님은 역사적인 전도선언을 한다.

△'열반의 땅 쿠시나가르'에서는 춘다의 공양,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한 이야기 등 부처님의 열반 전 모습들을 담고 있으며,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쿠시나가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이다. 부처님은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쿠시나가르에 도착한다. 1년 전에 왕사성을 출발했고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여름 안거를 지낸 뒤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처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지 세 번이나 물었다. 아난이 나서 여쭐 것이 없다고 하자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저자인 선묵 혜자 스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성지를 순례해도 2600년 전의 부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가고 싶은 소망은 불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책은 불교를 바로 배우고 자신의 정신을 향상하여 부처님과 그 위대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이라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불교, 현대사회 이정표로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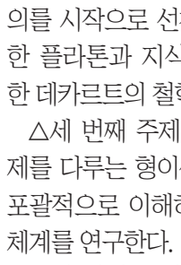
유쾌한 불교
오사와 마사치,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대담
김보라, 김태진, 이하늘 옮김
북드라망 / 2만원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어떻게 26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일본의 저명한 두 사회학자가 역사·사회·철학·종교를 넘나들며 대화를 나눴다. 책 〈유쾌한 불교〉는 두 학자의 대담집이다.

두 학자는 소크라테스부터 칸트, 베버, 파핏까지 시공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그 논점을 비교 검토해 불교가 품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일신한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부파불교로부터 전환하게 된 과정, 대승의 논리 구조와 보살의 의미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이어진다. 읽다 보면 불교의 큰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두 종교의 특징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불교에 대한 철학적 문제, 무상, 고(苦), 무아, 공(空), 중관, 유식 등 난해한 개념들, 인도 초기 불교에서 동아시아 대승불교까지 전래되는 흐름과 사람들이 불교를 만나는 과정, 자유를 향하는 불교의 인생관까지, 불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그것을 하나로 꿰는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두 학자의 노력이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대로 빛을 발한다. 불교를 둘러싼 지적 자극이 가득하다. 대담 전체를 통해 본 '불교'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종교로, 자유주의적, 합리적, 이상주의적이다. 각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그마가 없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각자의 책임이다. 어떤 결과나 사건은 철저히 인과론에 기반하며, 공부와 수련을 통해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개개인의 변화는 사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학자는 바로 이런 불교의 특징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사유의 즐거움 서양철학



미네소타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천원

2019년,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철학 강의의 면면을 지면에 옮겨 많은 인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미네소타주립대학의 홍창성 교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주전공인 '서양철학'을 들고나왔다. 그의 강의를 지면으로 옮긴 〈서양철학강의〉가 출간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중요한 다섯 주제를 골라 각 주제와 관련해 역사상 중요했던 다양한 철학 이론을 소개한다.

△첫째 주제는 '삶'이다. 우리가 철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주로 좋은 삶에 대한 추구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학을 첫 번째 주제로 선택했다. 행복한 삶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이성의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는 스피노자, 그리고 그 반대로 도덕은 인간의 감정에 근원을 둔다는 흄의 견해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는 '앎'의 문제를 다룬다. 앎 또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시작으로 선천적 지식의 존재를 주장한 플라톤과 지식의 제1원리를 발견하려 한 데카르트의 철학을 검토한다.

△세 번째 주제는 '있음'이다.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형이상학은 대상 세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체계를 연구한다.

△네 번째 주제는 '마음'이다. 먼저 마음이 역사상 얼마나 다르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설명한 다음,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과학'이다. 철학과 과학이 고대로부터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가를 살펴보며 근대에 이르러 확립된 베이컨의 귀납법을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과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과 인과 법칙에 관한 흄의 근본적인 회의론을 논의한다.

이 책은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의 심오한 통찰과 예리한 비판적 사고를 발견하고, 철학의 주요 주제에 관한 열띤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깊이 있고 지적인 시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저자는 이전 저서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현지 강의실의 면면을 지면에 옮겼다.

다양한 비유와 예시, 친절하고 위트 있는 전개로 이루어진 저자의 철학 에세이는 '인문학 좀 한다' 하는 독자는 물론 '서양철학 초보'인 독자들에게도 사유의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원전 텍스트 분석 + 현대 서구 불교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아비달마·중관학파·유가행파·인명학파 등 주요 학파의 사상 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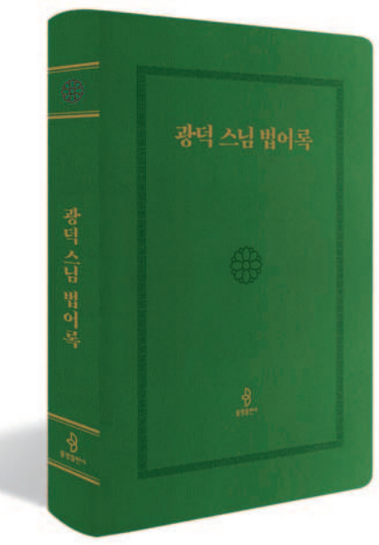
불교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을 대하는 성숙한 안목과 태도를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불교 전통의 뼈대가 되는 사상 · 철학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깊고 풍요로운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인도 불교 철학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얀 웨스터호프 지음 |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불광 창립 50주년,
그리고 다시금 새기는 광덕 스님의 영롱한 생명의 언어들!

광덕 스님의 말씀과 글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의 정수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3년여에 걸쳐 엄선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한 권의 법어록으로 집대성하였다.



광덕 스님 법어록
광덕 지음 | 544쪽 | 30,000원

광덕 스님(1927~1999)
1974년 9월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 한글화, 경전 번역, 찬불가 작시, 불광사 대중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며 대중을 일깨웠다.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대중화·현대화를 정착시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았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절대긍정의 세계를 열어보인 스님은 1999년 세연을 조용히 거두고 입적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현대적 언어로
생생하게 만나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의 생애 붓다

**위대한 성인의 삶은 그 자체로
후대의 귀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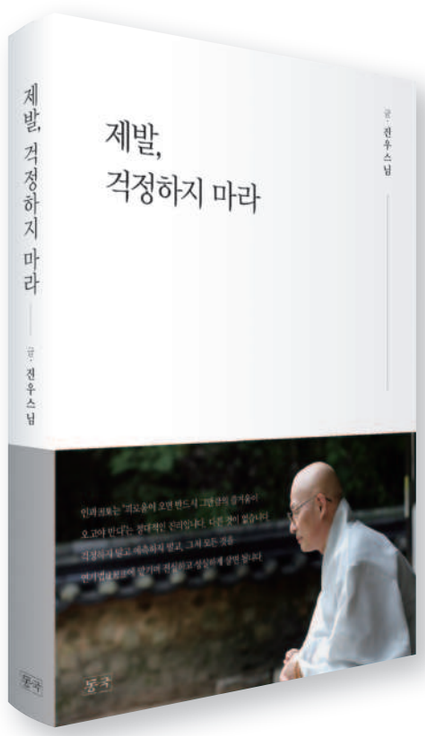
세밀하고 인간적이며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 기법
생생한 스토리 전개를 통한 재미와 감동!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 풍부한 자료사진

윤재웅·박기련 저

고급형과 보급형 2종 출간!

고급형 양장본 128×188 | 796쪽 | 컬러 | 32,000원
보급형 무 선 128×188 | 796쪽 | 흑백 | 23,000원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온
가을을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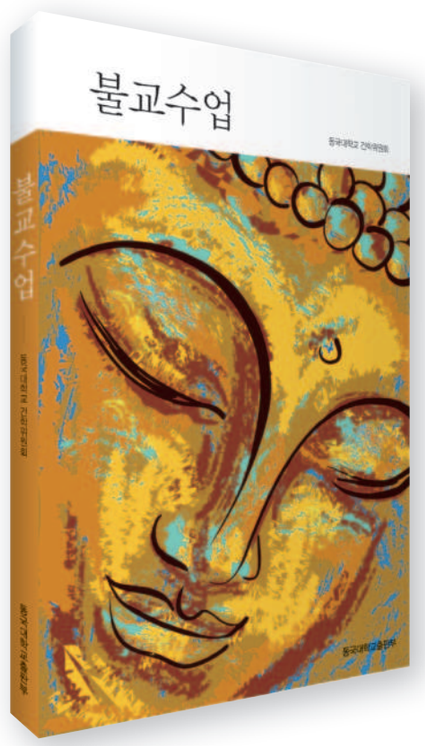
제발, 걱정하지 마라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희망과 용기의 법문!
오랜 수행과 전법으로 이뤄진 깨달음이
푸근한 말투로, 은은한 미소로 손 내미는 책!!

진우스님 저 | 양장본 135×200 | 280쪽 | 컬러 | 19,000원

"MZ세대 여러분,
불교 어렵지
않아요!"



불교수업

**뉴진스님으로 불교가 친숙해졌다면
〈불교수업〉으로 불교를 공부해 보세요!**

젊은 세대가 처음 접하는 불교,
어렵고 생소하지 않도록
동국대 불교학 연구자들이 고민한 책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저 | 152×224 | 216쪽 | 13,000원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 도서출판 동국 | 동국대학교출판부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전법 앞에 종단 없다, 한국불교 세계로”

국제포교 40년 목탁 울림 목탁 혜은 스님



목탁 혜은스님은 미얀마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울 종로에서 미얀마문화원과 붓다사리박물관을 운영중이다.

서울 종로 청진동에는 미얀마문화원과 국제붓다사리박물관이 있다. 2008년 개원한 이곳은 목탁(木鐸) 스님으로 우리에게 더 잘려진 혜은 스님이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문화원장이라니? 보통 재외문화원은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경우 1980년대부터 미얀마 불교계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스님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주한 미얀마 명예대사 1호이기도 한 목탁 혜은 스님은 미얀마문화원, 주한 미얀마관광청장,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장, 국제붓다사리박물관장과 함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등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1987년부터 무사고 운전 기원 자비목탁 달기 운동을 펼쳐 이제는 ‘목탁 스님’으로 알려진 목탁 혜은 스님을 만나 그동안의 전법 포교에 대한 소회와 한국불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40년 교정 교화, 국제봉사로 이어져

목탁 혜은 스님은 1970년대 말부터 교정 교화 운동을 벌여 1980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교정 교화 1세대다. 사형수의 대부로 불렸던 삼중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등이 오랜 기간 교정 교화를 이어오시다 최근 입적하시고 남은 몇 안 되는 스님 중 하나다. 1989년 제41회 세계인권의날 목련장훈장 인권협회 대통령 포상과 조계종 포교대상 특별상을 받기도 한 스님은 여주교도소 무연고 재소자 영치금 지원을 비롯해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남부구치소 등에서 교정 교화를 이어왔다.

스님은 “우리나라 교정 교화는 스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며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들, 어두운 곳이 많지만, 교도소만큼 절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길 바라는 이들이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했다.

스님의 꾸준한 활동에 감화된 이들은 적지 않다. 1년에 4차례 중소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교도소와 장애인 시설을 지원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 임원 부인 등 50여 명이 스님의 원력을 이어 국제불교봉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국제봉사, 미얀마 인연으로 시작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교정 교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스님은 1980년대 초 우연한 기회에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한-스리랑카 불교친선협회 구성을 추진, 협회 결성의 초석을 놓게 됐다. 이후 1994년 자연스럽게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고, 우꾸마라 스님을 비롯하여 우킨쉐이 당시 미얀마협회 회장이자 미얀마경제연합회장 등과 인연을 쌓게 됐다. 그 영향으로 한 · 미얀마친선협회가 미얀마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 교정 교화 1세대
1990년대 해외 포교에 나서
한국 · 미얀마 가교역할 자임
학교 · 우물 건립 등 앞장서

몽골에 나무 심기 등 확대
세계불교 아우르는 ‘법왕청’
구성에 동분서주 원력 모아

“현대불교신문사 창간30년
전법 포교 30년 역사 닿아”
‘범종단 포교지’ 역할 당부

스님은 “미얀마를 돌아보니 맑고 순수한 그들의 모습과 불심에 놀랐다. 마치 우리의 과거를 보는 듯한 모습에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회고했다.

혜은 스님은 미얀마를 돌아보고 나서 이들을 돕는 길은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1997년 미얀마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원을 세우자 미얀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당시 미얀마 정부 국장이 와서 필요한 부지를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했고, 함께 부지를 돌아봤어요. ‘기술학교가 세워지면 2~300년은 이어가야 할 곳이고 미얀마 국민 먹고살 것을 가르치는 곳이니 당신이 더 좋은 위치를 알지 않겠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얀마에서 계획 중인 신도시 땅 5만 평을 무상 불하 받게 됐고, 건립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스님은 2002년 한국에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친선교류협회를 만들고 기술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2003년 관음종 홍파 스님의 도움으로 기공식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본지와 미얀마 학교 화장실 건립, 우물 파기 운동 등을 벌여 미얀마에 부처님 자비를 전했다. 이 공로로 스님은 2007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건국최고훈장 및 칭호를 받아 대승정으로 추대됐다.

몽골 ‘생명의나무 심기’ 등 세계교화

스님의 국제전법 원력은 몽골에까지 미치고 있다. 2023년부터 몽골과 불교 교류를 확대해 2024년 5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몽골 불교계와 함께 한국의 연등회 제등행렬을 재현하여 연등회 문화를 전하기도 했다. 또 2024년 몽골 정부, 몽골 불교계와 공동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5만 평 대지에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고 몽골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스님은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세계지도자들과 불교도들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 부처님 세상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결국 이러한 세계 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불교법왕청과 같은 중심체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이를 구성하는데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불자수를 보면 기독교신자수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아쉬움을 느낀 점은 가톨릭 교황청과 같이 불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2010년부터 세계불교법왕청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불교국가를 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먼저 스님과 인연이 깊은 미얀마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방문해 해당국이 승왕과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법왕청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일본도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하고 있다. 스님의 직책 중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소임이 들어있는 이유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법왕이 나온다면 장자종단인 조계종 종정 큰 스님이 법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왕 · 종정 스님 등 각국의 큰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교류단체를 만들고 불교국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멀리 퍼질 거로 생각합니다.”

본지 30년, 범종단 포교 증진 기대

스님은 “범종단지인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은 불교계에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교계 언론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종단이 운영하는 종보들과 달리 다양한 종단, 그리고 소속이 없는 스님들까지 아우르는 신문은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정치적 내용보다 문화와 전법 포교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역할에 매진해줘 감사하다. 우물파기운동, 기술학교 건립, 나무심기운동 등 종단을 떠나 불제자로서 해나가야 할 일에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주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름없는 스님들,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묵묵히 전법 포교, 봉사와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30년간 꾸준히 이들을 알리고 주목했듯 앞으로도 범종단 대표 전법포교지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원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광장서 연등행렬.



몽골 생명의 나무심기 식수식.



미얀마 정부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미얀마 기술학교 학생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웃고 있다.



미얀마 기술학교 개원식 모습.

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중단 없는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고통 받는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를 하는 숨은 자랑스러운 인물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국내외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하겠습니다.

- 후진국 빈민촌 공동우물파주기 운동
- 신뿌출가의식 지원
- 어린이 교육지원
- 코리아기술종합대학 운영지원
- 의료(안과 치과) 지원
- 의료 약품지원, 생활용품자원
- 장학 장려금 지원



국내외 봉사단 활동에 같이 동참하실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대행 스님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여러분께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서만 꼭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고도 아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적으리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차원에 따라서,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가지고 살다가 다 놓고, 네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몽땅 다 놓고 가되,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과가 되고 유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고 인생에서 선덕을 잘 쌓고,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니라.' 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개미 하나, 풀 한 포기도 전부 여러분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말을 해 줘야만 알겠습니까? 허공은 허공대로 '자유스럽게, 티 하나 걸리지 않고 흘러 돌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물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집으로서 만생을 이끌고 나가는 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없이, 어떠한 차원도 없이 흘러갑니다. 꼭 말을 해 줘야 압니까? 그것도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스승.

그뿐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들도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날려서 아무리 뿌리가 뽑힌다 하더라도 말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하다고 원망을 하거나, '바람이 왜 부느냐. 왜 뿌리가 뽑히게 하느냐. 왜 못살게 하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우박이 오느냐. 그래서 왜 나한테 타격을 주느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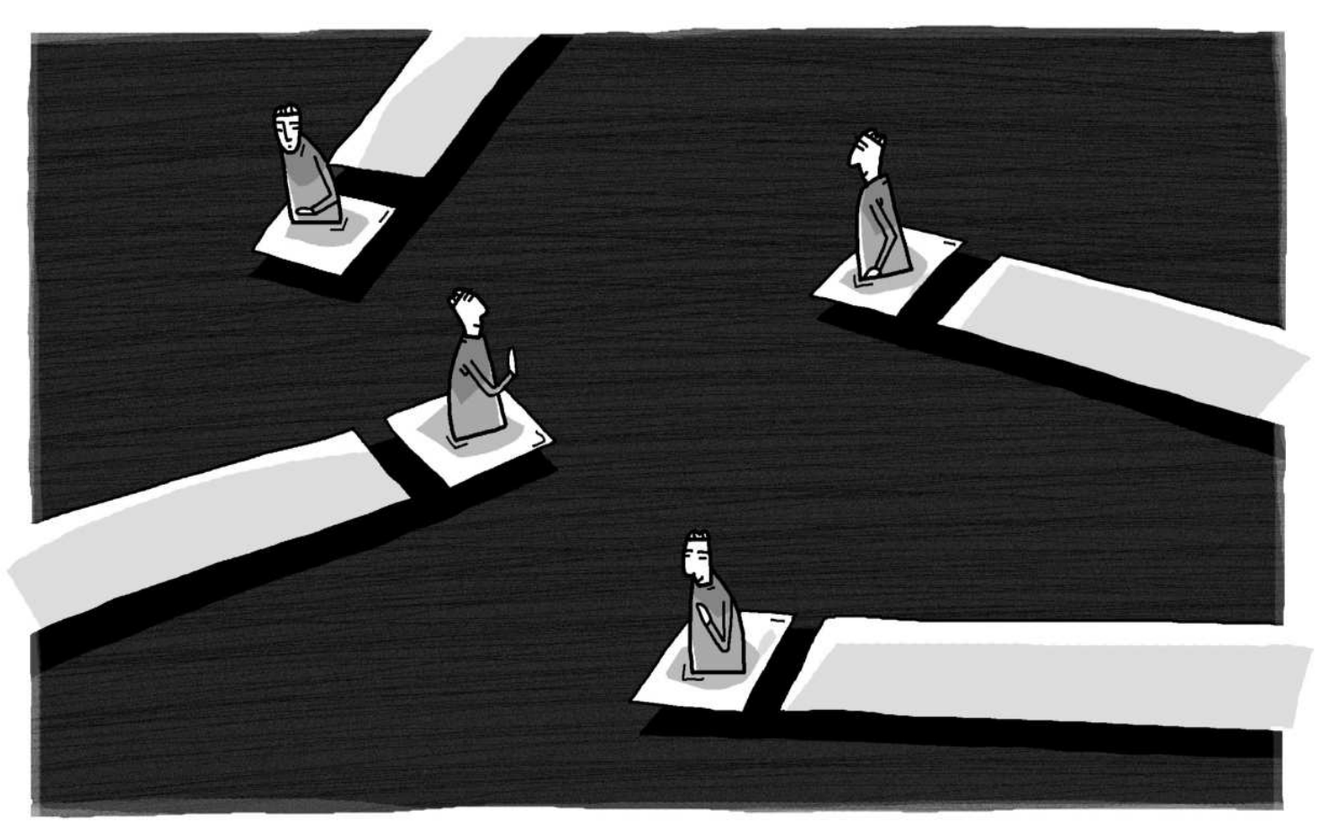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것이 무슨 이유냐.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없이 살라'고 말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어 놓고는 겨울에는 그냥 앙당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게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개미들이나 짐승들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을 까 놓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낳고 지키고 이끌어 주고 똑바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칠까 봐 걱정이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림살이가 다릅니까? 모습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마는 그 살림살이의 근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개미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얕잡아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만생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데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 아니게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 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 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제가끔.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생(生)해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딨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인생이 가고, 한 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 갈 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헤어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 혹성이나 핼리 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나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섭류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로 쭉 내려다보세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토끼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고 그렇지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수명이 아주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이 낳지만,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끼리 모이고, 농사꾼은 농사꾼끼리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놓아 버리게도 하는 그런 장본인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으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수억겁 전부터 생기게 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인 몸뚱이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선 쑥 내밀었단 말입니다.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팔뚝! 중

☞ A28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말을 배우려 말고 한 발짝을 떼놔도 실천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라

☞ A27면에서 계속

심! 이거는 (주먹을 폈다가 쥐어 보이시며) 오온을 다 쥔 겁니다. 이 쥐었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전부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니 별성이니 달이니, 어느 혹성을 막론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서로 주고 서로 살리기 때문에, 이 세상사가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은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된다,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 먼저 믿어야 된다, 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넌 누구를 믿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 하나를 켜 놔도…, 보십시오! 초를 켰는데 한쪽이 기울어지게 타 들어간다면 촛농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위로다 딱 잘라서 똑바로 해 놓고, 기울어지는 것을 똑바로 세워 놓으면 한쪽이 이그러지지 않으니까 촛농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고삐를 자기가 쥐고, 남의 파 밭으로 들어가면 '파 밭으로 들어가선 안 돼. 이랴!' 하고, 딴 데로 가면은 '워! 워!' 해서 항상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항상 방편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집에 전화를 먼저 놔야 남한테서 전화도 받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 인과 법칙이라든가 또는 유전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생태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를 알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굴려서, 이론으로만 쫙 알아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심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꿇어앉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뭣고?' 하기 이전에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놈이 뭣고?'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인데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대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똥 누러 갈 때도 '내가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그냥 싸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저어서 강을 건너야지.' 이러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면경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 앉지 않게 해야겠다.' 이러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정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게 다.

그대로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좋은 입력이 됐으니 나오는 게 자동적으로 좋은 일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입력돼서 그렇게 한 대로 나오는 거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이렇게 말들만 하시지 말고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로, 현실의 싹으로 나서 지금 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과거의 씨를 찾습니까?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것이 그대로 과거의 씨도 되고 미래의 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찾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행을 해 나올 때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리따웁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렁이라면 모습이 구렁이인들 어떠리!' 즉 말하자면 내 어머니가 못 배우고 못났다고 해서 남의 잘나고 잘 배운 어머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죠? 잘났든 못났든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가다가는 허방을 짚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력은 누구나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딜 믿습니까? 나로부터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상업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노동을 하든지 뱃사공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여간에 못났든 잘났든 모두 자기가 근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든 높든 다 높으니라. 비유를 하겠는데,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농사꾼이 아주 으뜸이니라. 물에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니라. 과학자한테 가면 과학자가 으뜸이니라. 노동자한테 가면 노동자가 으뜸이니라." 이래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하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높으니까. 개미도,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못 하니까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천지 모든 것이, 일체 식물이나 과일이나 모두 제가끔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한데 섞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먹으면 요거 맛 다르고, 저거 먹으면 저거 맛 다르고 다 다르지마는 다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리로 쏠리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 쏠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기 때문에 들으면 듣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요.

누가 병이 났는데 "이런 병 못 고쳐." 이러면 아주 입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중심이 서지 않아서, '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나 할 탓이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약하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집에 주인이 있다면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면서) 딱 버티고, 어느 게 들어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리드해서 끌고 나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는 대로 곧이듣고 '아이구,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자식들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부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사람의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두뇌로 올라가서 하달이 되거든요. 그럼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동적인 입력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얘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서, 잘해서 넣어 가지고 나오지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동적인 숙명통 컴퓨터에는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을 항상 건실하고 건전하게 갖고, 인연에 따라서 집착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이렇게 모여서 즐거웁게 놀다가 즐거웁게 헤어지는 거니까요. 식구들하고라도 그렇고 남들하고라도 그렇고, 모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산다면 서로 이것이 인과가 되고, 즉 말하자면 원수도 되고 유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낭패가 되는 거죠. 죽고 또 죽어도 다시 또 결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걸 제자리에다 되놓고 돌아가는 동시에 바로 나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물리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비! 누구 원망도 안 해지고, 악을 쓰고 누구를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운 생각, 원망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악을 쓰게끔 되죠. 그러면 벌써 거기 인과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이 모두가 이러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되고자 해서 지금 이 공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겁 광년을 나를 이끌어 가지고 온 나의 장본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놓으세요. 모든 게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꼭지 없는 꼭지가 달려서 태양계에 매달려서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 마음의 자력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이 우주 전체를 한데 합쳐도 합친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진정코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모든 것에 아랑곳없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열쇠를 가질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여래장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를 진정코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모든 것에 아랑곳없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0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6223-4375
거 사 합 창 단 단장 010-3860-4258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⑳ 나를 변화시키는 연습, 남을 바라보는 지혜

지혜의 눈 밝히면 세상도 밝아진다

직장 내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쉬운 문제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다. 아침마다 여럿이 온라인에서 금강경법문을 공부하며 나눈 법담 중 직장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영석(가명) 님은 다년간 함께 일해온 한 직원과 소통이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직원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까지 힘들어하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영석 님은 특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상사의 말만 따르는 그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느껴, 매일 퇴근 후면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아침마다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니 그게 참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은영(가명) 님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법담을 이어갔다. "직장 동료로 인해서 정말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수십년 전 얘기네요. 어디다 얘기하고 풀 데가 없어서 매일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욕을 해봐야 그 사람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맞고, 상대는 또 본인대로 맞으니 서로 바뀔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일 똑같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한테도 하소연 못 하고 넋두리를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남편의 질문 덕분에 반복적인 습의 부딪힘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공부는 얕았지만, 그동안 들은 법문을 떠올리며 더 이상 남을 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한 가지 장점을 꼭 찾아내자. 그 사람의 1등인 점만 바라보고 받아들이자. 내가 인정하고 집중할 건 그 한 가지의 장점이다. 그 장점만 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넘기자. 달라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니 가볍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저쪽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내가 바뀌자'라고 결심했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닫고 나눠주신 은영 님을 다같이 찬탄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한 가지 장점을 찾자'라는 다짐을 지켜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은영 님은 법문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정진하며 스스로가 다짐한 인간관계에서의 원칙을 잘 지켜왔다. 사람의 단점만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장점에 집중하는 연습 덕분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더 이상 미움과 불평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들으며 공부자리에 함께 한 분들이 공감했다.

단점은 인정하고 장점에 집중하면
더 이상 미움·불평에서 살지 않아

법회에서 항상 듣는 법문이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생명이고, 온 우주법계 그 자체가 부처님으로 꽉 차 있는 세계'라는 것인데 우리는 왜 부처님을 보지 못할까?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 남과 대립해 있는 나의 생명이 따로 있다는 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금강경에서 일러주신다. 그것이 없으면 온통 이 세상에 부처님만 계시니 그 부처님들께 오직 예경 올릴 뿐이라는 보현행원품의 법문도 동시에 떠오른다. 보현십원의 첫 번째인 예경제불(禮敬諸佛)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인데,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심(下心)이다. 은영 님의 '장점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겠다'는 마음 역시 하심의 표현 아니겠는가.

한탑 스님께서는 예경제불에 대해 이렇게 법문해주셨다.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예배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곧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중생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분별심입니다. 나와 따로 떨어진 못난 중생이 있다는 분별심은 만심(慢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만심을 조복받으려면 하심해야 합니다. 하심은 곧 공경심과 같은 뜻으로, 하심을 몸으로 나타낸 것이 절입니다. 하심하여 겉모양에 속지 않고 보는 지혜가 열리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면서 예배 공경한다는 것은 온 우주 전체에 부처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밖에 없는 세계, 즉 절대 무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생명 내용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절할 때나 정진하면서 발원할 때, '당신께서 이 세상 사람 전부를 부처님으로 모시듯이, 저도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지혜의 눈을 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발원의 원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을 부지런히 하면 내 지혜의 눈이 밝아집니다. 내 지혜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만큼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 세상은 본래 밝은 것인데 본래 밝은 것을 몰라서 어둡다고 생각했다가, 정진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만큼 이 세상이 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㉖ 골다공증

고령화사회 침묵의 병, 골다공증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및 골절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 개인적으로도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 위험 증가, 만성 통증 야기,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정의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감소해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WHO는 골다공증을 20세 성인의 평균 골밀도보다 2.5배 이상의 골밀도 감소를 보이는 경우를 골다공증이라 정의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병태생리학적 지식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골밀도 외에도 뼈 미세구조의 이상, 무기질화(미네랄화)에 영향받는 뼈조직의 경도(勃度) 이상, 미세손상시 회복결함 등과 같은 골질변화가 골절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WHO 골다공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뼈강도 감소에 의한 골절이 상당수 발생했다. 이를 통해 골절 감소를 위해서는 골밀도 개선과 함께 골질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골다공증의 원인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원인은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위험인자를 점수화해 통합점수로써 위험도를 예측하게 된다. 관련 위험인자들을 크게 4가지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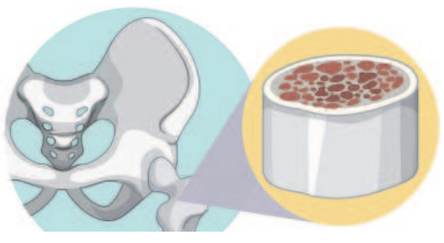
(1) 골절이나 골다공증의 가족력, 골절병력, 여성, 나이 등의 조절 불가능 인자

(2) 흡연, 저체중, 에스트로겐 결핍(조기폐경, 난소 절제술 등), 칼슘 섭취 부족, 과도한 음주, 불충분한 활동 등 조절 가능 인자

(3) 부갑상선항진증, 갑상선항진증, 당뇨, 성선기능부전, 류마티스질환, 간기능부전, 염증성 장질환위절제술, 골수암 등의 질병

(4) 갑상선자극호르몬, 항간질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장기 복용, 헤파린, 쿠마딘 등의 약물 등이 있다.

이중 골다공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는 가족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골절 병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일반인보다 골량이 감소하고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주된 발병 예측인자 '가족력'
예방에 칼슘·비타민D 필요해

골다공증의 증상

골다공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병의 진행을 알 수가 없어 침묵의 병으로 불린다. 수년에 걸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며 성 요통이나 만성 관절통, 척추측만증, 골절이 되어서야 골다공증의 알게 되는 예도 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처음 6개월 이내 일반인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질환에 속한다. 골다공증은 결국 만성통증과 이로 인한 활동능력의 소실, 우울감, 사회활동의 위축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진단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병력 및 위험인자에 대한 문진을 거쳐 골절위험도 평가, X선 검사, 골밀도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다. 이중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효과 평가에 있어 다른 검사에 비해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검사다. 검사 부위는 요추는 L1-L4까지 측정하고, 대퇴골의 경우는 대퇴골 전체와 대퇴골 경부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이다.

골다공증의 치료

골다공증의 치료약물은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수를 줄인다. 제형은 경구약제, 주사제 등이 있으며 용법은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됐다. 그 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부갑상선 호르몬제, 데노수맙(RANKL 억제제) 등의 약제가 사용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 시 골다공증 약제 외 칼슘 및 비타민D를 복용해야 한다. 고칼슘혈증, 신장결석, 고칼슘뇨증 또는 심한 변비 등이 있는 경우라면 칼슘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히 폐경 후 5년이 경과한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칼슘 보충 병합요법은 골소실 지연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골다공증의 예방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D의 섭취가 필요하다. 예방·치료에 따라 적절 용량이 다르다.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에서는 하루 800~10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여 예방적 목적일 경우 일차적으로는 음식으로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게 좋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으면 보충제 사용을 권장한다. 골절 예방을 위한 비타민D의 권고량은 하루 800IU이다.

그 외 낙상주의, 적절한 신체활동 및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골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음, 흡연 등을 자제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박지혜
거인병원 내과클리닉 과장



전법 일기

고민 끝에 탄생 '바다마음 팔찌'
학부모들 입소문 타고 전파 중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1000개 이상의 염주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염주에 지혜를 담아 부처님 마음 염주, 보살행 염주, 촛불 염주, 세포 염주, 스마일 염주, 가족 염주, 지혜재생처 염주 등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염주는 2024년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게 되면서 엄청난 진화를 하게 된다.

가장 최신 버전의 '지혜재생처 염주'로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 주었는데 세 가지 난점을 만나게 되었다.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과 불교 색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색깔로만 뜻을 전했던 둥근 알들은 바다, 하트, 물방울 모양으로 바꾸어서 직관적으로 뜻이 전달되도록 했고, 불교 색채가 느껴지는 나무알은 원석으로 바꾸었고, 파이프를 중간 중간에 넣어서 알의 숫자를 1/4로 줄였다. 그렇게 했더니 한 개 만들 때 20분 정도 걸리던 염주를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된 염주는 '바다마음 팔찌'다.

팔찌에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디자인이 담겨 있다. 바다원석으로 근본을, 하트 원석으로 마음 운전수를, 물방울 원석으로 몸을 표현해서 3가지가 모여서 내가 이뤄짐을 나타냈다. 그리고 물방울 원석에 모든 경계라는 의미도 추가해 '모든 경계는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과 같으니 다시 근본으로 되돌리면 본래의 넓은 마음이 된다'는 뜻도 담았다. 그래서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물방울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바다같이 넓은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분, 상대방이 화를 낼 때도 '이건 물방울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분, 이기심을 가지다가도 팔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니까 그곳으로 가야지'라고 근본마음을 챙기게 된다는 분…. 이런 분들이 팔찌에 더 큰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어느 신도는 팔찌를 하고 학교 자모회의를 갔는데 그곳에서 일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의미를 알려주니 "팔찌에 담긴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전교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능기부를 하도록 해요"라고 했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 바다마음 그림책, 미디어 아트 영상, 키트, 재밌는 진행 방법 등등을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팔찌는 학교에서 시작돼 방송국, 불교박람회, 외국인 대상 명상 체험 등등으로 계속해 연결이 되고 있다. '바다마음 팔찌'를 매개체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정물이 들어와도 하나로 만들어 주는 바다처럼 누구와도 화합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마음 모은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⑨ 교육혁명 '트라스(TRAS)'

동기부여와 질문, 잠재력 깨우는 소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 지 20년이 되어간다. 그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았다. 그중 아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유형과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던 수업유형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교육혁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인 '트라스(TRAS)'는 스페인어로 '꽝꽝 두드려 깨우는 소리'를 뜻한다.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꽝꽝 두드려 깨우고 싶다는 의미로 그렇게 정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까? 바로 '동기부여'와 '질문'이다. 수업을 통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궁리하는 것이 'TRAS'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요소와 단계를 구성했다.

T(Topic, 화제 구성):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이슈가 수업 주제와 연결이 되도록 '화제'를 먼저 제시한다.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이슈를 선택해 가르칠 내용과 연결해 수업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 '화제'다. 그러기에 그 수업은 교사가 새롭게 재해석한 교과서가 된다.

화제-이유-문답-해결 모색 과정서
학생들은 새로운 관점 접하고 느껴
교사와 학생 동반성장하는 프로그램

R(Reason, 배움 이유 찾기): 자기주도적 학습은 아이들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도록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아이들이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꼼짝 못 하게 설득할 만한 비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A(Ask & Answer, 질문하고 대답하며 깊이 이해하기): 수업에 많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퀴즈를 내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퀴즈를 내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과 바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질문은 잠들어 있는 정신을 번쩍 깨우는 쇠파리다. 이 수업모형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든다는 점이다. 9칸으로 된 정사각형 그림 활동지 가운데에 주제를 적고, 스스로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 8개를 만들어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을 선택해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다. 팀별 활동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이들의 갖가지 창의적인 질문과 대답을 경험할 것이다.

S(Solution, 최선의 해결책 모색): 수업 중에 아이들이 발표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교사가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준다. 그리고 수업 주제와 관련해 교사도 자기가 만들어 온 핵심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정답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T(화제)-R(배움의 이유)-A(질문과 대답)-S(최선의 해결책)'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며 학생과 교사는 자연스럽게 수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은 질문을 만들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익힐 수 있으며, 교사 또한 아이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학상장(教學相長)'이 되는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하루 5분, '나' 바라보는 명상 어때요"

하루 5분, 30일 동안 명상하면 어떨까. 조계종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루 5분, 30일 명상' SNS 챌린지를 진행했다.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다. 명상이 청년들의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정진 첫날, 퇴근하고 집에 와 제일 먼저 좌복 위에 앉았다. 시간은 단 5분. 1초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는다. 어설프지만 눈은 45도 아래로, 허리를 곧추세운 뒤 가부좌를 튼다. 먼저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호흡을 진정시켰다. 호흡이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찌나 생각이 번잡하던지, 5분이라는 시간이 5시간처럼 느껴졌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포기할까도 수천 번 고민했다. 하지만 〈보왕삼매론〉에 이르기를 "공부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든 부산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5분이 지나면 사홍선원으로 회향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점차 줄어들었다. 체감 5시간이었던 시간은 15일이 지난 후에 정말 '5분'처럼 느껴졌다. 호흡은 전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으며, 마음속 끓어 넘치던 감정과 생각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어느새 시간은 10월 9일. 하루 5분, 30일 정진을 무사히 회향했다. 종일 밖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씨름하다 보면 마치 스스로가 없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명상을 해보니 '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30일간 오롯이 자신을 바라봤던 5분의 명상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불자들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초발심자경문〉의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구절처럼 5분간 닦은 마음으로 만년의 보배인 '나'를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겠습니다

총 재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고 문	김성림 류병선 성낙윤 왕선자 이연수 임완숙
지도위원	이간난
회 장	김의정
수석부회장	이연화
부 회 장	고은숙 김규리 김문자 김영복 이영옥 김용숙(선운사) 김용숙(스카우트) 김지윤 박남수 박숙자 백영선 엄현숙 유경숙 이금석 이영미 이영숙 이옥분 이은임 이화성 임소영 정순천 조성애 조수자 최선리
감 사	연경희 유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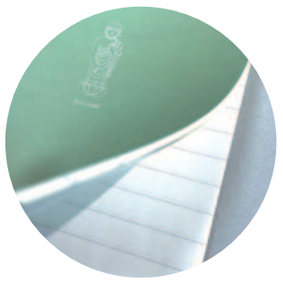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 | 전화 02)723-3330 팩스 0505)300-7277 | www.womanbuddhist.com

대한불교조계종 '공식' 신도 기본교육교재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

"독자들은 왜 조계종 신도 기본교육교재를 선택할까?"



+



기본교육교재 3권 세트를 구매하시면
고급 노트(64p)를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음 | 전3권(증정용 노트) | 값 54,000원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의 | 02)720-6107 www.jbbook.co.kr

문화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난주 목요일 밤 8시 넘어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벨문학상 탄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문학성은 뛰어난데, 번역 작업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나는 20대에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의 작품을 읽었다. 한승원의 불교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었고, 한강은 한승원의 딸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고등학교 때, 인도의 타고르(1861~1941)가 쓴 〈기탄잘리〉를 읽으면서 불교적 영감을 얻었다. 그가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찬탄한 점과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탓인지 그를 매우 좋아했고, 출가하고 나서도 〈기탄잘리〉를 종종 읽었다.

책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에게 영혼의 진리를 일깨워준 작가는 러시아의 톨스토이(1828~1910)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인물의 신분과 계급을 넘어 인간 본질의 고귀함, 인물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서 불교적 휴머니즘을 배웠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 한 사람과 바꾸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셰익스피어의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산물과 정신적 보물을 맞바꿀 수 없다는 영국인의 사유이다. 아니 이 점은 어느 누구에게나 보

한강 소설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다시 한번 '문화가 주는 힘' 체감
한국적 불교사상 깃든 불교 돼야

편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정신 영역의 산물인 문화는 감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

그럼 방향을 바꿔 중국으로 가보자. 중국이 대국인만큼 역사도 장구하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통합했다가 분열되고, 분열되었다가 통합되는 등 끊임없이 다국적인 면모를 반복했다. 이는 중국이 고대로부터 한족과 이민족(소수민족)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치욕스런 역사가 적지 않다.

당나라 때만해도 중국은 토번(현 티베트)에 공물을 바쳐야 했고, 태종(재위 626~649)은 문성공주를 송첸캄포에게 시집보냈다. 북송 · 남송은 금나라의 간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어서 원나라(몽골족)의 지배를 100년, 청나라의 지배는 300여년이 넘는다.

하여튼 치욕스런 역사가 적지 않은 중국이 어찌해서 고대 이래로 근대까지 동아시아에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을까? 그것은 한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과 이 한자에서 유교(유학)와 불교 경전이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우, 역경을 통해 종파가 발전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는 한 마디다. 역사에서 본대로 문화가 뛰어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 역사 또한 물질적 산물보다는 정신적인 산물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제2의 한강'과 같은 인물이 줄지어 배출될 것이라고 본다. 불교 또한 문화의 한 일부분이다. 한국적인 불교사상이 깃든 불교로 발전되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불교일 때, 전 세계적인 불교로 발돋음된다.

잡종 사회와 연기법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생물계에서 '잡종 강세'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잡종 강세의 법칙을 원용하고 이용하는 범위와 기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농업 작물, 가축의 품종 개량 등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 잡종 강세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잡종화는 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사회의 역사는 잡종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잡종화란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어떤 요소를 창출해 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잡종화를 이루기가 만만치 않다. 인간과 인간 사회의 잡종화 과정에서 수많은 격랑의 파고를 겪어야 한다. 잡종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지혜 그리고 용기를 요구한다. 지구촌의 인간 사회에는 잡종화를 막는 많은 장애가 있다. 종족과 부족 의식, 맹목적 신앙체계, 폐쇄적 이념, 정치인의 탐욕 등이 대표이다. 이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파시즘, 전체주의, 정교일치의 신정체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칼 포퍼(Karl Popper)가 우려했던 〈열린 사회의 적(Open Society and Its Enemies)〉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범람하고 있다.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만큼.

'잡종화 사회'는 열린 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열

잡종화, 이질적 요소의 융섭 과정
맹목적 신앙, 인간의 탐욕이 막아
잡종 사회 첫 구현자는 '원효스님'

린 사회의 적들은 '순혈주의' 또는 '순종(純種)주의'를 내세우며 잡종화를 비난하고 비하한다. 이러한 순혈주의, 순종주의는 매우 선동적인 용어로 장식되기 때문에 대중 동원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많이 정치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충족한다. 그래서 잡종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잡종화 사회 구현은 바로 연기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기론은 모든 존재는 상호의 존하여 생성되고 존재하고 멸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구조는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유 틀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해 준다.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분법적 사유 틀이 우리의 혼란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유 틀은 '구분심'에서 출발한다. 잡종화 사회의 구현은 구분심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잡종 사회 구현의 첫 선각자로 신라의 원효 스님을 꼽고 싶다. 원효 스님의 화쟁 회통(和諍 會通)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화쟁 회통 논리는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인식한 후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소통을 끌어낸다. 즉 다른 점과 같은 점의 동시적 긍정을 통해서 소통을 끌어낸다. 이러한 회통적 소통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사유 틀에 접근하는 것이다. 바로 중도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잡종 사회로 가는 제일 중요한 연료이다. 잡종 사회 구현의 최종 단계는 '자비 공동체' 구현이다. 잡종화는 거대 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의 양식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우선 나부터 '잡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社 說

다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여 1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해 왔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개설하고,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와 불교계 최초 인터넷 언론 '붓다뉴스'를 구축하며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세간에서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고 부른다. 목어(木魚)에서 유래한 목탁은 불가(佛家)의 법도와 정신을 상징하는 법구이자 의식구다. 불가의 모든 법요식은 목탁소리를 따라 진행된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목탁과 목어는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성성적적하게 깨어있으라는 경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론에게 '목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불교언론에게 깨어있음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다. 시대 언어를 통해 불교를 전하고, 불법(佛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세계 속으로 한국불교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근간에는 '전법'이 있다. 서른 살 현대불교신문은 사시이자 창간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독자 제호에게 약속드린다.

이제는 'K-불교'를 세계에 전하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이렇게 썼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도 맞닿는 저 일구(一句)는 광복 80년을 앞둔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듯 하다. 한국의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영화, 가요, 음식, 웹툰으로 확장되며 전 세계인에게 'K-문화 신드롬'을 가져왔다. 지난 10월 10일(현지 시각)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이제는 한국문학도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계 역시 세계에 한국불교 문화와 수행, 사상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열반 20주기를 맞은 숭산 스님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전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간화선에 뿌리를 둔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0월 8~15일 미국을 방문했다. 진우 스님은 예일대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선명상 강연을 하고 함께 실참을 하기도 했다. '무(無)'자 화두로 3분 간 함께 한 선명상 실참에 현지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K-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지금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적기(適期)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함께 원력을 모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707호 전화 : 02-725-4277
www.lotusworld.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91169-556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2054 未來佛教



그림 · 김상규

2054년 한국불교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술왕사(述往事), 지래자(知來者)’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술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는 것인데, 역사를 앎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호에는 ‘2020년 가상현장-꽁트 타임머신 보고서’라는 기획특집이 실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꽁트 형식은 아니고, △종교·사회분야 △사찰경영·종무행정 △출가·승가교육 △전법포교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딥페이크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칠 영향이 불교에도 그대로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리의 위상이 추락하는 시대에 나타날 탈실재화·인간화·진실화는 종교의 의미를 묻게 될 것입니다.

탈종교화로 인한 종교인구 및 출가 수행자 감소는 사찰 및 교단의 종무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IT시스템 구축 및 사부대중 참여 운영 체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전망했습니다.

승가교육도 온라인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법(法)의 깊이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수행과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30년 뒤 종교인구의 주류 세대는 현재의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전법포교가 중요합니다. 미래불교의 성패는 현재의 청년포교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행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 사찰에서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고승의 법문을 듣거나 각종 경전이 디지털화돼 누구나 쉽게 검색해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0년 뒤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서산 대사의 선시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2054년 미래 불교를 상상하다

전문가들이 본 한국불교 미래



과학기술 발전, 종교 의미를 묻다

종교 · 사회 분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넘어 새로운 문명 전환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간극 속에 나타나는 질적 차이만큼 큰 변화가 현재 사회와 가까운 미래 사회 사이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런 문명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핵심적인 변화 동향은 탈실재화, 탈인간화, 탈진실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탈실재화 현상은 인간의 육체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현실 외에 새로운 대안적 현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가상공간 등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지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일상적 경험이 가능한 대안적 현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것은 물리적 현실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모든 사회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가하고, 부적합한 질서는 폐기해야 한다. 삶의 기준이 변화한 것이다.

탈인간화 현상은 알파고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이들 인공지능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사유 및 학습이 가능한 기계이다. 또한 단순히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창작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하여 세상 만물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고, 인간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역의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유일무이한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인간의 피조물인 기계에게 도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기계의 역량을 인간의 육체에 수용하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포스트휴머니즘 논쟁이 불거지기도 할 것이다.

脫실재 · 인간 · 진실화 예상
기계와 인간의 경계 무너지고
사실 권위 추락 진리 위상 약화

탈진실화는 사실에 기반을 둔 객관적 지식의 정당성이 약화하는 현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미증유의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복제 기술의 발전이 덧붙여지면서 실제보다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딥페이크 피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의 권위가 퇴색하면서 진실과 진리의 위상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탈실재화, 탈인간화, 탈진실화 경향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이 중첩된 다양한 현실이 교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기계가 어울리며, 진실이나 진정성의 신화가 무너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성찰보다는 타인의 욕망과 시선에 휘둘리는 사회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종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종교계 전반에 걸친 변화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2000년대 이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탈종교화 경향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탈종교화가 종교성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보다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은 부인하기 힘들고, 그만큼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개인주의라는 경향이 결합하면 절대성을 유지해 온 교단 중심의 기존 종교들 대신 개개인의 선호와 필요성에 의해 구성되는 개인화된 종교가 출현할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에 퍼진 새로운 문명의 전개와 종교계가 당면한 변화들은 기존 종교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던진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면 30년 후의 한국불교는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 자못 궁금하다.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탈종교화 가속, '사부대중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찰경영 · 종무행정

과거 30년은 모든 면에서 이전의 한 세기를 넘어서는 가파른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다시 30년 후의 기상도를 예측해보건대,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시대적인 눈맞춤과 선진적인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이의 전망은 오늘의 상황을 짚어보는 일로서 가능하겠다.

첫째,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 보전에 공헌을 자임해온 전통사찰을 비롯한 산사(山寺)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감이 더욱 커질 듯싶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숲은 기후환경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국민대중의 쉼터요 숨쉴 수 있는 시·공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담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성을 중시하는 붓다담마(Buddha-Dhamma)의 사상적 가치와 사찰숲의 유익함을 연계해 인간경영을 모토로 사찰경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인적 종무시스템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둘째, 인적종무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사찰이 종무행정에 IT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법회를 비롯한 사찰경영방식에 AI기술 도입 등 문명이기의 보편적 활용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현하 조계종 사찰의 70%가 IT운용과 거리가 멀고, 종단협 소속종단을 비롯한 대다수 군소종단의 운영방식이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단위사찰의 이러한 현실적 불균형은 향후 30년을 맞이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더욱 고착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적잖은 사찰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케 한다.

탈종교화 현상 점차 가속될 것
사찰 운영, 사부대중 중심 돼야
'부유하지만 타락 않는' 경영을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출가자 감소 현상은 승단 및 사찰의 공백사태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출가자 급감현실과 위정자를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기독교화는 머지않아 승단의 소멸을 부르고 급기야 전통사찰의 국가관리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단위사찰 내지 교단의 운영방식을 지금처럼 출가양중 내지 비구일중 중심체제로 고집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넷째, 출가자 감소 현상은 승가의 고령화를 재촉하고, 승가의 고령화는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선진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조계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세수 65세 이상이 27%로 이미 초고령 종단에 들어섰거니와,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이후에도 가속화되면서 승려노후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범종단 차원의 재정운용에 심각성을 더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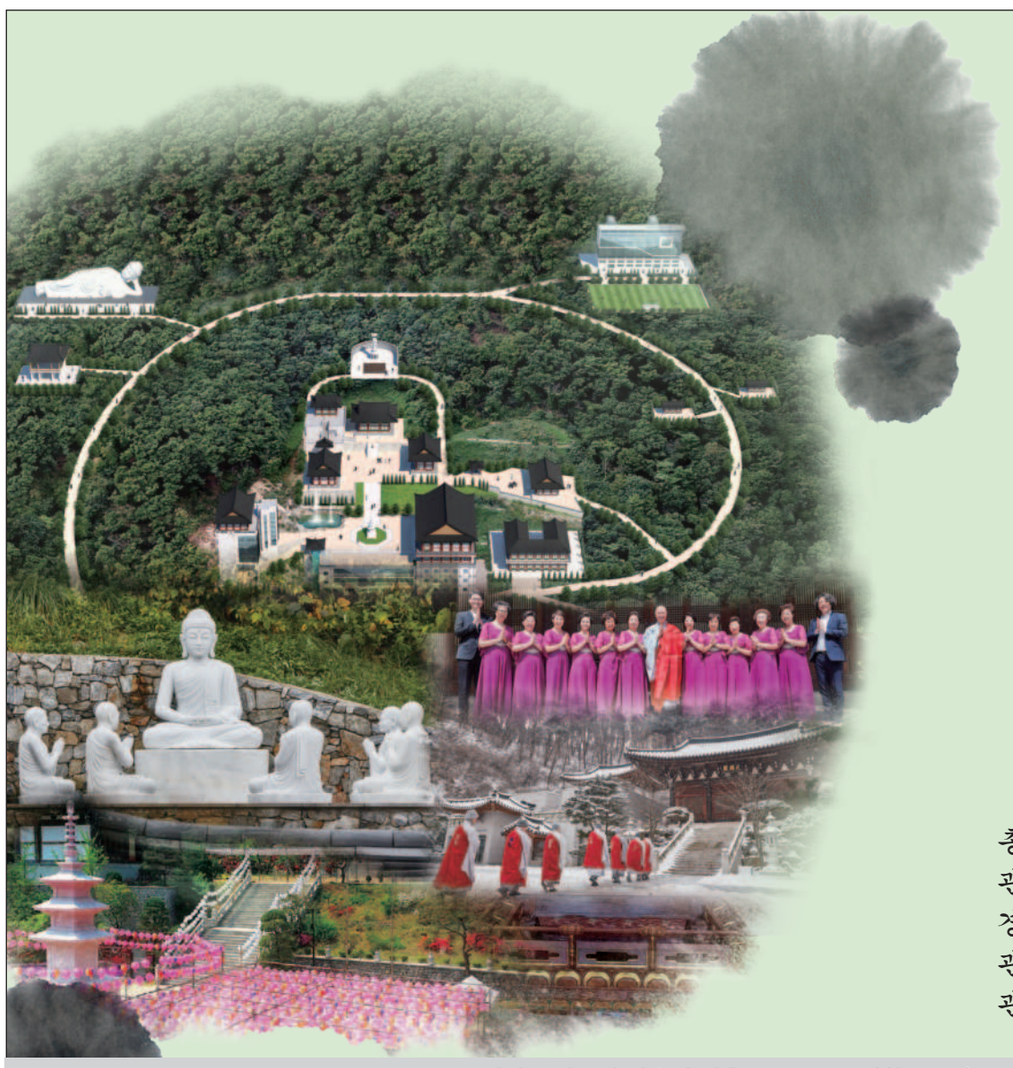
다섯째, 불자들의 탈불교 점증현상은 단위사찰 및 교단의 존립가치와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불교 현상은 문명이기 등 외적환경의 영향을 받는 바 없지 않으나, 실제적 배경은 승가의 범계(犯戒)행위 및 세속화된 물질주의 팽배와 제의신앙(祭儀信仰)에 매몰된 사제화(司祭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붓다담마에 기반한 불교의 정체성 정립과 출가정신의 회복이 촉구되는 배경이 그와 같다.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위기상황을 토대로 살펴본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30년 후 전망은 단위사찰 내지 교단의 경영방식을 '사부대중공동체 살림'으로 하루빨리 복원하고, 문명이기에 최적화한 인적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적 조건들을 확인해준다.

"이젠 사찰도 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현대 경영학의 핵심기조와 사찰경영의 연구지표를 토대로 '청빈하지만 쇠락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사찰기능의 전형을 정립하는 일은 한국불교의 생명성과 직결되는 막속급호(莫速急乎)의 과제라 하겠다.



하춘생 책임교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대 중 효 성, 일 겸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효 능
최종남, 류기석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2054년 미래 불교를 상상하다

전문가들이 본 한국불교 미래

현실의 깨달음, 온라인서 가능할 것인가

출가 · 승가교육

시대의 변화는 승가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통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은 한문불전을 익히며 예불과 간경, 운력 등이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문불전과 더불어 각종 외국어를 교육하며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등의 원전도 배우고, 외전(外典)이라 하여 멀리하던 철학과 과학 등의 분야도 유명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들으며, 기존보다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행과 정진의 깊이가 보다 심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발전은 출가자의 역량을 확대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불교가 가지고 있던 고착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불교의 수행이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바로 온라인과 AI(인공지능)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두 화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큰 변화를 한 번 경험했다. 바로 법회의 온라인화이다. 현재도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사찰이 법회와 불교대학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찰을 찾는 신도의 수를 한때 크게 감소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법회에는 영상과 소리만 있을 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감동과 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불교의 각종 법회에 많은 사람이 직접 발길을 하여 오프라인에서 불교를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 AI 발전, 승가교육에 영향
法의 깊이 갈구하는 수행자 늘 것
오프라인 승가교육, 꾸준히 이어져야

이는 승가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행자나 사미·사미니의 교육자료로 인터넷 강좌를 제공한다. 이는 여러 이유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수행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수행에 대한 갈증을 더욱 크게 만들고, 소통의 부재가 다시금 교육기관을 찾게 하고 있다. 이럴 때 교육기관에서는 오프라인에서만 전해줄 수 있는 수행과 교육을 보다 견고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의 30년은 온라인 교육에 의한 갈증이 훨씬 깊어질 것이다.

손쉽게 접하는 편의를 찾지만, 오히려 사람간에 전할 수 있는 법의 깊이를 부족하게 만들어, 수행자가 다시금 수행도량을 찾게끔 만들 것이다. 최근 출가자 수가 감소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럴수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닦을 수 있는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불교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발전했고, 사람이 사람에게 법을 전하였기에 이러한 오프라인의 수행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더욱 간절해지고, 원류에서 그 법이 더욱 빛날 것이다.

그리고 AI의 등장은 인간이 그동안 도달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한 AI가 초월적 지식과 모습으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피로함을 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AI와의 공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깊이 성찰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AI가 30년 뒤엔 어떤 발전을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압도적인 발전 속에 인간은 과연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불교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던져준다.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불교의 시작점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이 화두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닦은 수행과 거기서 얻어진 법은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전해줄 것이다. 오프라인과 사람에 의한 승가교육과 수행은 자연스레 30년 뒤에도 사람들이 불교를 찾게 할 것이고, 불교는 그 시대의 발전을 품은 채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근원적 질문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제시하며 그곳에 그렇게 불교로서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현재 청년포교 성공해야 미래 있다

전법포교 분야

30년 뒤 한국불교의 전법포교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인구 및 종교성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세기적 변화이면서 종교의 흥망과 성쇠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며 20~30년의 한세대 내에 일어나는 각종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인구의 증감과 및 종교성의 변화는 세대별 종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사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30년 뒤에 종교 활동의 주류는 현재의 2~30대 들이다. 그들이 5~60대가 될 때 종교인구의 중심세대가 되며, 이들의 종교성과 종교활동이 종교인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30년 뒤의 전법교화는 현재의 2~30대의 연령층의 종교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2~30대는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종교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체험에 관심이 많고, 명상을 이해하고 실참해 보려는 욕구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상당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험을 했고, 직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세대에 속한다. 이들 세대는 결혼하는 비율도 낮아졌으며,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들 세대는 출가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출가자가 급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 종교활동 주류는 '현 2030'
불교문화체험, 명상에 관심 높아
기술 발전 인한 변화 적응 필요

이러한 경향은 30년 뒤의 한국불교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출가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신규 출가자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문제를 전문포교사들을 양성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포교사들을 계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30년 뒤에는 소수의 법력을 갖춘 훌륭한 스님들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다수의 전문포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시기를 지나면 출가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중산층을 구성했던 전문직업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의사, 교사 등에서 인력감소가 나타나는 반면에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 세대가 지날 때 까지 불교가 문화와 수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출가체험을 해보려는 젊은이들도 나타날 수 있다.

전법교화 분야에서는 문화포교와 수행포교가 활성화되고 사이버 사찰과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스님들을 통한 설법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것이다. 불교의 각종 경전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누구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재가불자들 중에서 교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와 연계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사찰관리·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찰 관리 로봇, 경전의 내용을 검색하고 해설해서 응대해주는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용도 30년 후에는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불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을 활용해 신행활동을 지원하는 본사급 사찰들도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사부대중일동

- 영축불교대학 운영
- 현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의 어린이 교육기관 대자유치원 운영
- 보현의 집 무료급식 시설 운영

www.jungbupsa.or.kr
정법사TV 바로가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추산동) 전화 055) 246-8393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해남사에서는 금강경독송기도를 통해 원을 성취하고 무량수 부처님을 친견하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드는 환희로운 경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금강경)
21일×21독 독송 정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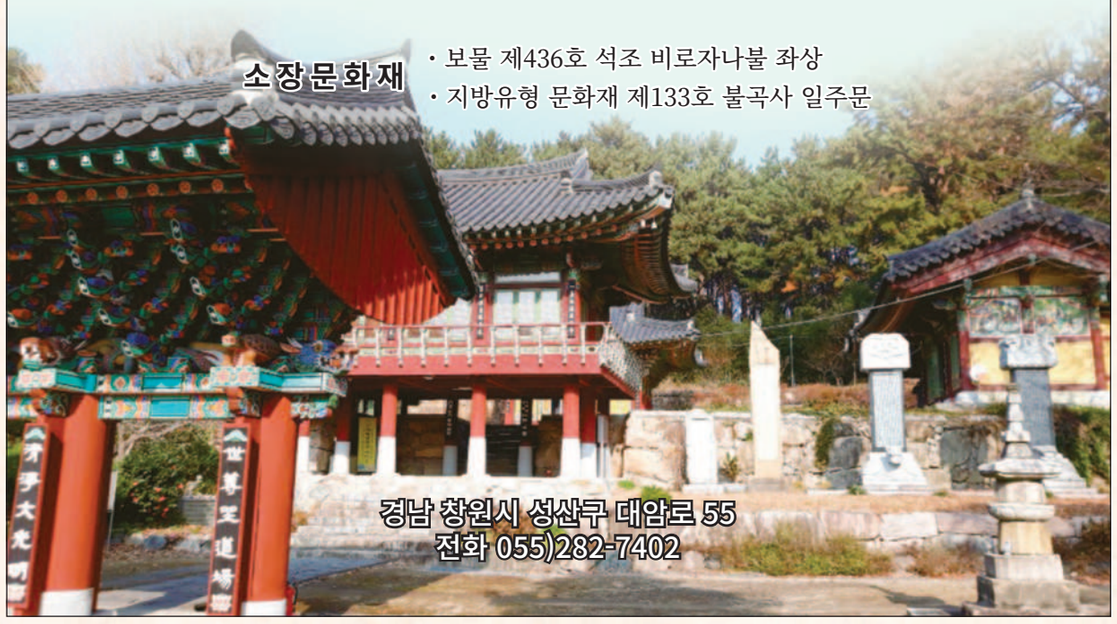
입재 : 2024년 10월 23일
회향 : 2024년 11월 13일
장소 : 해남사 설법보전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13,
052)211-3340 / 10-7450-3340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회주 **눌암 지정**
주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사단법인)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

고문	**눌암스님 대원스님**
자문	**지용스님 혜학스님 지광스님 원주정사**
회장	**혜원스님**
상임부회장	**대활스님**
부회장	**화산스님 혜진스님 정일정사 이영수**
이사	**덕진스님 지선스님 지륜스님 범일스님**
감사	**본명스님 대연스님**
총무부장	**남수스님**
교무부장	**효암스님**
홍보부장	**법일스님**
문화부장	**우용스님**
조직부장	**우진스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성수빌딩6층
tel:052)266-3318~9 www.ubcf.net/ubcf48@hanmail.net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동국발전 불교중흥’ 성취, 진력 다하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동국대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를 기록했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단과대학, 대학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목표로 동분서주하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있다.

돈관 스님은 ‘소통형 리더’다. 이사장 취임 직후 돈관 스님은 전국 각지의 캠퍼스, 병원, 학교 기관과 산하 학교를 다니며 소통했다. 심지어는 전기 안전 관리,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지하공간까지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 30년 동안 기계실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30년을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사장스님이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취임식을 대신해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찾아가는 취임식’을 한 결과는 기관별 소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니 기관별로 소통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동국’이라는 이름의 원팀이 된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잡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립학교 정체성을 바로 세운 결과물 중 하나가 전 단과대학, 대학원 등에 불교동아리를 창립한 것이다. 이들을 통합한 ‘불교학생연합’이 발족했다. 이전까지 동국대 불교동아리 회원이 2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돈관 스님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학부생이 1만4000명, 대학원생 4000명이고, WISE캠퍼스가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2000명입니다. 총 2만8000명이 동국대의 재학생인데 올해 초 학내 불교동아리 인원을 파악해 보니 200명 정도 되더군요.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80명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중심 도량이 돼야 한다.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설립을 시작했을 때 ‘두 달만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서원을 세워 시작하니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부터 5월 11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총 14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고, 이는 일반대학원, 듀이카로도 이어졌다.



돈관 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캠퍼스에 15채, WISE캠퍼스 6채, 듀이카에 1채, LA캠퍼스에 1채, 현재 23채의 큰 도량이 지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등회 제등행렬에 동국대 청년불자 2000명이 연등의 의미를 나누며 행렬을 장엄했습니다. 최근 학교 곳곳에서 스님들에게 합장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사장으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지어진 23채의 도량이 잘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의 전법 역량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지난 9월 24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영캠프’였다. 이날 2500여 학생들은 수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돈관 스님은 ‘영캠프’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번 영캠프는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족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주도했는데 이를 통해 ‘힙한 불교, 젊은 불교’의 이미지를 구현해냈습니다. 무엇보다 25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오계를 수지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큽니다. 현시대 흐름에 맞춘 한글 칠정례를 올리고, 2500여 명의 청년들이 계를 받아 지니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죠.”

‘3천 대학생 불자 양성’ 발원

23개 불교동아리 창립 견인해

영캠프 통해 2500명 수계받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신설해

사찰–재학생 연결 장학 신기원

“등록금, 취업 걱정 없게 할 것”

이 같은 전법 역량 결집의 원동력은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원력으로 2021년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활동에 있다. 이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원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제2 건학’의 기치를 세우고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이 동국발전에서 시작되고 동국의 발전이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학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 건학’을 선언하고 3년 동안 이뤄져 온 건학위원회의 활동은 동국대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이루기 위해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제도를 신설했으며, 처음으로 교내 취업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신설된 장학제도 중 눈길을 끈 것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다.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다. 1개 사찰마다 연간 10명의 지역 인재(동국대 재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불교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포교와 장학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로 시작해 지난 10월 2일 남해 망운사까지 총 84회의 장학금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학생 이외에 추가로 총1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6~7월에는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회원에게 일일이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는 월정사, 통도사 등 교구본사부터 조계사, 봉은사, 흥천사, 수원사, 원법사, 칠장사 등 지역 사찰들까지 전국에서 동참했습니다. 특히, 8월 퇴임을 하면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기금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에 쾌척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죠.”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시작된 ‘JOB & CAREER FESTIVAL’ 취업박람회도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JOB & CAREER FESTIVAL’ 취업박람회는 2022년 처음 시작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자승 대종사가 발원한 ‘취업 걱정 없는 대학’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첫 해에만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공기업, 스타트업, 불교기관 및 단체 등 다수의 업체가 참가했고, 올해에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총 123개 기업이 참가했다.

“우리 동국대의 ‘JOB & CAREER FESTIVAL’은 학생의 취업을 위해 모든 동국가족이 동참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동국대만의 대표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말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을 통한 불법홍포에 여념이 없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한 돈관 스님은 ‘동국발전 불교중흥’의 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뜻을 힘줘 말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동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자승 대종사는 이를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원력으로 내보이신 것입니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화두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모든 불사들이 원만히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 언론들도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라는 불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스님**

사부대중 일동

마음공부를 힘들여서 하라는게 아니라
자기 근본이 있으니 그대로 믿으라는것이다.
- 대행선사 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재단법인 정토마을

- 정토마을 간월사
- 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 마하보디교육원
-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KTCARI)
- 정토마을 청주 수행센터
-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이사장 능행스님

문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종무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상륜덕화사

법화원도회
법화경독송회

주지 **묘혜일스님**

사부대중 일동

양산 하북면 기청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부산 동래구 만덕고개길 335-30
전화 051-553-3663

재)대각문화원

밀양 영산정사

주지 **영봉 법웅**

신도회장 송한기
관음회장 전옥이
지장회장 신순덕
신도회총무 조혜진
사 무 장 능인행

세계최대 황금와불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로 233(서가정)
전화 055-356-0181, 010-3417-5008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대한불교한마음 조계종 종도들이 현대불교신문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최고원로의장 무량사(석홍섭)
원로회장 약사암(석수오)
원로위원 천흥사(석대몽)
총무원장 석법경
총무국장 천운사(석법성)
호법원장 동국사(석원명)
승정원장 수불사(석원명)
문화원장 제화선원(석덕고)
감찰원장 (석법진)

각교구 지원장
대원정사(석대원) 도림사(석혜통) 보문사(석무오)
광 엄 사(석법현) 청수암(석청암) 천흥사(석대몽)
여해선원(석여해) 심원사(석원목) 문수암(석성오)
원 정 사(석월안) 팔영암(석무착) 석불암(석길현)



종도일동합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 보우 국사 선양, 韓 불교 뿌리 찾는 불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룬 불교 종단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거론되는 종단이 ‘태고종’이다.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하며, 파사현정의 불교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있다.

상진 스님은 2023년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하며 ‘대내외 소통’을 이어갔다. 지방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 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모로코 강진 때에는 가장 먼저 애도문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화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10월 2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지난 1년을 “총무원장으로서 활동을 4년은 한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만큼 격무의 연속이었다는 의미다.

“저는 일신상의 명예를 위해 총무원장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종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총무원장 선거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잘못됐던 사안들이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변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종도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종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대외 위상 강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인재 영입’을 꼽았다. 실제로 상진 스님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 이 역시 앞선 태고종 집행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보였다. 종단 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 총무원 주요 소임을 맡도록 한 것도 주요했다.

“태고종 종도스님 중에는 좋은 능력을 가진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 인재들을 등용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저는 태고종이 한국불교 최고 종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재가 종무원들도 이 같은 희망과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최근 태고종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이다. 지난 7월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진 스님은 1년 간의 성과 발표 대신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준비됐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전면 수정해 반대운동 전개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립 반대 기조도 ‘전면적 반대’로 확대됐다.

결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8월 22일 태고종 총무원을 찾아 태고종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이 주도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의 1차 결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태고종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진 스님은 “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이 ‘협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망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송현공원 아닌 서울 어느 곳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취임 1년간 종단 위상 강화 매진

‘이승만기념관 반대 운동’ 이끌어

11월 방중… 중국불교계와 세미나

석옥청공–태고보우 법맥 조명나서

“태고 보우, 한국불교 종조” 강조

‘육바라밀’ 실천하면 갈등 사라져

“언론도 불자… 불법홍포 매진을”

상진 스님은 이승만기념관을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를 통해 불교계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내홍으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 스스로의 노력과 동력을 가질 수 없게 했죠. 그리고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한국불교 종단 중 잠재력이 가장 큰 종단임을 자부한다. 태고 보우 국사로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는 종단이며, 전통 유·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님은 종단의 법통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태고종 종보인 한국불교신문에 태고 보우 국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연재되고 있으며, 매년 태고 보우 국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다례재와 문화축제를 운영 중이다.

태고 보우 국사의 ‘태고암가’를 비롯한 선양을 위한 노래를 제작 중이며, ‘태고문화예술상’ 제정·운영 계획도 갖고 있다. 오는 11월 말에는 중국불교계와 함께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석옥 청공(1272~1352) 선사는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임제종 적통을 이었습니다. 백운 경한(1299~1347) 선사도 1351년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인도 선승인 지공 스님(?~1363)에게 사사 후 1352년 귀국했습니다. 태고 보우 국사가 불조의 정법을 고려로 가져옴에 따라 한국의 선법(禪法)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됐던 정법안장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고로 뿌리를 잊은 국가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불교 종조는 바로 ‘태고 보우 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고 보우 국사가 범불교적으로 선양돼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여지듯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스님에게 불교적 해법을 물었다. 이내 상진 스님은 ‘육바라밀행’을 해답으로 내놨다.

“모든 문제는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분별이 끊어진 지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강조하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행이 필요합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을 통해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 무분별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살행이란 지혜에 의거한 자비행이죠. 국가든 개인이든 분별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인터뷰 말미, 창간 30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에 덕담을 요청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법홍포에 매진하는 불교계 언론에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태고종은 불교계 언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모두 ‘정론’이라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가십성 기사나 불필요한 종권 다툼 기사보다는 호법과 호교를 위한 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 께 가 는 길 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055)585-5300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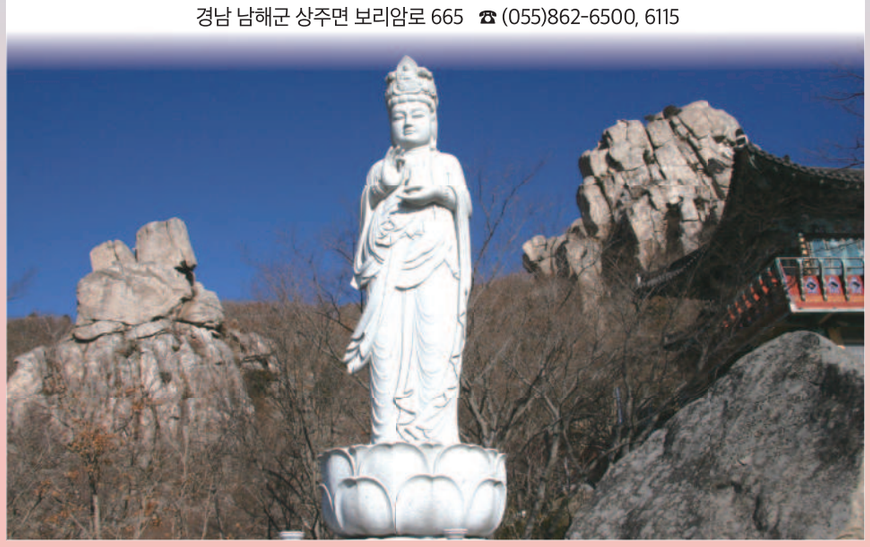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제13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경쟁보단 독창적 생각이 ‘화합’ 이끕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9월 18일 만장일치로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은 회장 임기 4년 중 이제 막 1년을 보냈다. 총무, 교무, 도감 노전 등 10여 명의 소임자스님들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상주하며 회관을 ‘화합의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광용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파악을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익혔습니다. 바로 부처님 연기법을 배운 것이죠.”

인터뷰에서 광용 스님은 지난 1년을 차근차근 되짚었다. 기억에 남는 사업과 활동 가운데 하나로 ‘4대 강원 순례’를 꼽았다.

스님은 지난 4월 공주 동학사승가대학, 김천 청암사승가대학,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을 차례로 방문해 학인스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3대 집행부 핵심 기조인 ‘화합승가 구축 및 비구니 승가의 정체성 확립’의 일환이다.

광용 스님은 “한국불교 비구니 승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인스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반대로 학인스님들에게 전국비구니회의 활동과 가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이와 함께 비구니계의 큰 별이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과 승가대학을 이끌고 있는 스님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수서경찰서에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도울 법당 ‘불심원’을 개원한 것도 큰 성과다. ‘불심원’은 여유공간 부족으로 기존 법당이 사라진 지 5년 만에 다시 일궈낸 소중한 도량으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가 든든한 수호신장을 맡았다. 새 경승실장이 된 광용 스님은 경승실 불사를 위해 법룡사 사부대중과 불사금 모연에 나섰고 소중한 삼보정재로 불단을 장엄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칠 수 있었다. 법당 개원으로 수서경찰서 불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광용 스님은 “오랫동안 지역사찰과 인연이 없던 수서경찰서가 비구니스님들의 원력 아래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치안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거점도량이 사라진 5년 동안 회원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신행단체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새도량을 중심으로 회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법룡사청년회를 창립한 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다. 2030 청년불자들이 도반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광용 스님이다.

“청년은 미래, 꿈, 희망, 용기, 에너지와 함께 고뇌와 불안 등이 공존하는 존재이지만 부처님 법이 있고 스승이 있고 불심과 발심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부처님 법,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청년회에 대해 “우리는 판을 깔아주고 장소를 제공할 뿐”이라는 광용 스님은 “청년 법우들이 신앙과 수행이 겸비된 진정한 불자로 성장하도록 탁마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비구니회관 법룡사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화합은
> 모든 승가 구성원들의
> 실천이며
> 존중, 보살행으로
> 수행의 시작이자
> 마지막”

이 밖에도 비구니회가 올 3월 비구니, 우바이가 함께하는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를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 비구니 승가 위상을 높이고 여성불자에게는 새로운 수행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출범부터 화제를 모은 수행결사는 최근 하반기 입재를 하고 결사에 들어섰다. 부처님법을 배우며 간화선과 걷기 명상 등 수행법을 체화하는 시간. 광용 스님은 성심으로 수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하는 비구니, 우바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 찬다.

광용 스님이 이날 인터뷰에서 ‘콕 찝은’ 1년 간 활동들의 중심에는 ‘화합’이 있다. “화합은 승가의 시작이자 미래”라고 강조한 스님은 “〈열반경〉에도 화합해 모이고, 화합해 돌아가고, 화합해 승단의 일을 처리하는 이상 쇠퇴함은 없다고 했다”면서 “화합은 모든 승가 구성원들의 실천이며 존중, 보살행으로 수행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화합’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광용 스님의 설명이다.

인터뷰에서 스님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에게도 화합을 강조하며 “경쟁을 말라”고 당부했다. 기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인해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기사를 배출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것이 스님의 조언이다. 스님은 “경쟁보다는 독창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면 건강한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론 본연의 자세인 정론(正論)과 불자로서의 신심(信心)을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간 30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에게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광용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을 생각하면 포교 신행 전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서 “단순한 기록을 넘어, 불교신행과 또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광용 스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전달해온 현대불교신문이 있었기에 많은 현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현대불교신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와 수행을 전달하고, 불교의 지혜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2007년 동대학원 불교학과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 제12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94년 서울 영등포구에 대림포교원 개원, 2010년 마포구에 성림사를 건립했으며 마포구청 공무원 불심회 창립과 불교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지역포교에 진력했다.



전국비구니회의 노력으로 5년 만에 새단장한 수서경찰서 ‘불심원’. 9월 개원식에서 광용 스님은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치안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창립한 법룡사청년회는 2030 청년불자들이 도반과 함께 스스로 모여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비구니, 우바이가 함께하는 수행결사는 비구니 승가 위상을 높이고 여성불자에게는 새로운 수행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출범부터 화제를 모았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실 정암 세연
회주 학농 장윤 주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사부대중 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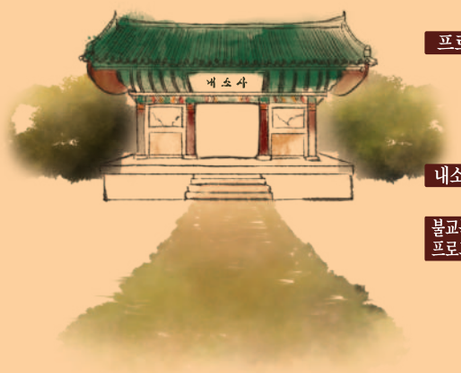
내소사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국보_내소사 고려동종



2024 내소사 산사음악회

11. 2.(토) 오후 2시 / 부안 능가산 내소사



프로그램
· 산사음악회:오후2시
· 불교문화체험:오전11사-오후5시
· 지역주민공예체험:오전11사-오후5시

내소사홍보
· 내소사템플스테이:오전11사-오후5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 전통차 체험
· 합장주 만들기
· 민화 손거울 만들기

문의 063.583.7281

함께하는 아티스트


미스트롯 김태연


4인조 록 밴드 로맨틱펀치


전문타악그룹 얼쑤


가을을 노래하는 통기타 박강수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내소사 ■후원 부안군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보물407호 천안삼태리마애여래입상
보물지정 60주년 기념

BTN 라디오 공개방송

제8회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태학사 가을음악회

2024년 10월 26일 [토] 오후 2시
태학산 자연휴양림


별사랑 양지원 윤준협 이하윤

주최 | 태학사 | 주관 | BTN 라디오

후원 | 충청남도 · 천안시 · BTN · 천안농협 · 청당동SM스마트치과 · 사진작가 양현모 · COMMU DESIGN STUDIO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각원사불교대학

조실 경해 법인
주지 지산 대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안서동 171-3)
전화 041)561-3545 팩스 556-1425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년고찰 경허대선사 수행도량

구절산 구절암 구 룡 사

주 지 진명

사부대중 일동

매년10월 구절초축제

구절초진액, 구절초 조청 판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봉입동로 846-40
전화 : 041)841-8838 www.ruryong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다라니수행정진도량

쌀바위전설

천 태 산 나한도량 동 혈 사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동혈사길77 전화 041)854-2855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태국사원 붓다라마

주지 찌라싹



사부대중 일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698-1 연락처 : 0108098595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0-5(4층) 연락처 01080985926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소통으로 신도 조직화 건실히 이루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재계순위 17위인 중흥건설 부회장이자 대우건설 회장. 지난 10월 1일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정원주 회장의 세간에서의 직함이다. 중앙신도회장 취임 직후인 10월 10일 대우건설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정 회장은 소탈하고 검박했다. 무엇보다 ‘산’과 ‘불교’에 대한 애정이 집무실 곳곳에 묻어났다. 느림보 거북이 단장으로서 2022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완료한 기념 사진이 집무실 한켠에 걸려있고, 책상에는 대찰(大刹)에서 봄직한 커다란 목탁이 놓여 있었다.

불교와의 인연 역시 ‘산’과 연결된다. 어린 시절 기도 연등을 달기 위해 사찰에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종종 산사를 찾던 것이 나이 들어 등산을 하면서 사찰 참배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불교와도 가까워졌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등산을 하면 꼭 산사와 산내 암자들을 찾게 되더군요. 그렇게 찾은 사찰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불보살님께 기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불교방송 운영에도 참여하고,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서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동산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자연스럽게 찾아 온 것 같아요. 제 삶에 스며든 것이죠.”

불자로서 한국불교 장자 종단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정 회장은 “감동,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과 임무가 있음을 안다”며 말을 이었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 속에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국난극복에도 앞장서왔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위안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불교는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인류 평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죠. 그에 걸맞는 기념행사와 사업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절에 중앙신도회장으로서 해야할 일도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단이나 함께하는 신도회 임원들에게 누가 되거나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 회장은 회장 당선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법·포교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불교에 스며들었던 자신의 경험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약속이었다.



정원주 회장은… 1968년 광주광역시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일고등학교와 호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동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장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흥주택 건설현장을 누볐다. 2014년 BBS 광주불교방송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경제분과 수석부회장, 2024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중흥그룹 부회장, ㈜헤럴드 미디어 그룹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대우건설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사찰에 갔던 기억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는 것에 거리감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화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필수입니다. 근엄한 분위기의 사찰에도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경내에 만들면 신도들이 절에 올 때 자녀, 손주들과도 편하게 함께 올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조계종은 내년 중앙종무기관 개편을 통해 기존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된다. 중앙신도회도 종헌기구로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정 회장은 중앙신도회 제28대 집행부 주요 사업 계획으로 △조직 및 법령 정비 △신도 단체간 협력 시스템 강화 △선명상 대중화 사업 동참 △청년 포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조직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1일 제28대 회장으로 취임
“후회하지 않는 활동할 것” 소감
내년 70돌 신도회, 중앙조직 정비
“중앙이 살아야 추진 동력 살아나”
“‘인연’ 중요시…소통으로 이끌 것”
진우 스님에게 ‘도해’란 법명 받아
등산 애호가…山寺 찾아 신심 고양
“불교와 함께 성장하는 언론 되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역시 불합리한 법령 및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흩어진 조직들의 관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몇몇 교구본사에는 신도 조직이 없어 새로 구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직능조직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되고 위축됐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 조직이 살아야 여러 사업 추진 동력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삶에 있어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김홍빈 대장과의 인연을 보면 알 수 있다. 정 회장은 김 대장의 후원회장이 된 후 그와 함께 2016년 낭가파르바트, 2017년 로체, 2018년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했고, 2021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74m)에서 전해진 김 대장의 비보 후에는 상주 역할을 자임하며 5일간 상가를 지켰다. 이후에도 김 대장의 기록집 〈김홍빈 희망을 오르다〉 출간에 참여했고, 그를 기리는 추모사업회인 (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조직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정 회장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사나 모든 단체는 함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만 단체나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죠. 중앙신도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중앙신도회 실무를 알긴 어렵습니다.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신도회에서 오래 활동한 임원들이 더 잘 알겠지요. 저는 낮추고 소통하고 경청할 뿐입니다. 10월 26~27일 중앙신도회 임원들과 교구신도회 임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인도순례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신도 조직을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건설사업가로서 정 회장은 해외 건설 수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형 신도시 스타레이크시티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캄보디아로도 사업 영역 확장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 법명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의 ‘도해(渡海)’입니다. ‘고해의 바다인 향수해를 건너 번뇌를 벗어난 수미산에 이르라’는 의미라고 스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사업을 하면서 ‘이젠 해외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를 자주 나가 사업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해’라는 법명이 또 다른 의미로서 저에겐 뜻깊게 다가와서 좋아합니다.”

“시간 날 때면 사찰에 가서 주변의 안녕을 기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정 회장은 경영 중 어려움과 마주하면 진우 스님이 제안한 선명상을 하며 감정의 진폭을 줄인다.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진우 스님께서 ‘쉘 패스(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 선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기에 힘듦도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좋아해서 생활화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환호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불자가 되는 과정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창간 30주년을 맞는 본지에 축하 인사와 격려도 전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활동력이 있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가는 향후 30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현대불교신문의 사시처럼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한국불교 위상, 여성불자 ‘뚝심’이 한 몫했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2년 6월, 비가 쏟아지는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전국여성불자 1080인 발기인 참여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창립됐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여성불자 모임의 탄생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창립과 함께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종단 대표 포교단체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여성불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평생을 다도교육에 일력하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각종 불교단체의 수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만장일치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기대는 더욱 커졌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교구조직과 직능조직으로 구성됐다. 창립과 함께 교구단위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는 전국여성불자회’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 수행, 가정, 평등, 문화, 봉사, 전법’을 키워드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국여성불자회는 말그대로 ‘부지런히’ 일했다. 나 자신과 뭇생명을 쓰다듬는다는 의미의 ‘쓰담순례’를 연 4회 각 교구여성불자회 주관으로 진행했다. ‘푼다리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하고 회원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신년하례 음악회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내 안의 음악풍경’을 주제로 한 신년하례의식과 명상음악회는 회원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단위인 만큼 교구별, 소모임별 활동도 활발하다. 제23교구 관음사여성불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통한복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서울지역 회원들로 구성된 ‘메타프랜즈’는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법당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전통매듭반 수업을 운영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의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불교에서 여성 불자가 갖는 의미와 비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불교 1700년사에서 여성불자 비중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불교가 융성할 때도, 탄압 당할 때도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모습을 ‘뚝심’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한국불교의 위치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뚝심’ 덕분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 상승과 사회진출로 인한 양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가정에서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역간 또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안에서 부처님 씨앗을 찾아내고 또 그 씨앗을 키워 꽃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부처님 품 안의 안식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불자의 역할이겠지요.”

김의정 회장의 불자로서 뚝심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가족여행에서도 꼭 사찰에 들렸다. 지금도 김 회장의 집 거실에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이 남아 있을 정도다.

“조계사에서 매일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에 어린 저에게도 조계사 나들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조계사와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계사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듯 다녀요.”

김의정 회장은 조계사 신도회장을 지냈고 이후 여성 최초로 전국 신도를 대표해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전국여성불자회장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강조했다.



김의정 회장은… 제23~24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세계의 茶人’ (2008) ‘서울시 전통예술인상’ (2008) 등을 받았고 ‘옥관문화훈장’ (2011)으로 추서돼 불자로서, 그리고 차인으로서 업적을 쌓았다. 사진=김민재 기자



2022년 6월,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식. 조계종을 대표하는 여성불자 모임의 탄생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단의 크고 작은 불사에도 적극 동참한다. ‘천년을세우다’ 불사에도 1000만원을 쾌척하고 불사 원만성취를 기원했다.



창립 후 조계사 맞은 편에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개소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젊은 시절부터 절에만 가면 1080배를 거뜬히 해냈다는 김 회장은 “여든 중반이 된 지금, 삼배하기도 벅찬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물질과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서 “물론, 그것도 옛날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대표 다인(茶人)인 김의정 회장은 “매일 아침 한잔의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수행”이라면서 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우리 차 복원의 선구자인 어머니 뜻을 받들어 한국 차문화 발전의 견인차이며 종가(宗家)인 명원문화재단을 이끌어 온 지 수십년이다. 그간의 원력은 한결 같다. 바로 우리 전통다도 맥을 이어 나가고, 우리 차문화 발전에 힘 쓰는 것이다.

김의정 회장은 “차는 전문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문화로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절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차와 함께 다례라는 독특한 차문화를 지켜오고 있지요.”

김의정 회장은 “차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오는 한국 전통의 종합 생활 문화예절로 차문화를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며 “두 손으로 차를 올리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나를 남을 배려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차가 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수년전부터 김의정 회장은 다도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인성교육에 다례(茶禮)만한 것이 없다”면서 “우리의 전통다례를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알리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해야할 일”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의정 회장은 아름다운 회향을 꿈꾼다. 김 회장은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면서 “전국여성불자회장 자리도 마지막으로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닿을 때까지 함께하려 한다”면서 “본래 업인 궁중다례를 이어가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일도 마지막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김의정 회장은 창간 30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에게 희망의 덕담을 선사했다. 김 회장은 “2009년 중앙신도회장이었던 당시,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를 건냈던 기억이 있다”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 서른살 청년 언론이 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노력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자들에게 건강한 소식과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정론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 교무 보문 스님 교리 정유 스님
주지 정원 스님 사회 대련 스님 템플 정륜 스님
원주 연심 전법사 포교 추파 스님 복지 마정 스님
재무 연정 전법사 문화 정진 스님 기록 정운 스님

· 신도회장 | 윤금상 청리
· 부회장 | 박선자 보리행
· 총무 | 김경은 금강행
· 사)붓다 총괄이사 | 현진 스님
봉사단장 | 이재현 수암
관리 | 허영자 정아 전법사
홍보 | 손채림 정이 전법사
해외 | 노은지 정무 실장
국내 | 성명선 정야 전법사
총무 | 정해자 혜안행
해외 봉사단장 | 황동현 청야
·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 천순희 천수행
· 교정 봉사단장 | 박교상 청준
· 소년원 어머니회 | 김도운 청운
· 군부대 봉사단장 | 변상경 청진
· 붓다복지관 관리단장 | 김동우 청화
· 갑룡장학회 후원회장 | 동상진 도경

· 재)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 사) 한지문화법인 장엄
· 사) 착한벗들(다문화지원센터)
· 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사) 진안군관광협의회
· 사) 전북녹색환경연합회
· 사) 전북자원봉사센터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붓다복지센터
공유폰 010-4335-7807 전화 063-433-0012 팩스 050-4775-7807
홈페이지 http://www.maisantapsa.com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진 성	종회의장	법 전
부 원 장	현 진	수석부의장	혜 신
총무·문화국장	법 진	부 의 장	청 명
재무·홍보국장	지 오	종 회 의 원	혜 정, 진 수
교무·복지국장	법 성		법 원, 원 경
규정·사회국장	법 정		현 담, 혜 성
주 재 기 자	문 선 희		정 유, 혜 일
			보 경, 도 흥
			원 만, 혜 월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 산(작법보유자)	조교수	법 정	감 사	법 원, 원 경
부 회 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사무처장	법 진		
교육원장	도 정	재 무	지 오		

전북 영산작법보존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4호 | B13 | 전면광고

흰 천에 묻은 얼룩은 눈에 띄지만
악인은 검은 옷에 먹물을 칠한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평
- 건평 : 6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30억
- 위치 : 경남
- 부지 : 1000평
- 전각 : 대웅전 외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승계협의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千만원 안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30평
- 건물 : 3동
-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간, CCTV 4대
- 빈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6000만원

010-4416-020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 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반지하
- 규모 : 6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포 교 원 안 내

- 지역 : 부산 구포재래시장 신협옆
- 상가 : 2층건물50평 옥상포함(단독)
- 법당 : 삼존불, 지장, 신중, 칠성, 영단, 장엄불상200불, 법당범종, 좌대법고
- 시설 : 친견실, 편백객실, 공양간, 수련장
- 주차 : 1층(포함) 유료 주차장운영
- 전세 : 2천/50 시설 : 3천5백 (1.2층포함)

납자 10년째 수행 중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심 속 산사에서 법다운 법 전하는 수행납자를 기다립니다.

010-4535-2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산신 · 용왕 · 영가단
- 방1 · 화장실 ·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월35
- 각종 기물 보시

010-4327-8688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74-93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 특징 : 70년샘물, 진주남강수도 겸용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범어사역 5분)
- 3층 33평 (보 3백, 월 35만)
- 삼존불법당, 주방, 방, 베란다, 에어컨
- 시설완비 (바닥 전체 도시가스)
-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305-4366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황등 장원사
- 규모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방4 거실2, 산신각 5평
- 외부 : 5층탑, 미륵불, 약사불, 용탑
- 법당부지 300평(개인) 대지 300평+전400평(캠코)
- 가액 : 1억 50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찰 인근 주택 안내

김제시 금산면 모악14길 43 금산사 인근 주택

- 임야 177평, 대지 195평
- 안채 28.3평, 창고17.6평
- 추가 활용 부지 약 1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5008-1120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 10분 거리(안강 방향)
- 부지 : 약250평(*국유지 200여평 밭 사용 중), 명당 중의 명당으로 신도걱정 안함
- 법당 : 8각 판넬 법당, 요사채 2동, 사무실 1동, 정남향
- 특징 :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1급 청정수(가재들 삶), 2차선 도로에서 산 속으로 100m 끝집, 버스(20분), 정류장 절에서 150m, 수도, 전기, 500m 슈퍼, 차로10분 대형슈퍼2개, 15분 동대병원, 20분 경주중앙시장
- 가액 : 3.5천, 부동산 사절, 문자로만

010-9388-0215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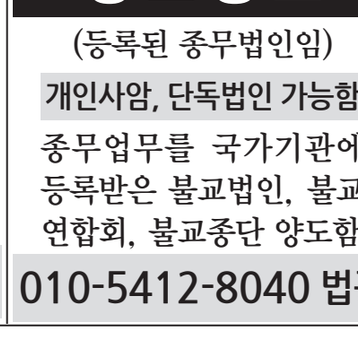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졌다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퇴마 잘하는 주지스님이나
퇴마 보살 구함

010-8298-3802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명상 활용해 현대인 요구 부응 콘텐츠 만들어야”

뉴미디어 시대와 불교 언론

디지털 시대에서 불교 언론의 역할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종이 신문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때 아침마다 사람들의 문 앞에 놓이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던 그 종이는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종이 신문은 속절없이 휩쓸려 존재감을 잃었고, 그 자리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으로 대체됐다.

뉴욕대 교수이자 저명한 미디어 이론가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디지털 혁명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영구적으로 변화했다. 종이 신문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같은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3년 미디어 리서치 기관인 피유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뉴스 소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 응답자 중 70% 이상이 뉴스를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이 신문을 주요 뉴스 소비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젠 디지털 혁명 시대다. 버튼 한 번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전 세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한다. 온라인 기사와 SNS 속 짧은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깊이 있는 분석보다 간결한 정보를 선호한다. 이러한 변화에 언론 매체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강점은 신속성과 접근성

디지털 미디어의 강점은 신속성과 접근성이다.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하고,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다가간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사는 자사의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형식과 배포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독자들이 스크롤을 멈추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짧고 임팩트 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용 영상 제작에 무게를 두는 것도 그 이유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뉴스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해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춘 뉴스를 접하도록 안내하고, 뉴스레터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맞춤 광고나 구독 모델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가 2023년 발표한 ‘인터넷 광고 수익 보고서(Internet Advertising Revenue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광고 수익은 2023년 7.3% 증가해 2250억 달러에 도달했다. 특히 동영상 광고는 10.6% 증가해 521억, 소셜 미디어 광고는 8.7% 성장해 649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도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다. 언론이 더 이상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콘텐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미디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뉴스는 ‘읽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SNS 속 짧은 헤드라인으로 뉴스 소비
디지털 플랫폼 강화해 맞춤 정보 제공
불교는 단편적 소비 환경과 맞지 않아
본래 깊이와 본질 잃어버릴 우려 때문
심리 안정 콘텐츠로 새 돌파구 찾아야

플랫폼 최적화 콘텐츠로 소비패턴 겨냥

디지털 시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단순히 온라인 기사에서 더 나아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 기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도 새로운 뉴스 전달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SNS에 기반한 짧고 강렬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정보의 전달 역시 간편하고 즉각적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언론사들은 각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CNN과 BBC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짧은 뉴스 클립부터 심층 분석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인스타그램과 엑스(옛 트위터)에서 스토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JTBC 뉴스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뉴스 채널 중 하나다. 실시간 스트리밍과 짧은 뉴스 클립으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 한겨레도 SNS를 적극 활용해 기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뉴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한겨레21〉과 같은 다큐멘터리 형식 콘텐츠를 운영해 독자와 소통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SBS의 경우에는 ‘SBS 뉴스’ ‘SBS NOW’와 같은 플랫폼을 제작해 젊은 층을 타겟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일보도 PRAN(프란)이라는 자체 뉴스 브랜드를 만들고, 기자들이 크리에이터로 직접 참여해 뉴스를 친근하게 풀어냄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시도했고, 뉴스1은 카카오톡과 협업해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블룸버그(Bloomberg)와 알자지라(Al Jazeera)는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글로벌 뉴스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불교계 난항 속 BTN · BBS는 지속 성장세

메이저 언론들이 디지털 전환과 뉴미디어 활용으로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한 반면, 불교계 언론은 전반적으로 뉴미디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불교계 언론이 전통적으로 종이 신문이나 월간지 형태로 교리와 가르침을 전달해오면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더딘 편이다. 대부분의 불교계 언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플랫폼 확장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가 요구하는 특성과 현재 환경의 차이도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지적된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방법은 긴 호흡의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에, 단편적 소비를 요구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저 단순화하거나 축약된 방식으로 불교를 전달하면, 본래의 깊이와 본질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불교 매체는 불교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법문이나 교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명상, 수행 등 체험형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BTN불교TV다.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불교TV가 제작하는 스님 법문·인문 강좌·문화 다큐 등 대표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체 콘텐츠 및 쇼츠 영상, 라이브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들의 선호 콘텐츠와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해 콘텐츠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맞추어 업로드하는 등 시청자와 소통에도 힘써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BTN불교TV의 유튜브 채널은 올해 2월 종교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유일하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11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BBS불교방송도 라디오·TV프로그램을 유튜브용으로 다이제스트해서 업로드하는 등 공격적인 디지털 전략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53만명에 달한다.

전문인력 양성이 과제…결국 본질은 ‘팩트’

불교계 언론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가속화 하려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전문 인력 양성이 급선무다. 또 2025년 트렌드로 ‘무해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저자극 콘텐츠를 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무해력’은 현대인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자신에게 유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선명상, 절, 마음챙김 등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 언론은 이를 적극 활용해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질인 ‘팩트’가 흔들려선 안 된다. 조회수를 좇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결국 뉴스 브랜드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불교 언론, 그 자체가 포교…가르침·문화 전파가 핵심”

뉴미디어 시대와 불교 언론

전문가가 본 불교 언론의 뉴미디어 접근 방향



그림 · 김상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중 매체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와 미디어, 특히 불교와 언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조차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종교와 미디어를 ‘성(聖)’과 ‘속(俗)’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뒤르켕이 말한 바와 같이, 종교는 성스러운 영역, 미디어는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배제해왔다.

그러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 종교를 접하는 가장 쉬운 창구는 바로 미디어다. TV, 라디오, 신문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물론, SNS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종교 콘텐츠가 쉽게 소비되고 있다. 미디어와 종교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현시대에는 불교와 언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미디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종교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미디어 속 종교’다. 이는 저널리즘 미디어가 종교를 어떻게 다루고 재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미디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하며, 종교 기관과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적 시각에서 감시한다. 때로는 탐사보도를 통해 부패나 비리를 폭로하며, 종교의 공공성과 책임을 묻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는 종교를 다룰 때 종종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 왔다. 사회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 종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종교는 사회적 불합리와 병리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 제시되며,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출할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로 재해석된다.

두 번째 관점은 ‘종교 속 미디어’로, 종교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조명한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미디어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오랜 세월 종교는 미디어를 통해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불교의 금속활자 발명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불교 경전을 보다 널리 전파하기 위한 금속활자는 메시지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 성경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처럼 종교 미디어는 종교가 더 많은 신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불교 언론 정체성 확립과 불교 저널리즘 정립

불교 언론이 뉴미디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언론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일반 언론이 뉴스 전달과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는 반면, 불교 언론은 불교 문화와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불교적 가치와 철학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정신적 교훈을 제공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불교 언론이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언론은 이러한 차별화를 바탕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불교 저널리즘 관점에서 불교 언론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짜 뉴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절에도 불교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들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훼불 사건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러한 사건들은 불교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훼불 사건과 비교해 보면,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불교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더욱 교묘하고, 영향력 또한 훨씬 크다. 바로 가짜 뉴스가 그 주범이다.

세속 언론과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호법신장 · 기록관 · 포교사 역할해야

‘모바일 퍼스트’ 개념 도입이 중요

가짜 뉴스는 단순히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왜곡시키고, 불교 신도들과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언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팩트체크 기능의 강화다. 디지털 시대에서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 속에서 불교 언론은 불교를 비방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반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검증 과정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진실을 보호해야 한다. 즉 디지털 호법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교 언론은 불교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인의 뉴스와 정보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검색 엔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해당 미디어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색 엔진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정보가 바로 불교 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교 언론이 디지털 불교 문화의 기록관으로서, 대중과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불교 언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포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언론의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디지털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디지털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자료는 마치 도서관의 서재에서 아무도 읽지 않은 책과 같은 신세가 된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대중의 손에 닿지 못해 잊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불교 언론이 보다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포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교 언론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불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저널리즘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제 설정 기능이다. 불교 언론은 의제 설정을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불교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해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불교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불교 언론의 변화 방향

뉴미디어 시대에서 불교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모바일 퍼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불교 언론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콘텐츠가 필요하며,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전달 방식을 통해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한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연계도 필수적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단순히 제공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SNS와 검색 엔진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불교 언론은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불교적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콘텐츠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과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더라도, 불교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핵심이다. 신속하게 전달되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기술과 데이터 저널리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AI 기자 도입을 통해 기사를 자동화한다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들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위주로 간단한 쇼츠를 만든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교적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불교 언론 환경에서도 변화 가능한 부분으로 불교 언론이 뉴미디어 시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이라 하겠다.

불교 언론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공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업적 미디어가 수익을 목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불교 언론은 불교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불교 언론을 세속 언론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불교 언론을 운영하는 종단이나 관련 기관들은 포교라는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불교 언론이 뉴미디어 시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종 정 경보 혜만 총무원장 대풍 범각
원로원장 성도 종회의장 도정
승정원장 도신 사정원장 도경

전종도 일동



중앙총무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표전화 : 055)352-3104
부산총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표전화 : 051)892-5000/Fax : 051)462-6652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재) KUmuda 문화재단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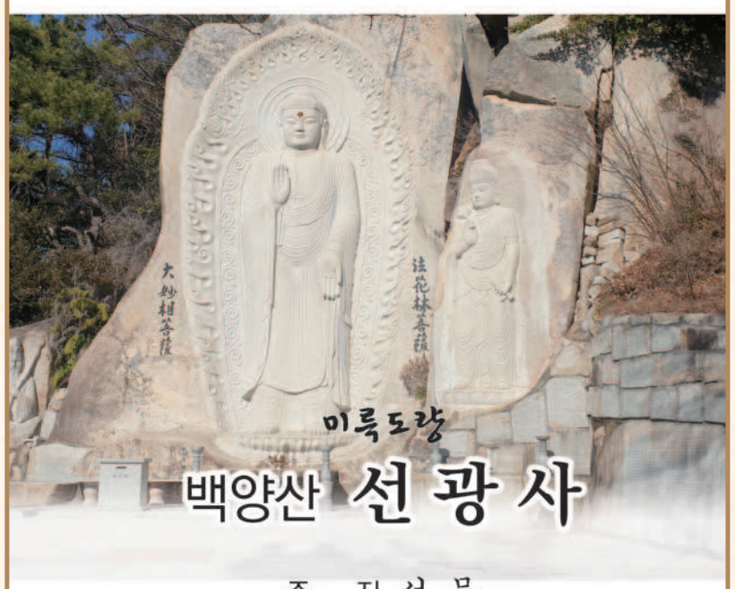


대운사와 KUmuda 문화재단은
전통불교문화로써 새로운 현대불교문화를 만들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무 이은영 사무국장 이미희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1-1번지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회 주	선묵고담
주 지	법 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총 무 원	수 진(법사)
	정정자
신도회회장	이상봉
신도회부회장	백현일 장문정
신도회총무	남현주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마도 최초의 한국사찰
황룡사

주 지 寶慧 보혜
원 주 慈悟 자오
회 장 박문환



対馬市 上対馬町泉 1460-1
대마도시 카미쓰시마마치 이즈미 1460-1
H.P : 010-3704-1681 E-mail : ghgo5991@daum.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재 무 경증
포 교 경소
연 수 경상
교 무 경무
사 회 경동
복 지 경지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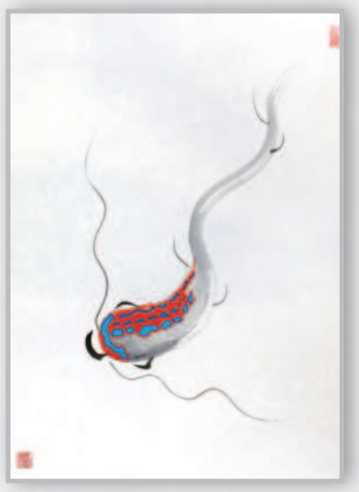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선서화갤러리법당
을파소관음사

운곡스님 合掌
H.P : 010-2458-0860



YouTube 운곡스님의 점찰이야기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정재원
수석부회장 이복덕
다 도 김미규
불무도 박성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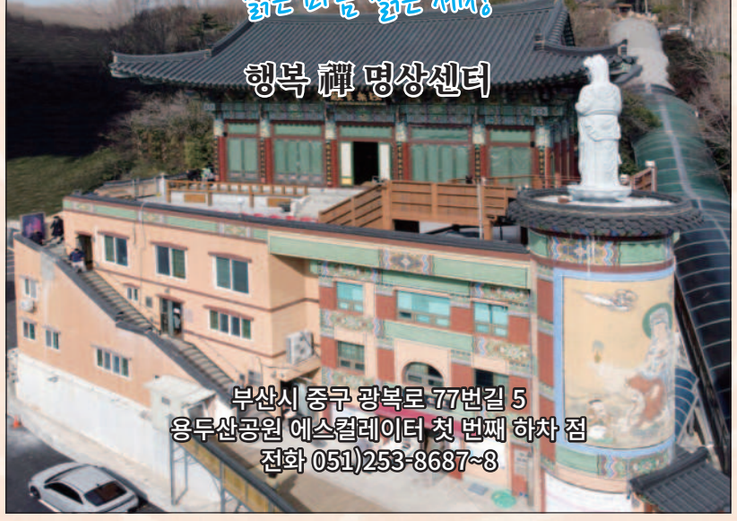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현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행복 禪 명상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사용 최대한 줄이기
비닐 봉지 대신 방수망이나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발우 공양식으로
음식물 덜어 먹고 남기지 않기

미소원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장바구니 꼭 들고 오세요.
드릴 것 없으면 "행복"을
듬뿍 담아 드릴께요^^



사)미소원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실천을 함께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光明寺
부산 금정산 광명사

주 지 변춘광

정 기 법 회 매월 2주 오전 11시
법화산림법회 매월 1주· 3주 일요일 밤 9시
생활명상법회 매월 4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명사 법화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전화 051)581-1331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⑳ 전북 고창 선운산 도솔암



▶한줄 요약
힘든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는 미륵불은 먼 미래의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함께할 부처님이다.

미륵불상 전설에 희망을 품다

미륵삼존이 바위를 가르고 나타나다

고창 선운산 도솔암은 선운사에서 3km 정도 되는, 산 깊은 곳에 있다. 도솔암에 다다를 때쯤 쭉 뻗은 나무 한 그루가 오른쪽 길옆에 있다. 소나무의 한 품종인 반송으로서 높이 23m이며, 지상 2.2m 높이에서 2개로 갈라져서 자란다. 수령은 600년이라 추정하고 있다. 옛 지명인 장사현에서 유래하여 장사송(長沙松)(천연기념물 제354호)이라 이름하며, 진흥굴 앞에 있어 진흥송이라 한다. 장사송의 존재를 모르면, 진흥굴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어쩌면 장사송은 진흥굴을 안내한다고나 할까.

도솔암은 백제 때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창건 사실은 알 수 없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선운사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진흥굴은 그 창건 설화와 관련 있다. 신라 진흥왕(재위 기간 540~576년)은 왕위를 버리고 이 굴에 와서 기도하였다. 이때 미륵삼존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에 진흥왕은 크게 감응하여 선운사, 도솔사, 중애사 등을 창건하였다. 진흥굴은 미륵삼존이 바위를 가르고 나온 굴이라 하여 열석굴(裂石窟)이라 부른다.

선운사 편에서 언급하였지만, 당시 이곳은 신라와 세력다툼이 심한 백제의 영토였으므로 신라의 왕이 이곳에 사찰을 세웠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단 선사의 창건을 정설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현재 도솔암에서는 선운사 등을 창건한 검단 선사와 참당암을 창건한 의운 선사를 산신각에 모시고 있다.

산신이 되어 중생과 함께하리라

도솔암에서 지나치기 쉬운 전각 가운데 하나가 산신각이다. 지장보살을 모신 도솔천내원궁 뒤쪽에 있기 때문이다. 내원궁 뒤로 가지 않는 한 존재조차 모를 수 있다. 그곳에는 여타의 산신각과 다른 인연을 가진 산신이 있다.

오늘날 산신각의 산신은 대부분 할아버지 산신이다. 간혹 지리산 쌍계사 삼성각처럼 할머니 산신도 있다. 또는 마곡사 국사당, 구룡사 삼성각처럼 할아버지 산신과 할머니 산신이 함께한다. 이러한 차이는 예로부터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문화 변화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처음에는 산신은 여산신이었다. 산은 모든 생명을 품어주고 생겨나고 자라게 한다. 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중생을 안아주는 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산신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후 음양 사상에 따라 여산신의 남편을 설정하여 부부 산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르자 남존여비 사상에 따라 여산신은 남산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옛날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는 호랑이였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산의 군자(산군山君)'라는 아부성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호랑이는 곧 산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에 할아버지 산신이 되었다.



고려 초 모신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명치 정도에 돌로 막은 뒤 백회로 봉한 자국이 있는데 경전 등을 넣고 봉한 복장감실로 추정된다.

바위 가르고 깨어난 미륵삼존
도솔암 수호한 검단 · 의운 선사
인도 나한 가피로 사라진 이무기

이처럼 산신은 산이나 호랑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도솔암 산신은 다른 인연이 있다. 이 산신들은 바로 절을 창건한 검단 선사와 의운 선사다. 이분들은 열반한 뒤에도 불법을 지키고 전하며 중생과 함께하는 도솔산 산신이 되겠다고 발원하였다. 그리하여 산신이 된 두 스님을 모시고 있다. 선운사 삼성각에는 기존 산신과 함께 두 분의 산신이 있다.

주민을 괴롭히는 이무기를 물리친 나한

도솔암은 본래 상하 동서남북 여섯 도솔암이 있었다고 한다. 한때는 도솔산 중사(仲寺)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는 세 개의 이름으로 불렀다. 상도솔암, 하도솔암, 북도솔암이다. 상도솔암은 지금의 도솔천내원궁이고, 하도솔암은 마애불상이 있는 곳이며, 북도솔암은 지금의 극락보전 자리다. 지금은 모두 합하여 하나의 암자로서 도솔암이라 이름하고 있다.

도솔암 순례길에서 도솔천내원궁 뒤에 있는 산신각을 놓치듯이, 마애불상 옆에 있는 나한전 이야기를 놓치기 쉽다. 물론 지금은 나한전 앞에 안내문이 있어 관심을 보이지만. 나한전은 나한, 즉 아라한을 모시는 법당이다.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고서 더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 진리와 함께하기에 응진(應眞), 그리하여 응당 공양받을 분이기에 응공(應供)이라 한다. 불보살님의 모습과 달리 나한은 스님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피가 가장 빠르다는 속설이 있다. 누구 마음은 누가 알듯이.

전설에 의하면, 마애불상 옆으로 산길을 5분 정도 가면, 용문굴이라는 큰 바위굴이 있다. 이곳에 이무기가 살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인도에서 나한상을 모셔와 이곳에 안치하였더니, 이무기가 사라졌다. 그 후 이무기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무기가 뚫고 간 바위 옆에 나한전을 건립하였다. 그때 모신 나한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현재 나한전에는 1910년 용문암에서 모셔온 16나한상이 있다.

미륵불상 배꼽서 세상 바꿀 비결 손에 넣다

도솔암은 미륵신앙과 관련이 깊은 도량이다. 지금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은, 56억7천만 년이 지나면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 밑에서 깨닫고 미륵부처님이 된다. 그 뒤 3회의 설법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미륵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을 구제하려 미륵보살이 하생하기를 바라는 미륵하생신앙,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미륵상생신앙이다.

56억7천만 년 뒤에 오실 미륵불을 뵙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선업을 쌓아 도솔천에 올라가면 된다. 사후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 옆에 있다가 미륵보살이 내려올 때 함께 지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처음 법회에 참석한다. 이것이 미륵상생신앙이다. 반면, 56억7천만 년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니, 지금 당장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륵하생신앙이다. 이러한 미륵하생의 염원은, 소박한 마음으로 뒷산 바위를 통해 미륵불을 찾기도 하고, 이 땅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륵불을 찾기도 하였다.

그 미륵불 중 한 분이 도솔암 마애불(보물)이다. 고려 초에 모신 것으로 추정하며, 사람들은 미륵불로 여긴다. 마애불 명치 정도에는 돌로 막은 뒤 백회로 봉한 자국이 있다. 불상을 조성한 후 경전 등을 넣고 봉한 복장감실로 추정한다. 이 감실과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선운사 석불 배꼽에는 신기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한양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벼락살도 들어 있어서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830년 어느 날 전라감사 이서구가 마애불이 있는 곳에서 서기가 뻗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주저 없이 가서 배꼽(감실)을 열어보니, 책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두려워서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는 글귀만 보고 책을 다시 넣고 봉해버렸다. 지금 마애불 가슴에 있는 회칠이 이때 흔적이라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 때 실제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1년 7개월 전인 1892년 8월 어느 날, 손화중을 비롯한 동학교도 사이에 그 비결을 꺼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모두 벼락살을 걱정하였다. 그런데 도인 오하영의 '이서구가 열었을 때 이미 벼락이 쳤으므로 벼락살은 없어졌다'라는 말에 실행에 옮겼다. 선운사 스님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 일로 주모자 등은 강도 및 역적죄로 사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매를 맞고 풀려났다. 그런데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민초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 세상을 바꿀 비결을 손에 넣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실제 이 사건 이후 손화중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힘든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는 미륵불은 먼 미래의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함께할 부처님이다. 그런데 경전에는 미륵불은 평화로운 세상에 오신다고 하니, 필자는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그 세상이 바로 미륵세상이리라.

〈불교학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엄회

회장 묘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청년불교, 새중불교, 한글불교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선광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공	종회의장 : 도원	총무원장 : 대호
사정원장 : 혜담	포교원장 : 정오	유천도원장 : 지완
교육원장 : 금봉	비구니회장 : 보원	불무도원장 : 보각
법사단장 : 대공	학술원장 : 운곡	사무총장 : 자륜

총무부장 : 송담	총무국장 : 지명	교무부장 : 동진	교무국장 : 덕일
재무부장 : 도경	재무국장 : 도현	교육부장 : 인봉	교육국장 : 도운
기획부장 : 청봉	기획국장 : 법봉	사회부장 : 송인	사회국장 : 혜안
규정부장 : 해원	규정국장 : 중광	포교부장 : 보광	포교국장 : 용성
홍보부장 : 송하	홍보국장 : 대향	문화부장 : 지홍	문화국장 : 서진
의전부장 : 은산	의전국장 : 선재	봉사부장 : 법수	봉사국장 : 명진

총무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433번 가길 82-3(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⑳ 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

차도 음식…과하면 해롭다

차 마시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이다. 이때가 되면 물의 기세도 맑고 활기가 있어 온전한 차 맛과 향기, 기운을 드러낼 최적의 상태가 된다. 차의 정수를 즐길 수 있기에 차 모임도 활발해진다. 특히 사계절에 따라 차의 맛과 향, 기운이 변화무쌍한 풍미는 드러낸다는 점에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차의 오묘한 세계를 즐길 수 있다.

예로부터 차는 소쇄하고 담박한 본성을 지녔기에 세속적이거나 사치한 사람보다는 검박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정신 음료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차의 특성상 맑고 바른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가 아무리 사람에게 유용할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하는 문제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특히 차의 신묘한 세계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차는 자신의 기량을 다 펴내는 특성이 있어서, 좋은 차와 물, 물을 끓이는 정도, 다구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특히 마시는 차의 양의 조절 능력은 차의 이로움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에 핵심이 된다.

결국 차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해롭다는 것이다. 과다한 차의 양, 농도의 적절성은 차를 즐기는 이들이 꼭 알고 지켜야할 핵심 사항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차의 해로움을 지적한 것은 당나라 사람 기무경(朞毋暌)이다. 그에 대해 당나라 유숙(劉肅)의 〈대당신어(大唐新語)〉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우보궐 기무경의 성품은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가 저술한 〈다음서(茶飮序)〉에서 (차가)막힌 것을 풀어주고 뚫어 주는 것은 잠시의 이로움이 잠깐은 좋지만, 기를 수척하게 하고 정기를 범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가 되는 것이 크다고 하였다.(大唐新語言 右補闕朞毋暌 性不飮茶 著茶飮序曰 釋滯消壅 一日之利暫佳 瘠氣侵精 終身之害斯大)

위 인용문에서 차를 마시면 사람의 정기와 가운을 쇠락시킬 수 있다는 기무경의 견해는 당대(唐代) 사람의 차에 대한 인식인데, 이는 차가 음성 식물이므로 냉한 성질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차와 생강을 함께 끓이는 탕법이 있었던 것은 차의 냉기를 중화하기 위한 것이다. 8세기 육우(陸羽)가 제다법과 탕법을 정립한 이후 차의 냉기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되어 차에 소금을 넣는 탕법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차를 찌거나 덖을 때 불의 정도를 조절하여 차 싹을 잘 익히는 방법이 정밀해졌고, 뜨거운 물에 차를 다리는 탕법이 보편화되면서 차의 냉기가 점차 극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좋은 차 잎은 차의 진정한 맛과 향색의 토대가 된다.

차의 양 등은 茶人 지킬 핵심사항
明代 주문보, 하루 6번 차를 마셔
차 이로움 만끽하며 85세까지 장수

명나라 사람 문용(聞龍, 1551~1631)은 차를 즐기는 회수(回數)를 정하는 것이 차를 즐기는 묘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다전(茶箋)〉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소동파(소식)가 말하기를 채군모는 차를 좋아했지만, 늙고 병들어 (차를)마실 수가 없게 되자 어느 날 차를 끓이고 완성하였다라고 하니 후인이 웃음지을 만 하다. 누가 천년 후에 같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내가 일찍이 지은 시에서 이르기를 나이가 들면 탐심이 더욱 심해지는데 비위가 차져 양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차를 끓여 버리고 완상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이에 오랜 벗 주문보를 생각해 보니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찻잔과 화로에 불 피는 것을 어는 때라도 잠시 폐한 적이 없었다. 차를 마시는 날은 정기적으로 정해 두었으니 새벽이 밝아올 때, 저녁을 먹은 후, 오전 10시경, 오후 4시 전후, 해가 질 때, 황혼 등 무릇 여섯 차례에 차를 마신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차를 끓이지만 (나는 차를)함께 마시지 않았다. (그의)나이는 85세인데도 병이 없이 마쳤다. 묵은 청복을 심은 것이 아니면, 어찌 온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겠는가. 좋은 것을 보고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은 얻은 것이 이미 많았던 것이 아닐까.(東坡云:蔡君謨嗜茶, 老病不能飮, 日烹而玩之。可發來者之一笑也。孰知千載之下有同病焉。余嘗有詩云:年老耽彌甚, 脾寒量不勝。去烹而玩之者, 幾希矣。因憶老友周文甫, 自少至老, 茗碗熏爐, 無時暫廢。飮茶日有定期:旦明、晏食、禺中、晡時、下舂、黃昏, 凡六舉。而客至烹點, 不與焉。壽八十五, 無疾而卒。非宿植清福, 烏能舉世安享。視好而不能飮者, 所得不既多乎)

문용은 절강 은현(浙江 鄞縣) 사람으로 권문세가였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은사(隱士)로 평생을 보냈다. 특히 시문에 능했던 다인으로, 1630년경 〈다전〉을 저술하여 명대의 차 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문헌을 남겼다.

윗글에 인용된 주문보는 문용의 오랜 벗이라 한 것으로 보아 만명(晩明)시대 문인으로 차를 즐긴 인물로 추정된다. 그의 차 생활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루에 차를 즐기는 횟수를 정해 두고 차를 즐겼다는 점이다.

이는 차를 마시는 양을 조절하여 너무 과다한 양의 차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가 차를 즐긴 시간은 새벽, 저녁밥을 먹고 난 후, 오전 10시경, 오후 4시경, 해가 질 때, 황혼 등 여섯 차례이다. 특히 문용이 주목한 내용은 바로 자신의 오랜 벗 주문보가 늘 차를 즐겼지만, 절제된 음다(飮茶)를 통해 차의 이로움을 만끽하여 85세까지 살면서 심신이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주문보가 자신의 음다 생활의 준직을 지키기 위한 절제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인데, 이는 현대 차를 즐기는 이들이 주목해야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㊵

1. 다음 말씀은 부처님께서 언제 설하신 것인가?

"아난다야, 잘 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① 탄생하셨을 때 ② 출가하셨을 때 ③ 정각을 이루셨을 때
④ 처음 설법을 하실 때 ⑤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해설 : 부처님의 열반유훈인 자등명법등명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불제자들은 무엇에 의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쭈어보자, 부처님께서는 위와 같이 자신 이후 특정인에게 권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제자들 각각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옳은지 판단하여 믿어야 한다는 주체적인 길을 제시하셨다.

2. 경전의 성립과 관련하여 설명이 바른 것은?

① 제2차 결집은 아쇼카 왕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② 제1차 결집에서 편찬된 것은 경장, 율장, 논장 삼장이다.
③ 제1차 결집은 왕사성 칠엽굴에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 진행되었다.
④ 제1차 결집에서 우팔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리의 내용을 암송하였다.
⑤ 대장경은 삼장을 중심으로 집대성되었는데,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다.

해설 : 2차 결집은 대부분의 불교사서가 아쇼카 이전의 사건(불멸 1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1차 결집에서 물리적으로 경, 율, 논의 삼장이 편집되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1차 결집을 전하는 육부의 율장 중 『십송율』을 제외하면 모두 이때 삼장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칠엽굴에서 500명의 비구가 결집을 했다는 것은 대다수의 전승이 인정한다. 하지만 700명, 1000명설이 있는데, 그래도 500인설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는 확실히 바르지 않은 답안이다. 우팔리는 1차 결집에서 교리가 아닌 계율의 내용을 전하였다. 대장경에는 경, 율에 대한 후대 승가의 해석인 논장이 붙어 있기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3.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 연표를 나열한 것이다. [보기]를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굴리시다.
㉡ 수닷따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가 건립되다.
㉢ 사리불(사리뿟따), 목건련(마하목갈라나)이 입적하시다.
㉣ 마하빠자빠띠 등 여성이 출가하여 비구니 승가가 탄생되다.
㉤ 빔비사라왕이 죽림정사를 기증하시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해설 : 부처님께서 사성제 등의 교리를 처음 설하신 초전법륜 이후, 부처님께서 아직 수행자일 적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이 되시면 먼저 자신에게 와달라 요청하였음으로 부처님은 초전법륜 이후 빔비사라왕에게 가셨다. 이에 감격한 빔비사라왕은 최초의 불교사원인 죽림정사를 기증하게 되고, 이런 예에 따라 당시 존재하던 16대국의 왕과 대신들은 앞다투어 부처님과 승가에 사원을 기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닷따가 기증한 기원정사이다. 이후 부처님의 양어머니이신 마하빠자빠띠가 출가하면서 비구니 승가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는 곧 비구니율의 제정과 계율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부처님 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리불, 목건련은 부처님의 열반즈음하여 먼저 입적하게 된다.

4. 다음은 불교의 전개 과정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가) B.C.E 589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성도(成道)
(나) B.C.E 586년 수닷타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를 건립
(다) B.C.E 584년 석가족과 콜리족의 물싸움 해결
(라) B.C.E 582년 친차 여인의 부처님 모함과 비방

① (가) - 깨달음의 핵심은 '무위자연의 도'이다.
② (나) - 부처님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다.
③ (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카필라국은 분단 국가가된다.
④ (라) - 이로 인해 부처님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찍혀 감옥에간다.
⑤ (라) - 친차는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다니던 무서운 살인마였다.

해설 :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은 사성제이다. 석가족의 국가인 카필라국은 부처님의 중재 덕에 콜리족과 물싸움은 해결하게 되나 후에 코살라국에 의하여 멸망한다. 친차는 부처님을 모함하다가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살인마는 앙굴리마라이다.

정답 : 1. ⑤ 2. ③ 3. ④ 4.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
나의 원불도 하나뿐!

거제도 명당에 불교의 세계를 담은 세계건축 명장의 설계와 나만의 도자기 부처님으로 신개념 불교센터 사원을 건립합니다.

창건불사에 인연공덕 지으십시요!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거제도 더 뷰;ㅁ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양정시장 꽃상가 5층)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범어사 방장)

11월 1일 광명진언 천일기도 입재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 기도법회 -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18 양정상가5층 여여선원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⑱ 백거 스님의 '솔잎 칼국수'



▶한줄 요약
솔잎은 과거 수많은 의서와 여러 구황방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물이다. 그중에서도 솔잎 활용의 종합판이라 평가받는 최두익의 찬송방은 '솔잎을 잘게 썰어 물을 부은 후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곡식을 끊을 수 있고 약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솔향…자연이 준 옥빛 조미료



백거스님의 솔잎 칼국수(6인분 기준)

재료 햇 솔잎 300g, 우리밀 가루 900g, 날콩가루 150g, 늙은 호박 반개, 표고버섯 20개, 무 반통, 표고가루, 다시마, 재래식 된장, 천일염

만드는 법
1. 깨끗한 물에 잘 씻은 솔잎과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어 30분간 담가 둔다.
2. 물 600리터에 다시마를 잠시 담가 맛을 낸 뒤 다시마는 건져낸다. 다시마 물에 무, 표고버섯 기둥 20개를 넣고 팔팔 끓여준다.
3. 늙은 호박과 표고버섯을 얇게 채를 썰어둔다.
4. 1번의 솔잎을 건져내어 된장 1TS, 물 1컵을 넣고 갈아준다.
5. 우리밀 가루, 날콩가루를 섞은 반죽에 3번을 조금씩 뿌려가며 치대어 색을 내고, 완성되면 냉동고에서 휴지시켜 준다.
6. 냉동고에서 꺼낸 반죽에 밀가루를 뿌려가며 밀대로 밀어준다. 먹기 좋은 두께가 되면 넓게 펴진 반죽을 접어 칼로 썰어준다.
7. 끓는 채수에 천일염과 된장 1.5TS을 넣고 간해준 뒤, 3번과 면을 넣어 삶아준다.
8. 입맛에 따라 간을 더한 뒤, 면이 다 익으면 그릇에 담아 완성.

인연은 그렇게

"스님, 천천히 오셔도 돼요…."

수화기 너머 힘없는 목소리가 언덕길의 도토리마냥 또르르, 굴러떨어진다.

이상한 일이네.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어서 오라며 씩씩하게 웃던 이가 어찌 이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었을까.

오늘부터 한동안 함께 지낼 젊은 보살님의 전화를 받은 백거 스님의 고개는 갸웃갸웃. 하지만 한참을 달려 마침내 거처에 도착한 순간, 마침내 스님은 전화기 너머 한없이 작아지던 그 목소리의 이유를 알았다. 저 멀리 눈에 보이는 것은 스님의 솜이불. 분명 방안에 곱게 뉘어있어야 할 이불이 난데없이 마당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반쯤은 타버린 채로!

"스님…." 작은 소리로 스님을 부르는 이는 장혜지 씨. 바로 백거 스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이다.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 하지만 가까운 스님의 소개로 인연이 닿은 백거 스님과 혜지 씨는 찬 바람 부는 그 한철을 함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이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혜지 씨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 멀리 까만 재를 홀홀 날리며 누워있는 목화 솜이불의 처량한 모습을 보자 백거 스님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곳은 '만회헌(萬灰軒)'. 일만 만(萬)자에 타고 남은 재의 의미를 더해 이름을 지은 곳, 천 가지, 만 가지 번뇌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집이 아닌가!

평온의 온도

벌써 20여 년이 다된 이야기,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날의 사건은 지금도 웃음이 나는 생생한 추억이다. '만회헌'은 당시 백거 스님이 머물던 수행처로, 지어진 지 100년도 넘은 강원도의 오랜 민가를 잠시 빌려 쓰던 차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스님이 출타하신 사이, 먼저 도착한 혜지 씨에게 날씨가 추우니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머무르라 당부한 것. 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이야!

"한 번도 아궁이를 써본 적이 없으니 그저 장작을 넣고, 또 넣었지요. 한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불을 땠나 봐요.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불 밑이 따뜻해서 발을 넣고 앉았는데, 점점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러나 싶어 이불을 든 순간, 불길이 솟구치면서 와르르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혼비백산하여 사건 현장(?)을 수습했을 혜지 씨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스님은 이날을 떠올릴 때면 그저 웃음부터 나온다.

스님의 귀한 이불을 태웠다는 생각에 내내 미안해하던 젊은 보살의 마음도, 또 타버린 이불이야 뒤로 하고 그 마음을 보살핀 스님의 커다란 웃음도 귀한 것. 덕분에 지금껏 두 사람의 인연은 여전히 '평온의 온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구들장처럼 뜨끈하게, 솜이불처럼 포근하게.

자연에서 얻다

혜지 씨의 취미는 요리. 무엇보다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을 지향한다.

"본래 직업이 건강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몸을 보며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애써 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음식만 한 약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 그대로의 먹을거리를 찾게 되었어요."



솔잎은 칼국수 재료의 주인공이다.

오래전 백거 스님 곁에서 한 철을 보낸 그 가을, 오늘의 주인공인 솔잎 칼국수도 자연의 품에서 찾아낸 귀한 음식이다.

"만회헌 주변에는 잣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솔잎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나 향긋했습니다. 이걸로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국수를 만들었지요."

솔잎은 과거 수많은 의서와 여러 구황방(구황작물과 식용방법 백과)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물. 그중에서도 솔잎 활용의 종합판이라 평가받는 최두익의 찬송방(餐松方)은 '솔잎을 잘게 썰어 물을 부은 후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곡식을 끊을 수 있고 약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생명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신비가 있다. 그리고 순수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이에게 우주는 그렇게 다가가곤 하는 것이다. 자연과 스님의 곁에서 건강한 심신을 얻길 바란 혜지 씨에게, 그날 자연은 푸른 솔잎의 모습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모를 일이다.

솔잎 칼국수의 맛

백거 스님이 계신 제화사(천안)의 공양간이 유독 떠들썩하다. 오늘은 오랜만에 혜지 씨가 솔잎 칼국수를 준비하는 날.

"먼저 조선 솔의 햇잎을 따서 굵은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 놓아요. 그러면 쓴맛이나 송진이 조금 제거되거든요. 그리고 생수, 된장과 함께 갈아 솔잎 물을 냅니다. 반죽은 우리밀 가루와 날콩가루를 섞고요."

우리밀 가루와 날콩가루를 섞는 것도 나름의 비결. 보통의 밀가루보다 소화에 좋고, 특히 날콩가루는 솔잎을 섭취했을 때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는다.

펄펄 김을 내며 끓는 채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면, 이제 밀대로 쓱쓱 밀어 뽑아낸 칼국수를 넣을 시간. 청량한 연녹색의 국수면은 채수 안에서 은은한 옥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솔잎 칼국수, 그리고 혜지 씨가 직접 담은 무장아찌와 고추지. 또 맛있기로 소문난 제화사의 김치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한 상 차림 완성!

채수에 면의 날콩가루가 섞여서인지 녹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이다. 하지만 이 국수의 화룡점정은 역시나 입안 가득 퍼져 나는 솔향.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아까운 귀하디귀한 맛. '00향 첨가'와 같은 꼼수로는 결코 전하지 못할 자연의 힘이다.

푸른 향의 승소

백거 스님에게 처음 '승소'를 여쭈었던 날. 스님은 말보다 환한 웃음으로 답을 전했다.

오래전 만회헌에서의 그 가을, 가마솥에 솔잎 칼국수를 끓여 두 사람만의 조촐한 저녁 공양을 마쳤던 날이다. 우연히 찾아온 지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자, 가벼운 산중 살림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솥에 남은 국물을 '약초 차'라고 둘러대며 주었던 미안한 기억.

하지만 정작 그이는 그 맛에 반해 솥단지를 박박 긁어 남은 국물까지 챙기고, 오히려 얼떨떨해진 스님과 혜지 씨의 웃음이 터졌던 날. 그 가을, 그 푸른 향의 승소.

이후 혜지 씨는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 성장했다. 그리고 백담사 템플연수원장으로 근 20년간 한국 템플스테이 현장의 역사를 일군 백거 스님. 수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참나를 찾는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었던 세월이다. 지금도 잠시 쉴 틈 없이 스님을 찾아와 고민과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들에 지칠 법도 하건만. 되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 참 고마운 분들'이라며 스님은 웃는다.

그런 스님의 곁에서 묵묵히 상을 차리고,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오랜 인연이 있다.

다시 돌아온 계절, 그 바람을 타고 어떤 그리운 내음도 함께 오는 것만 같다. 어딘가 조금은 탄 듯한, 구수하고 푸르른 솔잎 향기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하성전력

전기공사업
전문 소방공사업
일반 건축공사 외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172
전화 : (051)728-5562, 557-5586
팩스 : (051)728-6562, 557-5587
has563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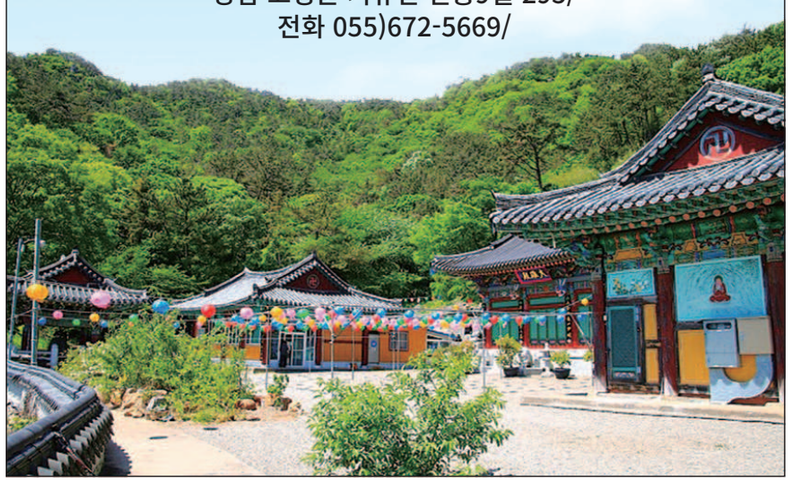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고성 장의사

주지 종묵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9길 295/
전화 055)672-5669/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스님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태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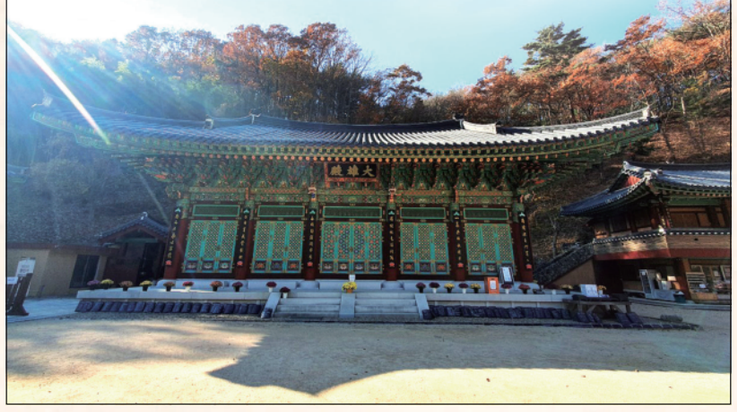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제일선원 내원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무성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스님
신도회장 경성 이상연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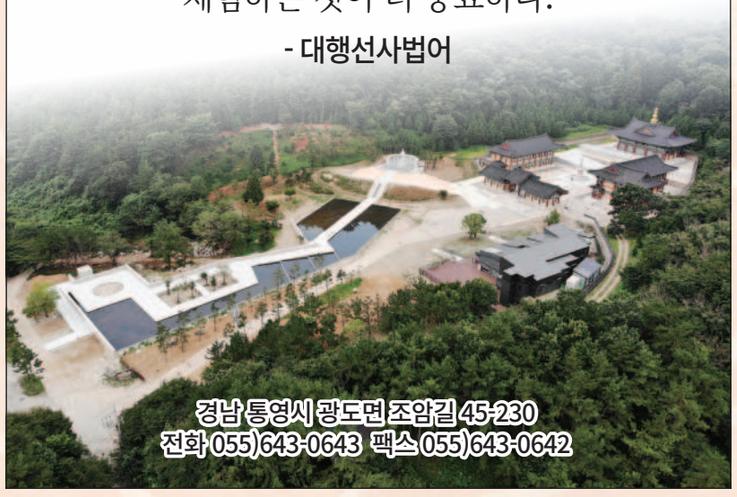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스님

사부대중 일동

백 가지를 아는 것 보다 내가 한 가지를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함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명스님
총 무 영공스님
감 사 정광스님

신도회회장 조용찬 신도회총무 신현숙
신도회부회장 박성하 신도회차장 김성곤

신행단체
공무원불자회 회장 지희선
바웃다합창단 단장 하미옥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보문 지암**

사 무 장 **공덕행** 정토회장 **자현선**
관음회장 **보광명** 관음총무 **대명지**

사부대중 일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21번길 67
전화 055)547.6355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동림선림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 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년고찰

밀양 무舞 봉鳳 사寺

주 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영남루1길16-11
종무소 전화 010-2572-1299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 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청 련 사

주 지 **무영스님**
부 주 지 **성휴스님**
신도회장 **이 판 암**
총 무 **하 주 미**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전화 055)521-2185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 산 사

주 지 **동조스님**

사부대중 일동



국보 비로자나불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hyunbulnews_official SNS '핫스팟'은 어디?



좋아요 29,816개
@hyunbulnews_official @김가령 기자 @김민재 기자

청정 염불수행도량 현지사

영재를 낳아 기르는 관음태교!

관음태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대상
임신 전후의 부부 및 가족
결혼 전후의 남녀

❤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2시
2시간씩 7회 (총 14시간)

❤ 장소
서울 삼성 1문화센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 주관
현지사 관음태교원

❤ 교재 및 수강료
5만원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아이의 행복과
엄마 · 아빠의 꿈을 이루는
가족행복 태교입니다.

관음태교 강의 안내

1회	연애와 결혼 (특강)
	왜 관음태교 인가?
2회	관세음보살보문품 이해하기 1
	관음태교 체험담
3회	임산부의 건강관리 (특강)
	관음태교 어떻게 하나?
4회	관세음보살보문품 이해하기 2
	관음태교 실습 1
5회	음악태교
	관음태교 실습 2
6회	불교적 생사관 (특강)
	태담태교, 공예태교
7회	사찰 힐링 여행
	특별법문 – 행복한 삶

문의 Tel: 02-554-1787

SNS ‘핫스팟’은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 수는 약 1만70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사찰 수에 비해 대중에게 알려진 사찰은 극소수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가 대중의 요구에 적중하면서, 불교를 향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부대중에게 알리고픈 불교와 사찰의 매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無窮無盡)’. 이에 본지는 SNS를 열렬히 탐색, 전국 곳곳의 ‘핫스팟’ 사찰을 찾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편집자주〉

#웰니스사찰

흔한 스포츠가 질렸다면? 강원 낙산사로!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해 여름, 불교계와 ‘Hip’한 스포츠 서핑이 만났다. 동해 앞 낙산사가 템플스테이와 서핑을 결합해 ‘서핑 템플스테이’를 연 것. 143만여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계정 ‘여행에 미치다’가 게시물을 올리며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요즘 불교 나빼고 힙한 거 다 하네!” “내 마음의 파도 가라앉히기 딱인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여름 내내 인기를 구가했다.

등산 초보에서 초고수로… 경기 망월사

등산하기 딱 좋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산사의 전각과 산세가 절묘한 풍취를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도봉산 망월사다. SNS에 있는 망월사 게시물 태그만 2만여 개. 원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망월사를 거쳐 회룡사까지 이어지는 4.6km의 등산로는 약 3시간을 올라야 하는 난코스지만, 망월사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의 아름다움은 속세에서 얻은 피로를 날려버린다.

늘어나는 팔다리, 되찾은 여유, 강원 월정사

삶에 지친 현대인이 찾는 명상과 요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찰이 있다. 산 전체가 불교 성지인 오대산에 창건된 월정사,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로 조용한 인기몰이 중이다. 참가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또 열어주세요_()_” “힘들 때면 월정사 방문한 걸 생각하고 위로받아요” 등의 코멘트를 달아 템플스테이 대기순번을 한없이 늘렸다.

뚜벅뚜벅 전남 화엄사 산속 걸어보자

10월이 되면 가족들과 손잡고 지리산 천년고찰 화엄사로 떠나보자. 화엄사부터 연기암까지 걸으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선선한 산바람을 만끽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가족들과 사이도 돈독해진다.

#뷰맛집사찰

한국 단풍 총 집합! 충북 구인사

50여 동 건물들 사이의 오색빛깔 소백산 단풍들이 뭇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뷰맛집’으로 알려진 구인사는 그 인기를 증명하는 듯 SNS에 3만여 회나 언급됐다. ‘충청북도 단양 가을 여행지 LIST’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이기도 하다.

하루의 끝이 아름다운 전남 규봉암

“규봉암을 보지 않고 무등산에 올랐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노을과 기암괴석을 자랑하는 암자. ‘화순군 규봉암 노을스팟’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로 떠오른 규봉암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았다. 규봉암에서 내려다보이는 화순의 드넓은 풍경과 바로 뒤편의 주상절리 광석대가 절경을 이룬다.

“가을엔 개미취가 주인공” 경북 봉천사

개미취는 작고 여린 들꽃이지만, 이곳에서는 주인공으로 돌변한다. 문경 봉천사의 9월과 10월은 개미취의 연보랏빛에 감싸인다. 탁 트인 전경 뷰까지 힐링이 절로! 보랏빛 바닷물결이 흔들리는 봉천사는 동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하다. 발 딛는 곳마다 ‘포토스팟’이라 개미취가 고개드는 가을만 되면 SNS에도 봉천사의 보라색 향연이 펼쳐진다.

흥룡폭포의 동반자, 경남 흥룡사

SNS ‘좋아요’ 1만 4천 개를 자랑하는 흥룡사 경내에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흥룡폭포가 있다. 양산 팔경 중 하나인 흥룡사는 4계절 내내 절경이다. 더욱 뜨거워질 내년 여름, 쏟아지는 폭포와 친구한 흥룡사에 간다면 더위는 물론 마음 속 번뇌까지 달아날 것이다.

#이색사찰

이거 진짜 금이에요? 서울 수국사

금값 치솟는 요즘 황금으로 칠해진 사찰이 있다? 바로 소원성취 도량 수국사다. 지붕과 초석, 현판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황금색으로 덮여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도심사찰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템플스테이, 명상, 태극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 가능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혹시나 진짜 금인지 뜯지는 말자.

지구 절대 지켜, 경기 상불사

기후 위기가 피부로 다가온 현대 시대, ‘녹색사찰’ 상불사는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보호기지다. 텃밭에서 농약 하나 쓰지 않고 재배한 채소로 만든 사찰음식이 일품. 다회용기로 음식을 나누고 환경법회로 환경보살 되기를 권하는 상불사. 뒷산 정화 활동과 채식권유운동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원+연못+스님=극락, 경남 수선사

정원 하나로 SNS를 뜨겁게 달군 수선사. 주지 여경 스님이 90년대부터 다랑이 논을 사들여 땅을 파고 꽃을 심으며 직접 조성한 정원과 연못은 마치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나무 다리에 틈을 만들어 연꽃 줄기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 자비심까지 느낄 수 있다.

우리 부처님 보러 갈까? 경기 와우정사

사찰에 들어서면 8m에 달하는 황금색 불두가 반기는 와우정사. 와우정사는 독특한 여행 스팟일 뿐만 아니라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떠올라 SNS에서 1만여 회 넘게 태그됐다. 마치 불교 테마파크 같은 이곳은 인도, 미얀마, 네팔, 태국 등에서 모셔온 불상과 인도네시아 향나무로 만든 세계 최대 목불상이 있어, ‘이색인생샷’을 위해 포토스팟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다.

#글로벌사찰

일제강점기의 증인, 전북 동국사

일제강점기 36년의 아픈 역사를 머금은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 군산에 있다. 동국사는 일본 선승불관 스님이 창건, 운영하다가 해방 이후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고 있다. 매년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문화제를 개최하며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바른 역사를 전한다.

여기가 인도인가? 강원 제따와나선원

“무심할 정도로 간결하다.” 한국에서 단 한 곳. 단청 대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사찰이 있다. 바로 춘천 제따와나선원이다. 경내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불교 최초의 사찰 ‘기원정사’를 모델로 인도 유적과 파키스탄 벽돌 30만 장으로 지어졌다. 한국에 도착한 불교 최초의 사찰, 제따와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스리랑카식 ‘큰 절’ 충남 마하위하라

국내 최초로 지어진 스리랑카식 사찰이다. 법당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의 불상까지 모두 스리랑카 전통 양식으로 이뤄졌다. 경내에 마련된 실내온실에서는 바나나, 망고 등 갖은 열대과일을 재배해 운이 좋으면 맛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온실에서 식물과 하나 되는 불교의례도 진행하니 ‘이색’의 끝판왕 아닌가? 아산의 작은 세계, 마하위하라의 문은 열려있다.

한국 속 작은 티베트, 전남 대원사

백제고찰 대원사에서는 이국적인 전경이 펼쳐진다. 한국 속 작은 티베트, ‘대원사 티벳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티베트 회화·조각·경전·법구·민속품 등 총 600여 점의 티베트 유물이 상설 전시돼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울산 백양사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함월산 백양사 주지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대표이사장

묵암 지선 합장

사부대중 일동


함월산 백양사.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67 / 052-243-8712 / 245-8712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 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종도를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10월 13일 창종13주년을 맞아 총본산 동명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서 종정 법운 스님은 원로회 스님들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창종13주년을 맞아 "지혜와 자비로 무명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법문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 **증세**의 **경·중**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염불 인생에도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점점 힘이 들지요! ...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내 귀에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소리비교시 장난감 차이 반드시 확인 (마이크소리 비교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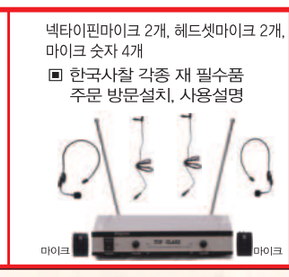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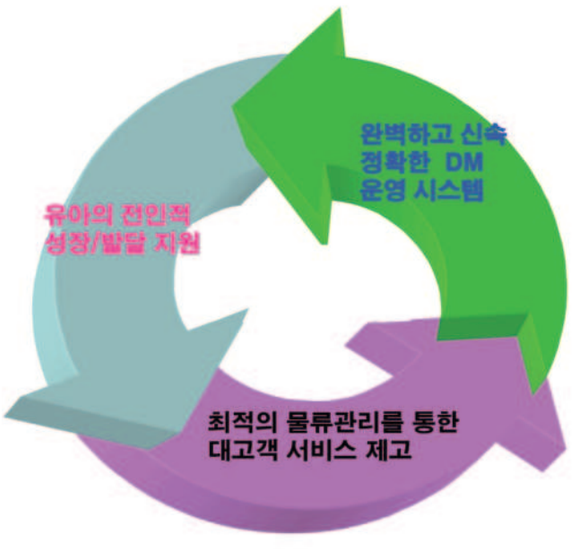

소리 공학박사 박 공 희 대표
직접 방문 설명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생명나눔 가치 전하는 미래 30년의 시작”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미래 30년을 자비나눔으로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 표창을 받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자광 대종사에게 표창장을 전달받는 일면 대종사.


정현숙 마하무용단 단장은 환영사를 대신한 공연을 선보여 행사의 분위기를 띄웠다.

30 생명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⑩

생명나눔 30주년 기념식 현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90년대부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진력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다. 국내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우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사업으로 부처님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쉬지 않고 30년을 달려왔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10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주제로 개최된 기념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걸어온 30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생명나눔과 자비나눔으로 가득 채우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사회 각계각층 불자들과 기증회원, 후원회원 등이 모여 유대를 다지고 미래 30년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역사를 담은 ‘30년사 생명의 빛, 희망의 빛’ 봉정식으로 시작됐다. 일면 대종사, 자광 대종사와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30년이 기록된 기념책자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자비나눔의 미래 만들기를 서원했다.

일면 대종사는 기념사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전했다. 대종사는 “1994년에 틔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작은 불씨는 많은 분들의 따듯한 마음과 관심이 있었기에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지금의 큰 불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축사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화합을 근간으로 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정성을 다한 실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건강한 이들에게 보살행 실천의 길을 열어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눔을 실천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생명나눔 30년 발자취 회고, 자비나눔의 미래 30년 다짐
캄보디아 등 생명나눔 사업 돌입…자비나눔 세계화 실천
“작은 나눔이 큰 나눔으로, 생명나눔 가치 전파 힘쓸 것”

본인 역시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 이식을 받아 제2의 삶을 살게 된 일면 대종사는 “‘남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원을 가슴에 새기고 살며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에 헌신해왔다”며 “오늘 기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30년을 더 멀고 더 넓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0돌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축하하는 인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는 치사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크나큰 사명을 묵묵하게 해온 이사장님과 25만 회원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관음보살”이라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귀하다’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자, 사회의 모범이니 앞으로도 많은 사부대중이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 각계의 축하 메세지도 이어졌다.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각계의 축사가 마무리되고 적극적인 후원과 복지 활동 동참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 표창을 받고 법륜 스님과 심산 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장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어 총무원장 표창, 중앙종회의장 표창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념식의 대미는 ‘생명나눔실천본부 비전선포식’이 장식했다. 주요 내빈들이 무대 위로 올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을 마무리 짓는 손도장을 찍고 새로운 30년을 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기념식에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 신성 씨가 각각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두 가수의 음성공양에 이어 문화공연이 열려 기념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시작으로 생명나눔 가치 전파의 범위를 세계로 넓힌다. 올해 4월 27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했고, 8월 3일에는 캄보디아 따께오 주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국제구호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국제지원 대상국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으로 늘리며 자비나눔의 씨앗을 널리 뿌릴 계획이다.

생명나눔 30년 史

1994년 3월 27일
‘생명공양실천본부’ 설립


생명공양실천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1995년 5월
대구 가스폭발사고 중·경상자 위한 헌혈증서 475장 기부

1998년 2월 18일
월간지 ‘삶과 생명나누기(現 행복한 빈손)’ 발간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선정

2005년 9월 12일
일면 스님 이사장 취임

2015년 7월 5일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발족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발대식.

2023년
후원회원 20여만 명 달성
환우 치료비 42억원 지원

2024년 8월 3일
캄보디아 따께오 주와 업무협약

2024년 10월 12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비전선포식.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을축년 대홍수 구제자, 청호 선사 조명하다

주목! 이 논문

이병두의 '청호 선사 활동과 일제강점기 봉은사 역사'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홍수였던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청호 선사(1875년~1934년)는 사중 재산을 투입하고 구조대를 이끌어 이재민 708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후 전국의 지성인들과 사부대중은 봉은사 경내에 '나청호 대선사 수해구제 공덕비'를 건립하고 〈불괴비첩(不壞碑帖)〉을 발간해 대선사의 공덕을 기록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10월 9일 봉은사 교육관에 진행된 '을축년 대홍수 100주년 나청호 대선사 학술세미나'에서 '나청호 선사의 활동과 일제강점기 봉은사 역사'를 주제로 발표해 재난에서 구제행을 베푼 청호 선사의 업적을 조명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김가령 기자

1925년에 전국을 처참하게 했던 을축년 대홍수 때 봉은사 주지 청호 선사가 수많은 목숨을 살려내 온 국민의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불교인들도 이 일을 모르는 이들이 많고 봉은사를 오가는 사람들 중 입구에 서 있는 청호 선사 비석의 의미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2025년, 을축년 대홍수 100년을 앞두고 청호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호 학밀(晴湖學密) 선사의 생애

청호 선사는 1875년(고종12년) 경기 고양에서 아버지 나윤천(羅允天)과 어머니 원씨(元氏) 사이에서 태어나 세수(世壽) 60세, 법랍 49세 되는 1934년 7월 입적했다.

속납 12세인 1886년 강원도 양양 명주사(明珠寺)에서 월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5세인 1889년 득도(得度)하고, 9년에 걸쳐 경·율을 두루 공부해 23세 되던 1897년에 구족계를 받았다. 다음해인 1898년(24세) 개당해 법문하자 학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성황을 이뤘다고 전해진다.

10여 년간 후학 교육에 힘쓴 대선사의 이판(理判) 능력은 전 불교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1908년(34세) 서울의 조선불교원종(圓宗) 총무원 창설에 참여해 감사부장을 맡았고, 서울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覺皇寺)에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이후 1912년 가을, 당시 봉은사 판사 이보인(李普仁)의 초빙으로 봉은사의 제1대 주지로 취임, 제2대(1915년)와 제4대(1924년) 주지를 역임했다.

주지 재임 당시 청호 선사는 함경도 안변 삼방·인천·관동·현저동·옥천동 등 전국에 봉은사 포교당을 설립해 전법도생에 앞장섰다. 대선사의 법문이나 어록은 〈불괴비첩(不壞碑帖)〉, 〈불교〉지, 당시 신문 '모임난'에 소개된 것이 전부다.

대홍수 1년 뒤 편찬된 〈불괴비첩〉에 실린 글에서 대선사는 "적극적으로 불타의 가르침에 의해 계로써 몸을 닦아 10악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생계에는 자연히 병고액난(病苦厄難)과 같은 일체의 재앙이 그칠 것이다"며 "이는 곧 개인이 육체상의 구제를 받는 것이 되지만 동시에 이 우주 간의 뭇 생명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스님이 지계와 '일체 악한 행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라'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른 자비보살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선사는 1914년에 수륙공계의 전망장졸들의 혼백을 위로하고 극락왕생 시키려는 자비심에서 한강에 배 수십 척을 띄워 초혼제와 수륙재를 올렸다. 또한 사찰 근처 산림 20여만 평을 매입해 경내의 각종 전각을 중수, 창건해 갔다.

청호 선사의 보살행

청호 선사는 봉은사 취임 이래 수륙공계의 혼백을 위로하는 초혼제와 수륙재를 지내고 법회를 열었으며 사찰 소유지를 확장하는 등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에 걸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가 전국을 뒤덮었을 때 대선사의 보살행이 두드러졌다.

1925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19일에 그쳤는데, 특히 16일과 17일에 집중호우가 내려 용산제방이 모두 붕괴되고 강남 지역이 침수됐다. 잠실, 신천, 부리도 지역 약 1000호, 4000여 명의 주민이 모두 지붕에 올라 대피했다. 이때 잠실 5단지에 있던 큰 느티나무 두 그루에 700여 명이 올라 구조해 달라고 아우성쳤다. 당시 신문에서는 긴박했던 을축년 대홍수를 이렇게 서술한다.

"17일 밤 뚝섬과 왕십리 사이는 완연한 바다로 변하야 사면이 양양한 물천지요, 더욱이 전기까지 끊어져서 암흑세계를 이루었는데 비는 그대로 퍼붓고 밤은 더욱 깊어가고 구할 길이 없던 바 배를 부리던 사공조차 제 몸 위험을 느껴 출동을 거절하며 출동 하였던 백 명의 공병대도 사나운 물결에 어느 곳에 피난민이 있는 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나뭇가지와 전선줄이 장애가 되어 배를 운용하지 못하여 수재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봉은사 주지 청호 선사는 뱃사람을 모으고



청호 학밀 선사의 진영.

전국 포교당 설립, 전법도생 주도
現 봉은사 불교의례 기틀 닦기도
1925년 대홍수에 앞장서 구호활동
"불교계, 대선사 알리기 나서야"

인명을 구조해 오는 사람에게 후한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뱃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신천리까지 가서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차례로 옮겨 총 708명을 구조했다. 구조가 완료되자 얼마 후 느티나무 한 그루는 뿌리 채 뽑혀 떠내려갔다. 당시 상황을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광주군 언주면 봉은사 주지 라청호씨는 목선(木船) 3척을 주선하여 부리도(浮里島)민 114명을 구호하여 자기 절에 수용하고, 18일에는 목선 두 척을 사서 잠실리(蠶室里) 주민 218인을 구하는 등 현재 봉은사에 수용된 자만 404인이라더라."

이러한 청호 선사의 보살행이 알려지자, 당시 내로라하는 석학, 독립운동가, 예술가를 비롯해 타종교계 인사들까지 대선사의 공덕을 기리는 시와 그림을 전했다. 이것을 '후세에 영원토록 전하자'는 뜻에서 1926년 〈불괴비첩〉으로 엮었다.

"본래 그것(사람을 구한 일)은 불교의 진리이다. 다만 인연에 따랐을 뿐인데 유별나게 공덕이 있는 것이라 말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로써 세상 사람들을 감흥케 하였으니 만치 이 일을 드러내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굳이 사양치 않고 이 글을 적는다." (정인보)

"반야의 거룩한 배 가는 곳마다, 중생들 다 같이 살아나네." (이상재)

이를 받은 청호 선사는 '괴사(愧事, 부끄러운 일)'란 글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여러 대인(大人)들은 그 포상이 실지에 지나쳐서 값진 시와 글과 글씨와 그림으로서 상자에 가득하니, 이것은 참으로 산승(山僧)을 편달하고 격려하여 장차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게을리함이 없이 더욱 분발하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어찌 얼굴 붉어지지 않을 수 있으리오." (청호 선사)

1929년 7월에는 수해 이재민 대표들의 발기로 청호 선사 수해구제 공덕비가 건립됐다. 비문은 훗날 동국대 총장을 지낸 퇴경 권상로가 찬하고, 성당 김돈희가 글씨를 썼다. 이재민 구제공로자들로 봉은사 스님들 법명을 새기고, 다음과 같이 공덕비 요지를 새겼다.

"을축년 7월 홍수로 선리·부리·잠실의 뽕나무밭이 큰물에 잠기고, 708인 다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숨을 구해 달라 외쳤다. 청호 선사가 자비로움으로 이를 구제하니, 그 덕을 잊을 수가 없구나."

청호 선사가 대홍수가 있기 1년 전, '불타의 구제(救濟)를 구(求)하라'는 주제의 법문에서 "죽은 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도 구제해야 할 때"라고 설한 데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한 뜻을 확인 가능하다.

봉은사 청호 선사의 보살행, 그 의미와 과제

현재 봉은사는 영각(影閣) 안에 봉은사 역사를 지킨 스님 일곱 분의 진영과 함께 6·25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된 국군장병 영가 201위를 모시고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위령제를 지낸다. 이는 청호 선사가 봉은사 주지 취임 2년 만인 1914년에 한강에서 초혼제를 봉행, 전쟁 중 목숨을 잃은 군장병들의 혼백을 위로한 보살행의 정신을 잇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선사가 초대 주지 재임 초기부터 전국에 봉은사 포교당을 세워 전법에 매진한 원력은 봉은사가 1960년대 대학생불교연합회 수도원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학생 포교를 주도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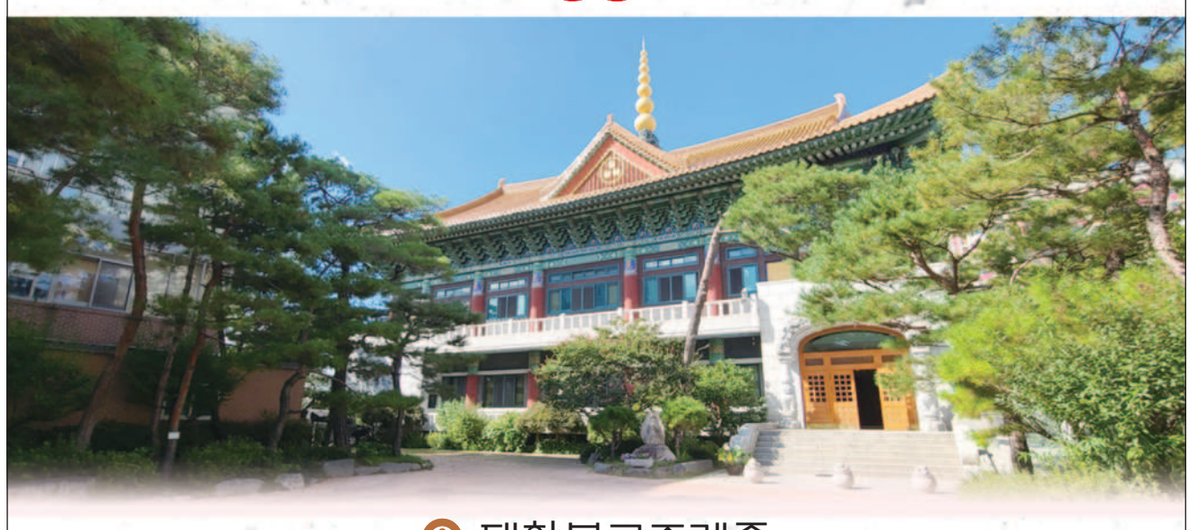
을축년 대홍수를 전후한 시기는 불교와 출가 수행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예우가 매우 낮았던 시절이다. 그런데 1919년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한 명 위창(葦滄) 오세창과 정부 수립 후 4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노래를 작사한 위당(爲堂) 정인보, 기독교계 대표적인 민족운동가 월남 이상재 등 당시 지성인들이 청호 선사와 봉은사 사부대중의 보살행이 '사라지지 않을 기록'이 돼야 한다며 〈불괴비첩〉을 엮은 일은 청호 선사 개인과 봉은사를 비롯한 당시 불교계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당시 청호 선사의 보살행은 한국불교 전체가 자부심을 가질 귀중한 자산이자 기록으로 기억해야할 일이다. 불교계는 을축년 대홍수 100년을 맞는 2025년을 '나청호 대선사의 해'로 정해 대선사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련된 글, 그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봉은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주도한다'는 사명을 갖고 1925년 봉은사의 역할과 위상을 되찾는 역할을 한다면 청호 선사의 원력과 보살행의 뜻을 이어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 法 되새기다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禪 대회



계룡 무상사가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무상사 선(禪)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선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

계룡시=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20년 전 저는 숭산 스님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계룡 숭산국제선원 무상사(선원장 탄월 스님)가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禪)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건립한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1927~2004)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추모행사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오직 모를 뿐’과 ‘오직 할 뿐’을 주제로 진행됐다. 선원장 탄월 스님에 따르면 ‘오직 모를 뿐’은 생각 이전의 마음으로 참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오직 할 뿐’은 본성에서 나오는 작용으로 보살행을 뜻한다.

한국, 프랑스, 베트남,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모인 67명의 사부대중은 스님이 남긴 법향(法香)을 다시 한번 느끼고자 무상사 선방에 모였다. 첫날 행사는 △참선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 인연담 △조실 대봉 스님·선원장 탄월 스님의 참가자 문답 △숭산 스님 생애 및 법문 영상 및 국제승가 스승 영상 축사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문답에서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과 처음 만난 순간을 술회했다. 스님은 “숭산 스님은 미국 승가 3일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다. 공안 인터뷰(선문답)를 꾸준히 하면서 스님과 매일 일대일로 수행했다”며 “숭산 스님은 참본성인 ‘모르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져 일체가 하나가 된다고 설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고 느꼈다. 이후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대중들.



질문에 답하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들이 인연담을 전하고 있다.

‘숭산 스님의 해외포교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불교의 ‘핵심’은 유지하되 그 나라에 맞는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 전법했다”며 “만약 숭산 스님이 일본불교처럼 고국의 전통만을 강요했으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들의 인연담도 진행됐다. 연사로는 체코 출신 휴정 스님, 리투아니아 출신 원보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휴 슈크만 유타대 송도 아시아 캠퍼스 부교수가 나섰다.

준한 스님은 “삶이 지옥 같았을 때, 숭산 스님의 저서 〈선의 나침반〉을 읽고 한 줄기 빛이라 생각했다. 이후 화계사에서 안거를 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며 “‘지금 이 순간, 오직 할 뿐’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잘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 학기 학생들과 무상사를 찾는 휴 슈크만 교수는 숭산 스님이 구축한 수행 공동체의 ‘편안함’을 상찬했다. 슈크만 교수는 “숭산 스님이 승가에 ‘편안함’을 심어놓은 덕분에 다양한 문화·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보 스님은 “리투아니아에서 숭산 스님의 책을 보자마자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다”며 “팔만 사천의 부처님 법문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선지식”이라고 말했다.

10월 12~13일 경내 일원서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 맞아

참선, 법문, 생전 영상 시청
스님 생전 사진 담긴 사진전
다양한 체험 부스 ‘야단법석’

휴정 스님은 본국 체코에서 무술을 수련하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스님은 “숭산 스님의 단순하고 불교의 핵심을 찌르는 글귀가 수행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2시간여 동안 참선 정진으로 행사의 막이 열렸다. 숭산 스님의 생전 가르침에 따라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하게 좌복에 앉아 참된 자아인 ‘모르는 마음’를 얻기 위해 정진했다. 가끔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뿐 선방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참선 정진은 대중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성소은(55) 씨는 20여 년 전 숭산 스님 제자 현각 스님의 저서를 보고 참선의 길에 접어들었다. 성 씨는 현재 파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학교에 설치된 ‘명상과 수행’ 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오늘 학생들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학생들과 함께 참선하니, 스님의 가르침이 잘 유지·계승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본성’을 함께 보는 수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씨와 동행한 앨리스(프랑스, 21) 씨는 “2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며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숭산 스님의 생애 및 생전 법문 영상과 미국, 폴란드, 홍콩 등 국제 승가 스승들의 축사 영상 시청으로 첫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최재현(52, 스페인) 씨는 “오늘 행사에 참여해 수행도 하고 숭산 스님의 영상도 보게 되어 기쁘다”며 “간단하지만, 힘 있는 가르침을 주시던 숭산 스님을 상기하게 되니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튿날은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법회가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선원장 탄월 스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등 스님들과 오진 법사, 일화 법사를 비롯한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 및 신도들이 동참했다.

한편,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전 커팅식과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야단법석’도 함께 진행됐다.

“제2의 숭산 키워낼 수행도량 꿈꿉니다”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

32개국 120여 선원을 세우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출재가 제자를 키워낸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1927~2004). 열반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숭산 스님이 2000년 창건한 계룡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도 바로 그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숭산(崇山)이라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릴 계획일까.

탄월 스님은 군대 전역 후 영어 특강을 들었다가 현각 스님을 통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 탄월 스님은 “전에도 불교 서적을 접했지만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간단하고 명료해 매료됐다”며 “이에 바로 출가를 결심했고, 3년간 스님께 직접 공안독참(선문답) 지도를 받기도 했다. 숭산 스님은 제 수행과 인생의 절대적인 초석이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준 큰스승”이라고 밝혔다. 이어 “숭산 스님은 자신이 설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라며 “거기에 자비와 천진한 유머까지 겸비하신 선지식이었다”고 술회했다.

숭산 스님이 열반한 지 20년이 지난 오늘, 탄월 스님은 앞으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생각일까. 스님은 먼저 숭산 스님이 남긴 국내외 인적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님은 “화계사, 홍대선원, 관음선회(Kwam Um School of Zen) 등 해외와 국내에 숭산 스님께서 남기신 유산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협력·교류하면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한국은 물론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월 스님은 무상사가 “제2의 숭산 스님이 배출될 국제수행도량”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국제관음선원 건립’이 그 초석이다. 탄월 스님은 “무상사 뒤편에 지어질 국제관음선원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외국인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숭산 스님이 남겨주신 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참나를 깨닫고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룡시=김민재 기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 사진제공=무상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16기~17기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 료 원 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 만해마을수련원 / 일산장례식장